

재정사업 성과정보 관리·활용 개선 방안

박 정 수

2024. 11.

| 재정사업 성과정보 관리·활용 개선 방안 |

박정수 부연구위원

이 보고서는 한국재정정보원 홈페이지(www.fis.kr)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재정정보원은 발간 보고서에 관한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안하신 소중한 의견이 향후 재정관리시스템 개선과 재정운용에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02-6908-8200 ✉ mymajesty@fis.kr

요 약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2021년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기존에 운영하던 재정성과관리를 보완하기 위해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도입해 제도적 기반은 완비

- 성과관리 대상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재정성과관리를 성과목표 관리와 재정사업 평가로 정의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재정성과책임관, 재정성과운영관 직위를 신설하여 제도 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
- 이를 지원하기 위해 재정성과관리 전산 인프라인 dBrain+ 역시 재정사업성과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했으나, 재정성과정보의 재정운용에의 활용 확대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추가 관리 정보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것이 필요

□ 재정성과관리 개편이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전산자원의 지원이 필수이며, 정보 저장에서 활용에 이르는 단계에 있어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

- 시스템 관리 정보가 정확하게 식별되고, 저장과 활용 절차가 정의되지 않으면 재정사업 성과정보를 재정운용에 활용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려는 노력은 결실을 맺기 어려움
- 재정성과관리를 지원하는 dBrain+ 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재정운용 환경 변화에 따라, 사용자 관점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관리, 저장하고 사용자가 이용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본 연구는 재정성과정보 관리의 국내외 현황 등을 분석하고, 재정사업성과정보시스템의 활용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개선 및 보완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

- 국내외 사례를 바탕으로 재정사업성과정보관리시스템이 보다 내실 있는 성과 지향적 재정운용 및 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시스템 관리 정보 개선, 외부 연계 강화, 공개 확대 등의 개선 방향을 제안

2. 해외 현황과 시사점

□ 해외 주요국은 재정운용에 필요한 정보를 생산하여 지속적으로 재정운용 과정에 활용하고 공개하기 위해 재정성과관리 제도와 거버넌스, 정보공개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오고 있음

- 주요국인 미국, 영국, 일본은 2000년대 초반 범부처 재정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한 이후, 재정성과 정보를 생산해 환류하고, 국민에게 공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
- 다만 재정운용의 환경과 중점 등 재정성과관리가 처한 각국의 상황과 여건이 모두 다른 만큼 성과관리 제도와 정보공개 방식은 세부적으로는 차이

□ 미국은 성과목표 체계화 및 다부처 사업 효과 증진, 각 부처의 재정성과관리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제도 개선과 정보공개 확대에 노력

- 미국의 재정성과관리 제도는 재정성과목표체계 기반 계획-보고를 확립한 정부 성과결과법에 기반을 두고 발전해 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재정사업 평가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증거법(Evidence Act)을 제정하는 등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시행
- 또한 재정성과관리 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부처별로 평가관(Evaluation Officer), 통계담당관(Statistical Expertise) 직위를 신설해 자료 관리 및 활용의 책임소재를 명확화
- 재정성과목표체계상의 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성과정보 포털 performance.gov,

재정사업 성과관리 정보공개를 위한 재정사업 평가정보 포털 evaluation.gov를 운영하며 재정성과관리와 재정사업 평가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 영국은 내각과 재무부 주도로 지침을 마련해 재정성과관리와 사업평가 등을 표준화하고 관련된 정보를 공개

- 영국은 성문법 형태로 재정성과관리를 제도화하지는 않았으나, 재정성과관리 전담 기관 지정, 정부 기능표준 지침 제·개정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음
- 재정사업 평가를 지원하기 위해 내각부-재무부 공동으로 평가지원기구(ETF)를 두고, 평가진흥기금(EAF)을 조성해 각 부처의 전문 평가·컨설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
- 재정성과관리 정보 공개는 개별 부처에서 수행하며, 연간보고서(Annual Report), 부처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표준화된 양식을 통해 공개하고 있음

□ 일본은 재정운용을 성과 중심으로 하고 사후평가 결과를 환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재정성과관리를 운영

- 일본의 재정성과관리는 「정책평가법」 등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2000년대 이후 세입·세출 경직화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개혁의 수단으로 시작해 행정사업 평가, 예산집행 조사 제도 등을 도입하며 오늘에 이르고 있음
- 성과지표 관리 결과, 재정사업 평가 결과는 총무성이 주관하고 정보는 평가포털에서 공개하고 있으며, 이 중 재정에 반영되는 부분이나 재무성이 관장하는 예산집행 조사 정보 등은 재무성 홈페이지에서 공개하는 등 이원화된 평가 활용 및 결과 공개 체계로 운영
- 특히 재정사업 평가 결과의 예산 반영 부분을 시각화해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고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음

〈표〉 비교대상국가 재정성과관리 제도 및 정보공개 요약

		미국	영국	일본	한국	
제도	근거법령	GPRAMA	-	정책평가법	국가재정법	
	중기계획 연동		부처 계획 연동	범정부 계획 연동		
	성과지표관리		우선순위목표 다부처목표	부처별 전략지표	재정사업별 지표	재정사업별 지표
	평가 체계	전략	성과계획/보고	지출검토	정책평가	성과계획/보고
		프로그램	프로그램 평가	자율평가	예산집행조사	
		사업	자율평가		행정사업리뷰	재정사업평가
정보 공개	정보공개 포털		performance.gov	부처별 공개	재무성	열린재정
			evaluation.gov	gov.uk	정책평가포털	
	공개 주요 항목		성과 지표 연간 평가계획 성과계획/보고	성과 지표 성과계획/보고	성과 지표 연간 평가계획 예산반영현황 평가보고서	성과 지표 평가보고서

□ 우리나라는 2021년 「국가재정법」의 개정으로 기존에 운영하던 재정성과관리를 보완하기 위해 재정사업 성과관리 체계를 도입해 오늘에 이르고 있지만, 재정성과정보의 활용, 공개에 있어서는 미흡한 점이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

- 우리나라의 제도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시작해 사업별 평가제도까지 마련하고 있는 만큼, 비교대상 3개국의 제도를 고르게 흡수, 장점을 극대화하기 좋은 환경이지만 정보의 생산과 활용에 있어서는 미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신설한 직위의 재정성과정보 관리 및 활용상의 책임이 명확하지 않아 정보의 활용 전(前)단계에서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 각종 재정성과관리 보고서를 표준화하며 정보공개, 거버넌스를 명확하게 한 미국과 일본, 영국 등의 사례를 참고해 중장기적으로 재정성과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정보관리를 강화하면서 점진적으로 공개를 확대해 나가야 함

3. 현황 및 개선 방안

□ dBrain+의 재정성과정보관리는 그간 지속적으로 개선이 이뤄져 왔음에도 활용도는 미진

- dBrain+는 재정사업 대상 평가 데이터를 관리하고, 연구개발, 균형발전 등 타 법령에 의한 재정사업 대상 평가(이하 타평가) 자료를 연계 및 입력으로 확보 및 관리하며, 재정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즉시 사용 가능한 정보가 부족하고, 활용도가 낮음

□ 분석을 위한 재정사업 및 평가 속성 추가, 단위 업무 간 중복 제거 등을 통해 활용도를 높이고 정보공개를 강화해야 함

- 현재 재정사업성과정보관리시스템은 사업별 평가 등급만 관리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사업 정보, 점수 및 세부 배점, 평가지표 등을 검토해 보완해야 함
- 재정사업 성과정보 활용을 보완할 수 있는 사업 속성은 지나치게 일반적인 정보, 또는 업무 부담을 늘리는 과도한 정보 확충을 지양하면서 공동활용성이 높은 방향으로 개선 필요
- 사업별 세부 점수, 평가지표 등은 중장기적으로 개선하면서 사업별 평가보고서를 함께 데이터베이스화해 중장기적으로 확충해야 함

□ 다부처 평가사업의 정보관리를 위해 현행 「국가재정법」상 재정성과관리 거버넌스를 구체화해야 함

- 평가정보 취합 등에 있어 개별 부처 단위의 정보 취합과 정확도 확인 절차 등을 마련하고 정보관리 및 활용에도 책임을 부여할 필요

□ 타평가 보고서, 타시스템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지속적으로 데이터 및 사업정보 표준화를 추진하면서, 전산 공동활용 기반 마련을 위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

- 자율평가, 재난안전사업평가, 일자리사업평가, 중소기업지원사업평가, 균형발전평가 등은 평가항목 표준화가 추진된 만큼, 사업 구분 정보 등 일반정보를 확충해 나가면서 표준화된 평가항목에 따라 정보를 관리해 나갈 여지가 충분
- 연구개발 사업, 복권기금, 보조사업 등의 평가는 항목 등의 표준화가 미진한 만큼 지속적인 표준화를 통해 정보관리항목 통일을 선행할 필요
- 재정사업정보관리시스템 간의 연계는, 재정사업 코드 표준화 등 사업 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기반이 필요한 만큼 중장기적으로 개선 필요

〈표〉 재정사업 성과관리 관련 주요 시스템 현황

	dBrain+	NTIS	NABIS	일모아	SIIMS
최초 구축	2007	2008	2009	2009	2013
현시스템	2021	2022	2022	2024예정	2022
주요 기능	국가재정 관리	연구개발 관리	균형발전사업 관리	일자리사업 관리	안전정보 관리
사업 정보	세부사업 편성정보 결산정보, 성과정보	연구개발사업 중간/사후평가정보	균형발전사업 정보 평가정보	일자리사업 정보	재난안전 예산정보
성과정보	성과지표, 보고서 관리			없음	

□ dBrain+ 재정사업성과정보관리시스템 개선을 위해,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단계별로 데이터베이스를 강화해 나가면서, 재정업무에 성과정보 활용을 확대하고, 정보 공개를 증진해 나가야 함

- 데이터베이스 속성 확충, 세부 점수 및 지표 추가, 정보 공개 등 재정사업 성과정보의 관리와 활용, 공개를 위해 최소 3년 이상의 개선계획이 필요
 - 각 연차별로, 사업 유형 분류, 중분류 등의 사업 구분 정보를 검토하고, 사업 기본정보 속성, 배점, 평가제외 사업 및 사유, 전체 재정사업 성과지표 등을

중장기적으로 관리

- 중장기적으로 여러 재정사업정보관리시스템 간 사업정보 공유 기반을 마련하고, 사업 기본정보와 성과정보를 점진적으로 연계를 통해 공유할 필요
- 중장기적으로 재정성과관리 정보, 재정사업 성과정보 관리와 활용을 위한 지침 정비, 현행 거버넌스상의 책임소재 명확화 등 거버넌스 차원의 개선도 고려해야 함
- 재정사업 평가 등 관리업무에의 데이터 활용에서 시작해, 예산 편성에도 사업정보, 평가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정보교육, 정보활용 절차 개선 필요
- 재정성과정보를 통합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사업정보 확충 및 과거 데이터 확보 등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순차 공개를 확대해 나가야 함

〈표〉 중장기 재정사업성과정보 관리 개선 방안

			1년차	2년차	3년차
사업 속성	추가사업정보	dBrain 탑재	협의	내부 연계	내부 연계
		추가 입력	탐색	입력	입력
	사업분류	대분류	시범입력	입력	입력
		중분류	-	시범입력	입력
평가 배점 및 지표	세부 점수		표준화/시범	입력	입력
	평가지표	국고보조	개선	입력	입력
		연구개발 지역발전	연계 준비	연계	연계
		기타	-	시범입력	입력
거버넌스	정보관리 절차		개선	개선	개선
	지침		초안/시범운영	운영	개선
공개	평가보고서	자율평가	개선	공개	공개
		기타평가	시범입력	공개	공개
	평가DB	1차	탐색 개발	입력	공개
		2차	-	탐색/입력	공개
		시각화	인포그래픽	자동화 차트	
	성과목표지표	국고보조	정리/개선	공개	공개
		평가별 지표	시범입력/연계	활용	공개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2. 연구의 검토 범위와 분석 방향	3
II. 해외 재정성과정보 관리 현황	4
1. 미국	4
가. 제도 현황	4
나. 성과정보 관리 및 공개 현황	9
2. 영국	20
가. 제도 현황	20
나. 성과정보 관리 및 공개 현황	26
3. 일본	30
가. 제도 현황	30
나. 성과정보 관리 및 공개 현황	32
4. 시사점	36
III. 우리나라 재정성과정보 관리 현황 및 개선 방안.....	40
1. 재정성과정보 관리 현황	40
가. 시스템 구성 현황	40
나. 개선 방향	46

목 차

2. 타평가 정보 현황	56
가. 타평가 정보 현황	57
나. 정보관리 거버넌스 현황	82
다. 타평가 정보관리 시스템 현황	84
3. 재정사업성과정보관리시스템 개선 방안	96
가. 중장기 로드맵 수립	97
나. 단계별 데이터베이스 강화	99
다. 재정업무에의 재정사업성과정보 활용 확대	100
라. 성과 중심 재정정보 공개 강화	102
 IV. 결론	 106
 〈참고문헌〉	 108

표 목차

〈표 II-1〉 미국 성과관리 법제도 최근 변화	7
〈표 II-2〉 2017년 이후 IT 아젠다와 성과관리 아젠다 주요 변화	8
〈표 II-3〉 비교대상국가 재정성과관리 제도 및 정보공개 요약	39
〈표 III-1〉 dBrain 재정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주요 내용	41
〈표 III-2〉 재정성과 속성정보의 구분과 주요 내용	44
〈표 III-3〉 사업 속성 중 사업수행 주체의 중복 수	46
〈표 III-4〉 사업 속성 중 수혜대상의 중복 수	47
〈표 III-5〉 사업 속성 중 수행활동의 중복 수	48
〈표 III-6〉 수행주체, 수혜대상, 수행활동 중복 사업의 예시	48
〈표 III-7〉 다른 평가 결과가 입력된 사업의 예시	52
〈표 III-8〉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 현황	59
〈표 III-9〉 평가별 항목 표준화 여부	61
〈표 III-10〉 평가별 공통항목 배점	62
〈표 III-11〉 중소기업 지원 사업의 사업 구분 및 사업 수	63
〈표 III-12〉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의 전사업 공통 지표	63
〈표 III-13〉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사업분류별 특성 지표	64
〈표 III-14〉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사업 구분 및 사업 수	64
〈표 III-15〉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사업분류별 공통 및 특성 지표	65
〈표 III-16〉 재난안전 사업의 사업 구분 및 사업 수	66
〈표 III-17〉 재난안전 사업의 성과지표 유형	67
〈표 III-18〉 재난안전 사업 평가 상위 평가의 배점	67
〈표 III-19〉 균형발전 사업의 사업 구분 및 사업 수	68

표 목차

〈표 III-20〉 균형발전 사업의 계정별 평가 방식 및 지표	69
〈표 III-21〉 자율평가 지출구조조정 계획 주요 내용	70
〈표 III-22〉 비표준화 평가별 평가항목 현황	71
〈표 III-23〉 연구개발사업의 기술성평가 사업 유형 분류	72
〈표 III-24〉 국고보조사업 유형 분류	72
〈표 III-25〉 사업 유형별 설명서 공통화 작성항목 현황	75
〈표 III-26〉 사업 정보의 표준화 목차 현황	76
〈표 III-27〉 사업 평가별 성과지표 관리 현황	78
〈표 III-28〉 NABIS 성과관리 관련 주요 제공 통계 현황	88
〈표 III-29〉 2024년도 일모아시스템 고도화 개선 방향	91
〈표 III-30〉 재정사업 성과관리 관련 주요 시스템 현황	95
〈표 III-31〉 재정사업성과정보관리시스템의 개선 방안	97
〈표 III-32〉 중장기 재정사업성과정보 관리 개선 방안	98
〈표 III-33〉 추가 속성 관리 방향	100
〈표 III-34〉 재정사업 성과관리 자료 공개 현황	104

그림 목차

<그림 II-1> 미국 성과관리 체계 6

<그림 II-2> 미국 통합재정정보 공개 프레임워크 11

<그림 II-3> performance.gov 정보공개 예시 13

<그림 II-4> performance.gov의 버블차트 시각화 14

<그림 II-5> performance.gov 자체 DB 항목 시각화 15

<그림 II-6> 농무부 2024 성과계획서와 2022 성과보고서 예시 15

<그림 II-7> Evidence Act와 evaluation.gov 구축계획 17

<그림 II-8> evaluation.gov의 부처별 정보 공개 18

<그림 II-9> evaluation.gov의 자료 제공 예시 19

<그림 II-10> 영국 재정관리 프레임워크 20

<그림 II-11> 영국의 중기계획과 성과관리 22

<그림 II-12> 영국 정부 기능 표준 중 분석 기능 23

<그림 II-13> 사업등록 서식(Benefits resister template) 23

<그림 II-14> 보고서 성과지표 시각화의 변화: 국방부 예시 27

<그림 II-15> 2021년까지 운영된 성과정보 대시보드 28

<그림 II-16> 영국 환경청(Environment Agency) 성과지표 Scorecard 28

<그림 II-17> 사회주택규제국(Regulator of Social Housing) 성과정보 예시 29

<그림 II-18> 일본 각종 정책평가의 예산 반영 사례 예산서 첨부서류 33

<그림 II-19> 일본 총무성 정책평가 포털 사이트 34

<그림 II-20> 일본 재정사업 평가 목표체계(문부과학성) 34

<그림 II-21> 일본 정책평가리뷰 성과지표 사전조사서 35

<그림 III-1>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구성도 40

그림 목차

〈그림 III-2〉 재정성과관리 강화를 위한 시스템 개요	44
〈그림 III-3〉 e나라도움 속성정보 화면	51
〈그림 III-4〉 프로그램 예산체계와 재정성과관리의 개념	58
〈그림 III-5〉 재정사업 평가항목 표준화 개념도	60
〈그림 III-6〉 dBrain 재정사업성과정보관리시스템 입력 화면	70
〈그림 III-7〉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지표 유형 및 계층	73
〈그림 III-8〉 dBrain+ 재정사업자율평가 권한 담당자 현황	82
〈그림 III-9〉 NTIS 성과평가정보시스템	85
〈그림 III-10〉 NTIS 과제평가 관련 주요 화면	86
〈그림 III-11〉 국가균형발전종합정보시스템(NABIS) 목표개념도	87
〈그림 III-12〉 NABIS 주요 화면	89
〈그림 III-13〉 일모아 시스템 구조도	90
〈그림 III-14〉 SIIMS 시스템 구성도	93
〈그림 III-15〉 성과정보 활용 인포그래픽 시안 예시	105

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국가재정법」을 통해 재정성과관리가 제도화된 지 18여 년의 시간이 지나고 있는 시점이다. 2000년 최초로 성과계획서 작성 시범사업을 시작한 것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면 벌써 25년째인 것이다. 재정성과관리를 시행한 지 상당한 시점이 지난 지금, 정부가 작성하는 모든 보고서는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작성되고 있으며, 정부가 수행하는 모든 사업의 예산과 기획 역시 최소한의 성과 요소를 담을 것, 이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필수로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과정을 거쳐 정부가 하는 모든 일을 성과 중심으로 정렬하고, 이를 바탕으로 설명, 논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재정성과관리 제도는 상당히 정부 재정업무에 내재화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21년 「국가재정법」 개정은 재정성과관리 업무의 발전과 내재화에 있어 한 단계 도약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금번 개정을 통해, 기존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중심의 성과목표관리제에 더해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명시적으로 「국가재정법」의 틀, 즉 재정업무로 공식화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기존에 막연하게 서술되고 운영되었던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을 더욱 구체화해 성과관리의 대상을 재정사업으로 명확히 하고, 개별 부처에서 5개년 단위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이를 추진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며, 이에 대해 평가해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환류 및 공개하도록 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이로써 그동안 막연하게 800여 개로 구성된 프로그램 중심의 재정성과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세부 재정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한 재정성과관리의 틀을 마련했다. 이는 그 이전에 재정성과관리의 한계로 지적받아 왔던 성과관리 대상의 모호성을 한 단계 구체화시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전체 재정사업을 중심으로 정보를 생산, 국무회의를 거쳐 공개하고, 이를 요약하여 개별 부처의

성과관리 목표와 전략목표를 연계하는 성과계획서 및 보고서를 작성, 국회에 제출하는 하나의 체계가 완비되었다. 이에 따라 재정성과에 대한 전략적 정보를 보고 싶은 사람은 성과계획서와 보고서를, 세부적인 내용을 궁금해하는 사람은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게 된 만큼 각 수요자가 원하는 정보를 체계에 맞춰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법률과 조직체계가 완비되었다고 해서 바로 목적인 바를 달성하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재정성과관리를 중심으로 현재까지 이 제도를 통해 이룬 것 외에도 많은 것이 미달성의 영역으로 남아 있다. 대표적인 미달성 목표가 바로 “왜 성과 중심의 정보공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재정성과관리가 최초 도입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숙제이다. 이는 부분적으로 재정성과관리 결과를 통해 재정 투입의 성과를 “세부적으로 객관화”할 수 있을 것, 성과를 중심으로 설명하면 세부을 알지 못해도 전체적으로는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재정성과관리에 대한 낮은 이해도, 사후 평가보다 사전 기획을 상대적으로 중시했던 과거의 예산편성 환경 등에 부분적으로 기인한다. 요약하면, 재정업무를 성과를 중심으로 수행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재정성과가 무엇인지 정확히 정의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사업단위의 의사결정이 재정 분야의 트렌드가 되면서, 재정성과를 재정사업 중심으로 정의하려는 경향이 강해졌다(OECD, 2017; US GAO, 2023). 2021년도의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한 재정사업 성과관리 강화는 이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재정성과를 재정사업 차원에서 이해하고, 사업단위 평가 정보와 성과지표 관리를 통해 재정 의사결정의 질을 제고함은 물론, 이를 중심으로 재정성과정보를 국회와 국민에게 제공해 재정 투명성을 향상시키자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 맥락의 연장선상에 있다. 개정 「국가재정법」은 제85조의12를 통해, 재정사업 성과목표 관리 및 성과평가 결과 등을 성과정보로 정의하고 이를 관리, 공개할 수 있도록 재정사업성과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재정의 성과를 사업 중심으로 정의하고 이를 공개하려면, 전산자원의 지원이 필수

이다. 시스템을 통해 관리되는 정보가 곧 재정성과정보로 정의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시스템을 통해 관리해야 하는 정보가 정확하게 식별, 정의되지 않으면 재정성과를 재정사업의 성과정보로 치환, 구체화하려는 노력은 결실을 맺기 어렵다.

2. 연구의 검토 범위와 분석 방향

본 연구는 현행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하 dBrain⁺)의 성과정보 관리 현황, 구축 현황을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재정사업 성과정보의 틀에서 관리해야 하는 정보를 보완하며, 나아가 이를 공개한다고 했을 때의 방향을 제시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먼저 미국, 영국 등 최근의 영미권 재정성과관리 및 전산관리 현황을 분석한다. 다음으로 dBrain⁺ 내부 연계를 통해 재정성과정보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한다. dBrain⁺에는 현행 재정사업성과정보관리시스템 외에도 2011년 개통해 운영 중인 재정성과관리시스템도 있으며, 여전히 이들 시스템은 시스템 내 타 모듈의 정보와는 독립, 중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중복성을 식별하고,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틀에서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식별하는 것이 1차 목표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외부에서 재정사업 성과정보를 보완하는 방안이다.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범주로 볼 수 있는 타부처 주관 다부처사업 평가 결과를 검토한 후, 전산으로 관리해야 할 정보 범주를 식별하고, 관리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재정사업 성과정보 속성을 추출하여 제시한다. 이를 통해, 마지막으로 이들 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해외 재정성과정보 관리 현황

1990년대 신공공관리 행정개혁 이후, 공공부문의 성과관리는 행·재정 개혁의 일부가 아닌, 행정과 재정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다. 공공부문에서의 성과관리는 단순히 성과를 지향한다는, 꽤 오래된 공공부문의 개혁 이니셔티브에서 시작했으며, 이제는 개인의 업무 성과, 조직, 그리고 사업을 대상으로 그 범위가 확장되어 나가고 있다. 공공부문 재정의 성과관리는 개인과 조직을 대상으로 한 1990년대 신공공관리의 성과관리보다도 더 오래전에 시작되었다. 정부의 재정을 분할하는 단위인 사업을 프로그램, 단위사업으로 정의하고 이를 예산편성과 연계하려는 노력은 미국의 1960년대 기획예산, 1970년대의 영기준 예산이 시초이다. 이와 같이 공공부문 재정성과관리의 중심을 재정사업에 두고 평가 및 개선사항 도출, 예산과 연계하려는 시도는 2000년대 신공공관리의 흐름 속에서 당시의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한 정부 재정건전성 악화 추세를 극복하기 위해 중기재정계획과 함께 각국이 적용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최근에는 성과관리를 보다 객관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데이터 접근, 그리고 이를 공개하기 위한 이니셔티브가 점차 강해지고 있다.

본 장에서는 공공부문 재정성과관리의 사례인 미국, 영국, 일본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 나라는 비교적 최근에도 재정성과관리의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해오고 있으며, 국민에게도 널리 알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1. 미국

가. 제도 현황

미국의 재정성과관리는 전술했듯이 연혁이 매우 오래되었으며, 그 오랜 노력의 결과 1993년 정부성과결과법(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 Act, 약칭

GPRA)이라는 형태로 제도적 결실을 맺었다. GPRA는 그 이전에 존재하던 재정사업의 오래된 구분 기준 중 하나인 프로그램 관리를 정형화, 표준화하기 위한 것이다. 즉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하던 기존의 비정기적이고 공개되지 않던 재정사업 체계를, 5개년 단위의 중기계획으로 공식화하고, 집행 과정을 개선해 재정을 효율화하며, 이를 공개할 것을 명시했다.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program evaluation)와 성과목표(performance goal), 성과지표(performance indicator)의 개념도 이시기에 제도적으로 정립되었다. 비록 이 시기의 정부성과결과법은 정부의 성과관리를 예산과 결합하는, 보다 급진적인 성과예산(performance budgeting)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기획하였고 그 결실을 보지는 못했지만, 본 법에서 제시한 핵심 구성 요소들은 미국의 현대 재정성과관리의 뼈대를 이루고 있다.

GPRA 제정 후 재정성과관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특히 하나의 문제에 다양한 부처가 관여하는 경우 성과관리를 조정해야 하는 문제가 생김에 따라 2010년 GPRA현대화법, 약칭 GPRAMA가 제정되었다. 이 법률은 다양한 부처가 하나의 문제에 연관되는 경우에 대해 다부처정책우선목표(CAP: Cross-Agency Priority Goal)를 설정할 것, 그리고 개별 부처 수준에서도 당장 집중해야 할 우선순위 목표(APG: Agency Priority Goals)를 설정할 것 등을 명시했다. 그리고 다부처정책우선목표와 우선순위목표 등을 대통령의 국정과제(Presidential Agenda)와 성과관리를 연계시켜,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재정 소요, 사업 목표 기획, 목표 달성여부 사후 평가 등을 일체화하는 것이 GPRAMA의 제정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GPRAMA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연방정부 성과관리 대상 프로그램 목록(Program Inventory)을 최초로 명확화했으며, 성과관리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각 부처의 최고운영관(Agency Chief Operating Officers)을 두고¹⁾ 이를 보좌하기 위해 부처 성과관리관(Agency Performance Improvement Officers)²⁾을 둘 것을 최초로 명시했다.

1) 차관급(deputy head of agency, or equivalent)으로 법에서는 규정하고 있다.

2) 고위공무원단(senior executive)으로 법에서는 규정하고 있다.

〈그림 II-1〉 미국 성과관리 체계



자료: 관리예산처. 2023. Circular A-11 바탕으로 작성

성과정보를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할 것을 처음으로 명문화했다. 성과정보를 단순히 문서 형태로만 작성, 게시하는 것에서 나아가 정보를 기계판독 양식(machine-readable format), 즉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공개할 것을 처음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만들어진 성과정보 포털 사이트 performance.gov에서는 미국 재정성과관리 문서와 데이터를 모두 한 곳에서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

GPRAMA 이후에도 정부의 재정성과관리를 규율하는 법률은 프로그램관리개선책임법 등도 있었지만, 가장 최근의 주요 법률은 2018년의 증거기반정책형성기본법(The Foundations for Evidence-Based Policymaking Act)이다. 이 법률은 미국 연방정부의 각종 정책평가 활동을 표준화, 의무화하고 절차를 상세화한 법률이다. 이 법률은 제2편으로 공공데이터개방법(OPEN Government Data Act)을 담고 있는데, 이는 1편의 공공부문의 평가 포함 증거구축 활동을 공공데이터 개방과 연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즉 기획, 평가, 성과관리 등 정부의 모든 활동을 의사결정을 위한 증거수집 활동으로 보고, 이를 위한 통계 수집 등의 업무를 절차화, 효율화하며, 이 모든 정보를 기본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증거기반정책형성기본법의 핵심이다.

증거기반정책결정기본법(약칭 증거법, Evidence Act)은 정부성과결과법, 정부성과결과법 현대화법을 보완해 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 증거법 이전에는 성과관리를 위한 계획이 단년도 계획에만 그치고 있었고, 4개년 단위의 전략적 성과관리가 최말단의 지표 관리, 사업별 평가 관리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았다. 증거법으로 말미암아 기관별로 지표관리, 평가관리를 통합한 증거구축 계획을 수립할 것, 그리고 증거구축을 위한 역량평가를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증거구축 계획은 단년도 학습아젠다(learning agenda), 연간평가계획(evaluation plan), 평가역량 사정(capacity assessment), 평가 지침과 정책(evaluation policies)으로 구체화된다. 그리고 이들 성과관리/평가 기획 및 사정을 위해 고위공무원단급의 평가관리관(Evaluation Officer)을 두고 평가관리관위원회(Evaluation Officer Council)를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부처별 평가관리관 임명 현황, 위원회 현황, 각종 증거구축 계획과 그 결과 보고서 등을 한 곳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평가포털 evaluation.gov을 구축하여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표 II-1〉 미국 성과관리 법제도 최근 변화

법명	주요내용
Chief Financial Officers Act of 1990 (CFO Act)	- 재무관리 의무화 및 대상 부처(24개), 재무책임자(CFO) 지정 - 전략검토(Strategic review)의 근거
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 of 1993(GPRA)	-부처 전략계획(Strategic Plan), 연간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작성 의무화
Government Performance Result Act Modernization Act, 2010(GPRAMA)	- 부처 우선순위(APG), 다부처 성과목표(CAP), 분기별 점검제, 최고운영관(COO), 성과관리관(PIO) 지정 - 행정업무 경감, 불필요한 보고서 제거 등 규정
Program Management Improvement Accountability Act, 2016(PMIAA)	- 프로그램 성과향상관리자(PMIO) 지정 - 프로그램 포트폴리오 평가(Program portfolio review) 도입 - 감사원 사업위험 평가(GAO High Risk review) 근거 도입
The Foundations for Evidence-Based Policymaking Act of 2018(OPEN Government DATA Act)	- 평가계획(Evaluation Plan), 평가역량 사정(Capacity Assessment), 학습목표(Learning Agenda) 작성 의무화 - 평가관리자(Evaluation Officer), 통계관리자(Statistical Expertise) 도입
OMB Uniform Guidance on Grants and Awards(2014~2020개정)	- 신규 보조 및 출연 사업의 부처 전략계획과의 적합성 여부 사전 검토. 성과 측정, 관리, 보고 활동 의무화

자료: GovInfo.gov의 각 법률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의회에서 법률로 결정된 각종 성과관리 제도 외에도 대통령령, 국정과제 등으로 추진되는 재정성과관리 또는 평가 개편도 상당히 잦은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7년 이후의 변화만을 주로 적었지만, 그 이전에 대통령령, 국정과제로 추진된 대표적인 재정성과관리·평가 제도가 바로 부시 행정부(2001~2009년) 출범 후 실시된 PART(Program Assessment and Rating Tool)이다. 우리나라의 재정사업자율평가에 해당하는 PART는 1993년 정부성과결과법이 의도했던 성과예산(Performance Budgeting)을 행정부 차원에서 정착시키려는 시도로, 평가 결과를 예산에 연계시키기 위해 사업평가의 기준을 표준화하고 등급제를 도입한 것이다. 이 제도는 민주당의 반대로 입법화, 즉 영구제도화되지는 못했지만 대통령령으로 시도된 성과관리 정착 시도 또는 노력으로서 우리나라를 비롯해 여러 나라에 영향을 주었다.

2017년 이후의 재정성과관리의 국정과제 차원에서의 변화는 아래 <표 II-2>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대체로 미국에서도 성과관리와 관련해 데이터 활용 확대, 역량 강화, 평가정보 활용 확대 등을 주요 목표로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2> 2017년 이후 IT 아젠다와 성과관리 아젠다 주요 변화

	IT 아젠다	성과관리 아젠다
2017	공공데이터 개방 스마트 IT 사이버보안 강화 고객만족 확대	평가를 통한 증거기반 정책결정 증거 활용을 위한 역량 강화
2018		핵심 서비스 효과성 강화 정책 순응 비용 저감 프로그램 성과 효율성 확대 성과 향상에 대한 책임 강화
2019	IT 현대화 데이터 책임성 투명성 강화	다부처 성과목표(CAP) 관리 강화 성과관리에의 데이터 활용 일상화 전 부처 성과계획 및 전략 수립

	IT 아젠다	성과관리 아젠다
2020	IT 현대화 펀드 조성 신규 CAP 목표 - IT 현대화 - 데이터 전략자산 가치 향상	우수사례 발굴 분기별 데이터 기반 성과평가 시행 OMB 주관 성과관리 전략회의제 주요 핵심 학습아젠다 발굴 성과책임관제
2021	데이터 전략자산 가치 향상	중복 프로그램 구조조정/폐지 투자사업 평가체계 개선 증거 기반 정책결정 확대 보조/출연금 데이터 기반 결과지향 책임성 강화 신규 부처 목표에 대한 전략평가 시행
2022	IT 현대화펀드 확대 사이버 위험 대응 강화 IT 인력 관리 개선	성과관리를 통한 신뢰 회복
2023	연방정부 데이터 역량 강화	정부 관리에 있어서의 공정성(equity) 강화 프로그램 성과 개선 통계 개선 통한 다부처 평가 지원 강화
2024	연방 시스템 개선과 데이터/평가 연계 강화	평가 통한 사업 성과 개선 강화 평가자 역량 개선, 평가 데이터 품질 확대 평가에 있어 환경 영향 배점 확대

자료: OMB. 대통령 예산안. 각 연도.

나. 성과정보 관리 및 공개 현황

미국의 재정정보 온라인 공개는 개별 웹사이트별로 근거법령을 따로 두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재정성과정보의 공개를 위한 performance.gov는 정부성과 결과법 현대화법을, 정부의 증거 생성 행위로서 사업평가 정보를 한 곳에서 공개하기 위한 evaluation.gov는 증거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 외에도 미국의 재정정보 공개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재정정보를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최초의 근거법령은 2006년 제정된 연방재정 책임성 및 투명성 법(Federal Funding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Act. 이하 FFATA)이며,

이 법률은 2014년 제정된 디지털 책임성 및 투명성법(Digital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Act. 이하 DATA Act)으로 보완되었다. FFATA법은 재정집행 상황에 대한 정보공개창구를 USASpending.gov로 단일화해, 모든 국민이 추가적인 비용부담 없이 재정의 집행 상황에 대해 투명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법률로 연방정부의 모든 계약과 조달, 보조금 집행 현황 등을 공개했으나, 정보의 일관성이 결여되고 예산 지출 관련 데이터가 여전히 투명하게 제공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제정된 법이 DATA Act이다. 특히 개별 부처와 산하 기관의 재무 집행 관련 전산시스템 간 연계, 표준화가 부족해 정보 공개를 위해서는 중복 업무 부담이 발생한다는 점을 주요 문제점으로 보고, 모든 부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정데이터의 공통표준을 확립할 것을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각 부처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를 표준화해 취합하는 DATA Act Broker 시스템을 2016년 개통하고, 이에 따라 USASpending.gov도 재구축, 2017년 오픈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본 연구는 재정성과정보의 공개 현황과 추이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협소하게는 정부성과결과법 현대화법에 근거한 performance.gov, 증거법에 근거한 evaluation.gov가 분석 대상이다. 하지만 미국의 통합재정정보공개 프레임워크에 의하면 성과정보 역시 근 미래 통합 공개 대상이기 때문에 함께 보도록 한다.

1) 미국의 재정정보 공개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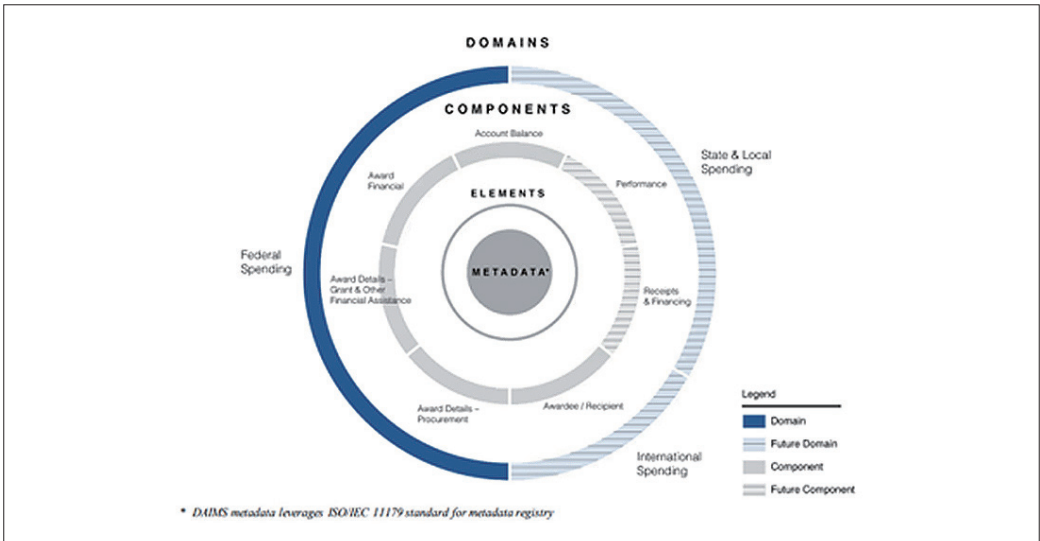
미국 재정정보 공개 통합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DATA Act이며, DAIMS(DATA Act Information Model Schema)라는 데이터 프레임워크에 기반을 두고 있다. DAIMS는 각 부처에서 공개해야 하는 재정정보의 양식을 표준화하고 취합 절차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본 법률의 시행으로 인해 계좌(account)와 사업(program)의 단위를 일치하고 지출항목 정보를 함께 보여줄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었다. 이에 따라 재정정보 공개창구를 단일화되며, 부처별, 사업별로 구축된 여러 시스템에서 제출된 자료의 정합성 확보, 표준화가 이뤄졌다.

USASpending.gov의 재정정보 공개 프레임워크는 다음과 같다. 연방정부 수

준의 지출에 대해 사업별 계좌 잔고, 사업정보, 수혜자 정보를 중심으로 현재는 구축되어 있다. 즉 연방정부의 지출에 대해 수혜자 수준까지 추적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주와 지방정부의 지출에 대해서는 DAIMS가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2021년 기준 미래 범주(Future domain)에 포함되며, 성과정보, 결산 정보는 여전히 미취합 상태로 향후 구성 요소(Future Element)로 되어있는 것을 알 수 있다.

USASpending.gov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한 데이터 취합은 DATA Act Broker라는 시스템이 수행하고 있다. 이 시스템을 작동시키기 위해 취합 대상 57개 필수 정보에 대한 표준지침을 발간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개별 부처에서 운영하는 재정정보시스템에서 자료가 분기별로 추출되며, 여러 시스템에서 추출된 정보를 교차 검증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리고 지출 건별 자료에 대한 수혜자 정보를 원활하게 수집하기 위해 보조사업 사업자 시스템들을 일괄 통합하여 SAMS(State Assistance Management System)를 구축, 2021년 전면 개통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림 II-2〉 미국 통합재정정보 공개 프레임워크



자료: 미국 재무부. DAIMS model Shema

2) 성과포털 performance.gov

통합 재정정보 공개 프레임워크에서 성과정보가 미래 과업으로 설정되어 있는 만큼, 당분간은 performance.gov가 재정성과정보 공개를 위한 사이트로 기능하게 된다. 법적 근거는 2010년 제정된 정부성과결과법 현대화법이지만, 이 사이트는 부시 행정부 때 정부 업무를 성과 지향적으로 공개하기 위해 오픈했던 results.gov를 확장, 개편한 것이다. results.gov는 정부 업무 성과지표의 스코어보드를 공개하기 위해 2002년 개통했으며,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녹색, 붉은색, 노란색으로 표시해 주던 초기 형태의 대시보드였다. 이 웹사이트를 통해 총 6,516개에 달하는 성과지표를 6년에 걸쳐 성과를 추적, 공개했으며, 국정과제를 성과 중심으로 국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다.

정부성과결과법 현대화법을 통한 재정성과관리 개편과 웹사이트 게시 의무는 부분적으로는 부시 행정부의 재정성과관리 제도 운영 및 정보공개의 교훈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results.gov는 비록 국민 중심, 결과 중심의 재정성과정보 공개를 표방했지만, 무엇보다 지표의 수가 많았고, 부처별 스코어카드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도 어려웠다. 즉 목표들은 무엇이 중요한지 알려주지 못했으며, 어느 부처의 어느 목표와 지표가 국정과제인지 알려주지도 못했다. 2010년 현대화법이 부처 우선순위목표, 다부처 우선순위목표를 설정하도록 한 것은 부시 행정부의 성과관리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기도 한 것이다.

미국의 성과관리 업무는, 예산편성 단계에서 출발한다. 여러 차례 법개정 및 웹사이트 변경에도 불구하고 이는 변하지 않는다. 성과관리 체계에 의한 지표관리 결과, 각종 보고서들은 예산편성시스템(MAX)을 통해 OMB의 확인을 받게 되며, 최종 확인된 결과 정보들은 performance.gov에 제출 및 입력된다. 이들 중 현재 performance.gov에 단독 DB화해 공개하는 정보는 부처 전략목표, 우선순위 목표 현황에 대한 비정형 정보 DB, CAP 목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즉 엑셀시트이다. '24~'25회계연도의 부처 우선순위목표(APG)는 90개, 전략목표(SG)는 98개, 전략(SO)은 351개이며, 정권별, 매년 그 수는 변동된다. 하지만 지표 관리 절차, 데이터

관리 및 공개 등 재정성과관리 업무 자체는 매우 정형화된 형태로 정착되어 있다. 미국의 재정성과관리체계에서 중요한 것은, 개별 건별 사업의 성과관리 결과를 국정과제 관리와 연계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이다. 국정과제는 연방정부 전략목표, 프로그램 목표 등으로 하향식으로 구체화되지만, 최하단부의 건별 사업 성과관리는 상향식으로 취합된다. 그 중간 지점에서 이를 매개하는 것이 재정성과관리라고 할 수 있다. performance.gov의 재정성과정보는 그 구체화된 국정과제를 프로그램 단위의 취합 정보로 결합해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II-3〉 performance.gov 정보공개 예시

Agency Code	Agency Name	Str	SG Rpt ID	SG Nm	SG Statement	SO Rpt ID	SO Nm	Obj Statement
005	Department of Agriculture	18	005SG18001	01	Ensure USDA programs are delivered efficiently, effectively, and with integrity and a focus on customer service.	005SO18001	1.1	Modernize information technology infrastructure, facilities and support services to improve the customer experience.
005	Department of Agriculture	18	005SG18001	01	Ensure USDA programs are delivered efficiently, effectively, and with integrity and a focus on customer service.	005SO18002	1.2	Maintain a high performing workforce through employee engagement and empowerment.
005	Department of Agriculture	18	005SG18001	01	Ensure USDA programs are delivered efficiently, effectively, and with integrity and a focus on customer service.	005SO18003	1.3	Reduce the regulatory burden and streamline processes.
005	Department of Agriculture	18	005SG18001	01	Ensure USDA programs are delivered efficiently, effectively, and with integrity and a focus on customer service.	005SO18004	1.4	Improve stewardship of resources and utilize data-driven analyses to maximize the return on investment.
005	Department of Agriculture	18	005SG18002	02	Maximize the ability of American agricultural producers to prosper by feeding and clothing the world.	005SO18005	2.1	Provide an effective financial safety net for farmers and ranchers to sustain economically viable agricultural production and support rural jobs and

performance.gov 부처별 전략목표 현황 시트

APG Date	Agency C	Start	APG Rpt ID	APG Title	APG Statement
Chng	Code	YY	APG Rpt ID	APG Title	APG Statement
2018-02-12-005	Department of Agriculture	18	005APG18001	Improve the Customer Experience at USDA	USDA will effectively deliver farm and conservation programs to America's farmers, ranchers and foresters, ultimately increasing their ability to prosper and grow. By September 2019, the Department will enhance the customer experience for farmers, ranchers, and foresters at USDA service centers as well as improve and expand service delivery channels by establishing an effective framework to serve customers in-person and online.
2018-02-12-005	Department of Agriculture	18	005APG18002	Modernize USDA's Information Technology	Modernize information technology and data analytics capabilities across the Department, resulting in a USDA that is customer-focused, evidence-based, and efficient in the use of American taxpayer's dollars. By September 30, 2019, provide all USDA leadership with one click access to key administrative data allowing the Department to make informed and data driven decisions.
2018-02-12-006	Department of Commerce	18	006APG18003	Accelerate Patent Processing	By September 30, 2019, the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will reduce patent pendency to less than 15 months for first action pendency and less than 24 months for total pendency from end of fiscal year 2017 results of 16.3 months and 24.2 months, respectively.
2018-02-12-006	Department of Commerce	18	006APG18004	Mitigate Flood Impacts	By September 30, 2019, NOAA National Weather Service will improve decision support services by demonstrating a new flood inundation mapping capability serving 25 million people (i.e., 8 percent of the U.S. continental population) residing in flood-vulnerable freshwater basins and delivering an enhanced excessive rainfall outlook product that extends the lead time of high risk predictions from two to three days.

performance.gov 부처별 우선순위 목표 현황 시트

자료: performance.gov(최종검색일: '24.4.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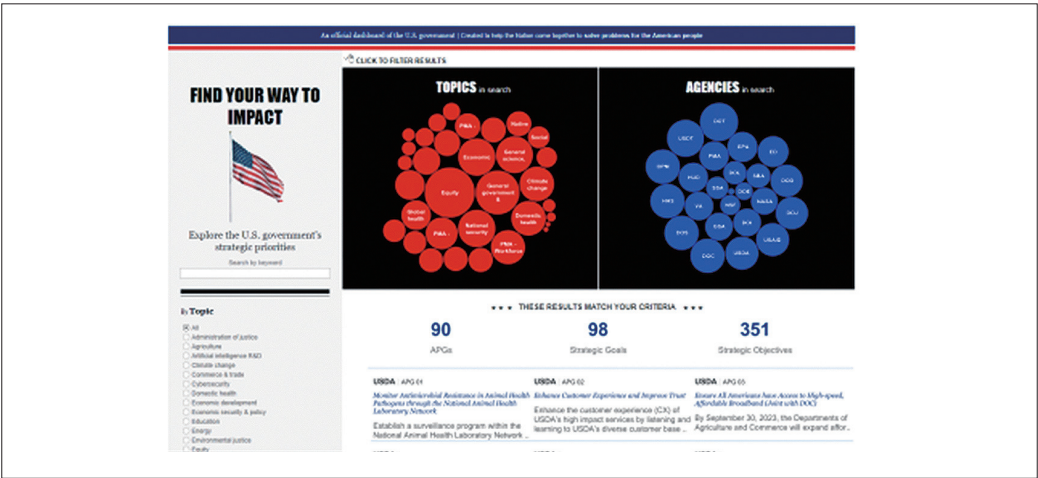
performance.gov는 재정성과관리를 기본적으로 국정과제와 연결시키기 때문에 각 정권별로 리뉴얼되어 제공되는 정보의 편차가 큰 편이다. 오바마 정부에서는 정부성과결과법 현대화법에 따라 다부처 정책목표, 부처 우선순위목표를 보여주는 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재정사업 특히 프로그램 정보를 전달하는 데도 노력했다. 성

과관리 대시보드는 폐지된 대신 연방 인프라스트럭처 프로젝트에 대한 대시보드를 신규 개설해 국정과제 사업을 지역별로 보여주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 역시 다부처 정책목표와 부처 우선순위목표를 보여주는 것은 공통이었지만, 다부처 정책 영역에서 데이터 수집 및 공개를 하기 위한 노력이 추가되었고 국정과제를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한 기능이 대거 강화되었다.

가장 최근의 변화 역시 시각화 등에 역점을 두고 있다. 2020년 일부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보여주던 것이 2024년 현재 모든 토픽, 모든 목표에 대해 시각화를 제공하는 것으로 변화한 것이다. 2024년 현재 바이든 정부의 performance.gov는 트럼프 행정부의 3개 부처(중소기업청, 조달청, 원자력규제위원회) 행정데이터를 시범적으로 보여준 것을 확장해 98개 사회지표(social indicator)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개편하고, 다운로드 가능한 데이터를 확대했다.³⁾

각종 목표와 지표의 시각화도 크게 확대되었다. 목표는 부처별, 각 목표, 주제(Topic)별로 필터 및 버블 시각화 기능을 제공한다.

〈그림 II-4〉 performance.gov의 버블차트 시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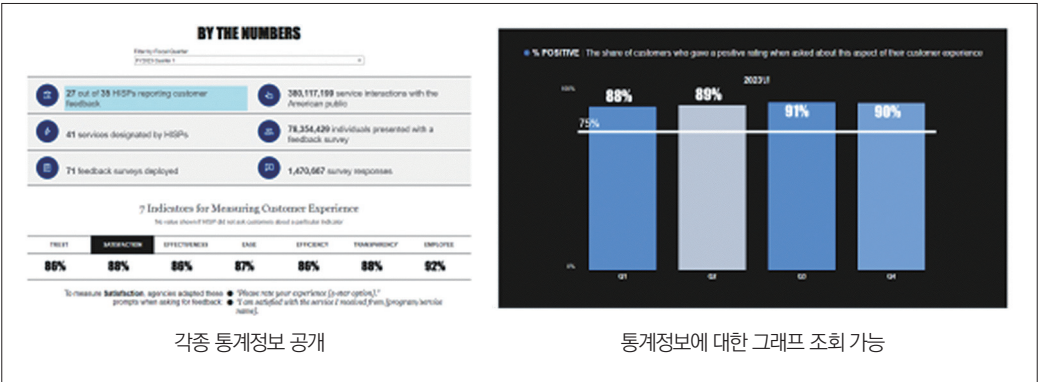


자료: performance.gov(최종검색일: '24.4.24.)

3) 전 정부에서는 PDF 방식의 다운로드 방식이 주였다.

다부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시보드로 시각화해서 제공한다. 소비자 만족도 점수는 분기별로 조사, 공개하고 있었다. 단, 현재 부처별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림 II-5〉 performance.gov 자체 DB 항목 시각화



자료: performance.gov(최종검색일: '24.4.24.)

부처별 성과정보는 여전히 별도 시각화는 존재하지 않고, 보고서 형태로만 존재하고 있었다. 과거에는 성과계획과 성과보고가 별도 보고서였으나, 2024회계연도부터는 성과보고서와 계획서가 통합되었다. 아래 그림 예시는 농무부 2024 성과계획/2022 성과보고서이다.

〈그림 II-6〉 농무부 2024 성과계획서와 2022 성과보고서 예시



목표체계

Strategic Goal 2: Ensure America's Agricultural System is Equitable, Resilient, and Prosperous

Objective 2.1 Protect Plant and Animal Health by Minimizing Major Diseases, Pests, and Wildlife Conflicts

Agency Priority Goal Monitor Antimicrobial Resistance in Animal Health Pathogens through the National Animal Health Laboratory Network

Establish a surveillance program within the National Animal Health Laboratory Network to monitor antimicrobial resistance (AMR) profiles in animal pathogen to enhance the Nation's early detection of, response to, and recovery from animal health emergencies. By September 2023, USDA will establish a long-term AMR surveillance program with at least 30 laboratories participating annually.

Objective 2.2 Build Resilient Food Systems, Infrastructure, and Supply Chain

Objective 2.3 Foster Agricultural Innovation

성과지표

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SERVICE (NRCS)

Cropland with Applied Soil Health Management System Practices (Thousand Acres)

	FY 2017	FY 2018	FY 2019	FY 2020	FY 2021	FY 2022	FY 2023	FY 2024
Target	---	---	---	---	225	225	225	225
Actual	---	---	---	---	313	294	N/A	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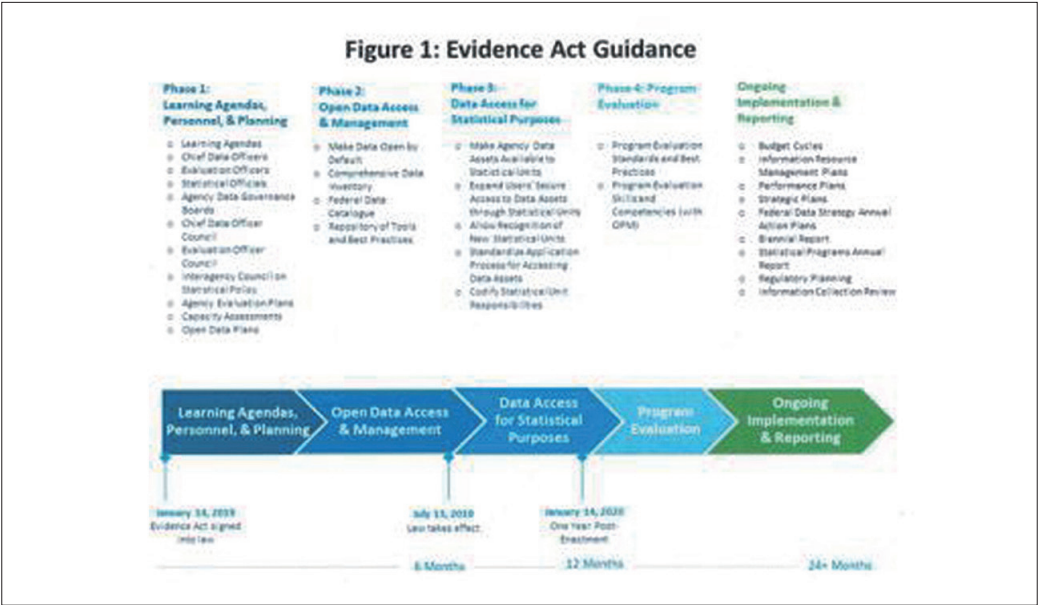
자료: performance.gov(최종검색일: '24.4.24.)

3) 평가정보 공개포털 evaluation.gov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평가정보 공개포털 evaluation.gov이다. 증거법 자체는 부처의 프로그램 목표 달성을 위한 자원 배분 문제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데이터, 통계 작성, 활용, 관리 방식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지만, OPEN Data Act를 2절로 두고 있는 만큼 이들 정보의 공개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또한 이를 위해 각종 데이터 인프라 투자를 증진해 정보의 질, 접근성, 보호 등도 증진하고자 하는 등 복합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 1단계 정책목표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아젠다 세팅, 법률에 명시된 최고데이터관리관, 평가담당관, 통계관리자 등 인사 임명, 중기 평가계획 작성 등이며, 이들을 한 곳에서 공개할 수 있도록 evaluation.gov를 2021년 8월 개통했다. 당초 evaluation.gov 구축 목표는 2023년도의 학습아젠다, 평가 계획, 역량평가 등을 업로드 완료하는 것이었으며, 2022년 3월 대통령 예산안의 의회 제출과 함께 이들 계획을 업로드함으로써 evaluation.gov의 1단계 구축이

완료되었다. 이와 함께 2023년은 증거법에 의한 각종 평가 및 의사결정 지원이 대통령 국정과제로 채택되었으며, 2024년에는 2023년 증거법 집행 결과의 국정과제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그리고 개별 평가 단위에서 보면, 외부로 계약 형태로 맺는 평가 사업, 자문 사업 등 또한 표준화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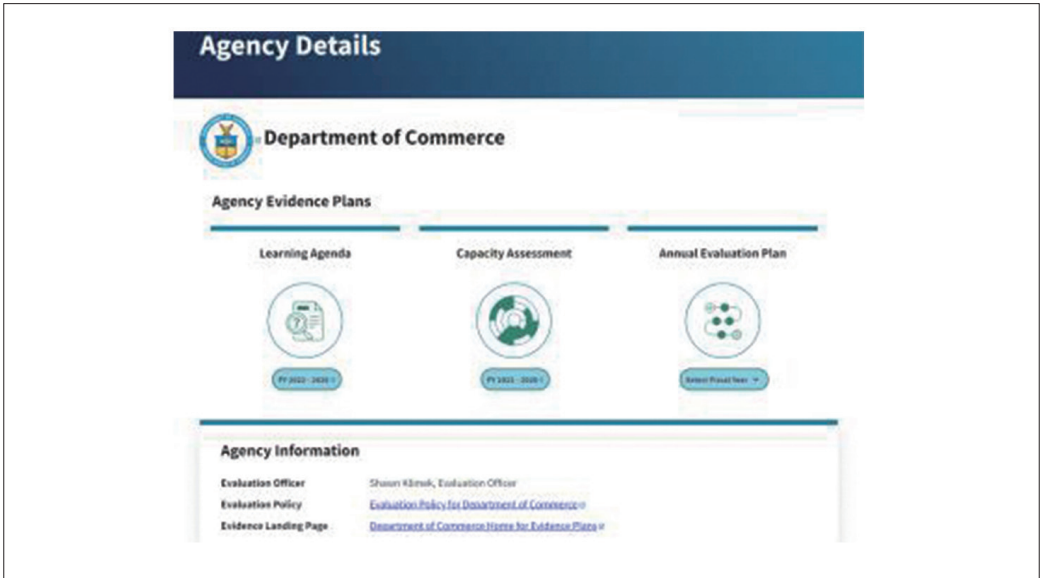
〈그림 II-7〉 Evidence Act와 evaluation.gov 구축계획



출처: OMB 2019. Phase I Implementation of the Foundations for Evidence-Based Policymaking Act of 2018: Learning Agendas, Personnel, and Planning Guidance

evaluation.gov를 통해 공개되는 정보는 크게 연간, 중기, 평가 정책 등으로 구분된다. 연간 단위의 정보는 학습 아젠다(learning agendas), 역량평가(capacity assessments)이며, 4개년 단위의 중기 평가계획(annual evaluations plans)이다. 그리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관리예산처 발간 5개년 단위 범정부 프로그램 평가 표준, 이를 기초로 한 각 부처의 평가 정책 등이 함께 제시된다. 분류의 기초는 각 부처별 평가 정보 게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림 II-8〉 evaluation.gov의 부처별 정보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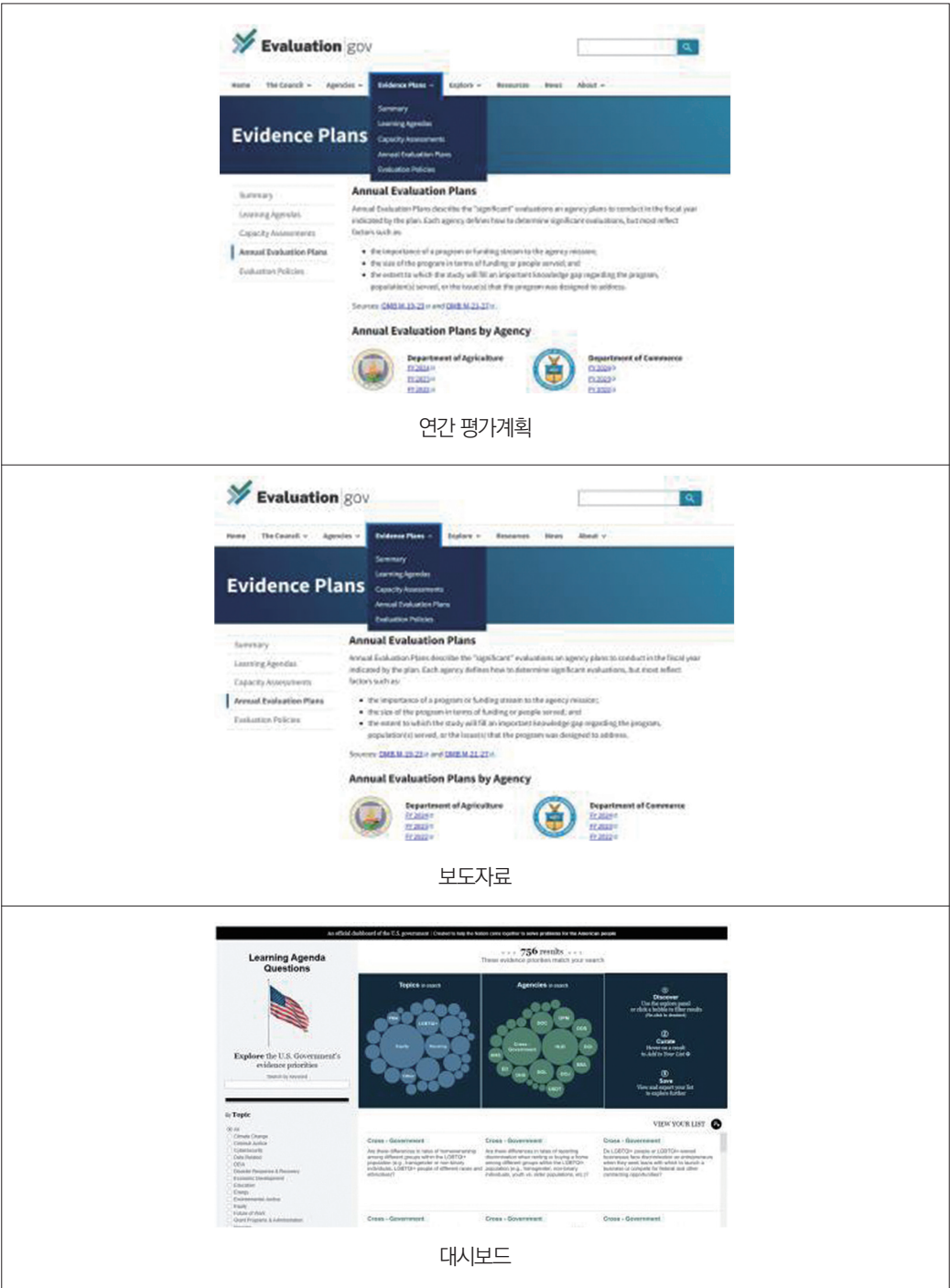
자료: evaluation.gov(최종검색일: '24.4.24.)

평가 정보는 텍스트 형태의 자료 제공을 기본으로 한다. 각 부처의 전체 평가 학습 아젠다, 역량평가, 연간 평가계획, 평가 정책을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모든 자료를 evaluation.gov에 업로드하는 것은 아니며, 부처별 자료의 경우는 해당 부처의 홈페이지로 리다이렉트되는 구조를 가진다.

evaluation.gov는 24개 최고재무관 관서(CFO Agencies)의 최고평가관리관회의(ICOP: Integrity Council on Evaluation Policy) 포털 사이트도 겸하기 때문에 위원회 임명 현황, 관련 보도자료, 행사 등도 모두 업로드된다. 즉 evaluation.gov는 각종 평가정보 조회처인 동시에 정부가 평가법에 따라 정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이트로 기능한다.

비록 데이터베이스 형태의 자료는 많지 않지만 버블차트 형태로 대시보드를 제공한다. 대시보드는 증거법에 따라 개별 관서가 지정한 각종 아젠다에 속성을 부여, 이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그림 II-9〉 evaluation.gov의 자료 제공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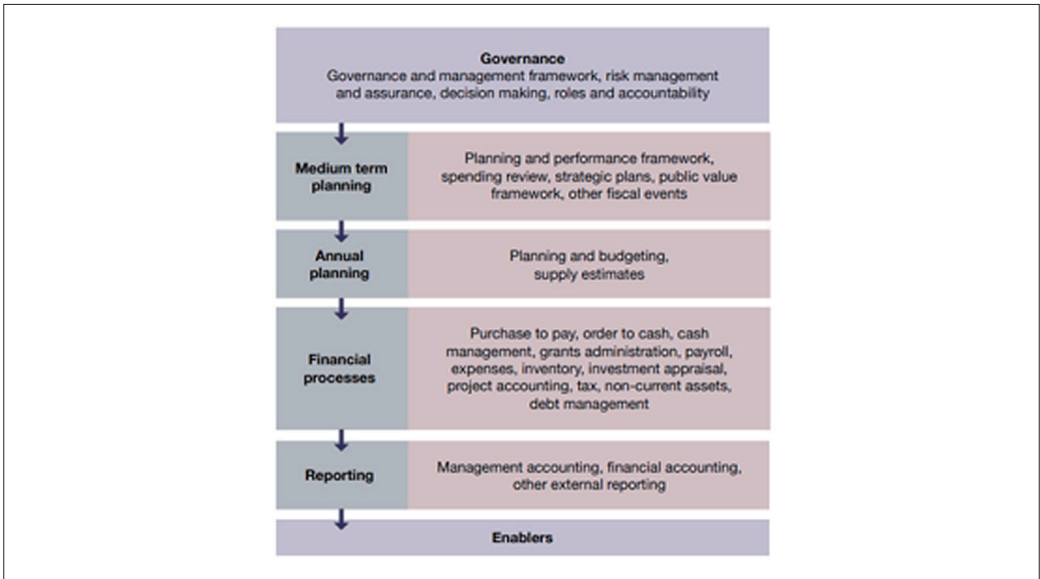


자료: evaluation.gov(최종검색일: '24.4.24.)

2. 영국

가. 제도 현황

〈그림 II-10〉 영국 재정관리 프레임워크



자료: uk.gov. Government Functional Standard 006: Finance

법제화를 통해 제도적, 공식적으로 정부 부문에 성과관리를 도입한 미국과 달리 영국의 재정성과관리는 내각의 구성에 따라 달라지는 특성을 보였다. 영국의 재정성과관리 제도는 정부성과결과법 제정 이전의 미국과 유사하다. 즉 행정부 차원에서 자원배분 능률성 제고를 위해 기획예산제도, 영기준 예산제도를 각각 1970년대, 1980년대에 운영한 것과 비슷하게, 영국 역시 1970년 히스 내각의 대평가를 통한 자원배분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검토 분석 도입(Program Analysis and Review), 1980~90년대 대처 내각의 재정관리(FMI: Financial Management Initiatives), 1990년대 말 블레어 정부의 공공서비스협약(PSA: Public Service Agreement) 등을 통해 편성 시점에 목표를 미리 설정하고, 이의 달성에 관한 정보를 자원배분

에 반영하는 재정성과관리를 정착시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FMI와 PSA는 더 이상 운영되고 있지 않지만, 1970년대에 도입된 프로그램 분석제도는 지출검토(Spending Review)라는 형태로 중기 예산편성의 사전 작업으로 정착되어 있다. 이와 같은 지난 내각들의 다기한 재정성과관리 도입 노력은 2020년 정부기능표준(Government Functional Standards) 제정으로 이어졌다. 정부기능표준은 기능일반, 사업집행, 인적자원, 자산, 디지털, 재정, 보안, 상무, 내부감사, 분석, 의사소통, 부정방지, 부채, 보조금 등 15개의 영역으로 구성된 일반지침이며, 이 중 재정성과관리와 평가는 6번 재정, 10번 분석 기능에 집중 서술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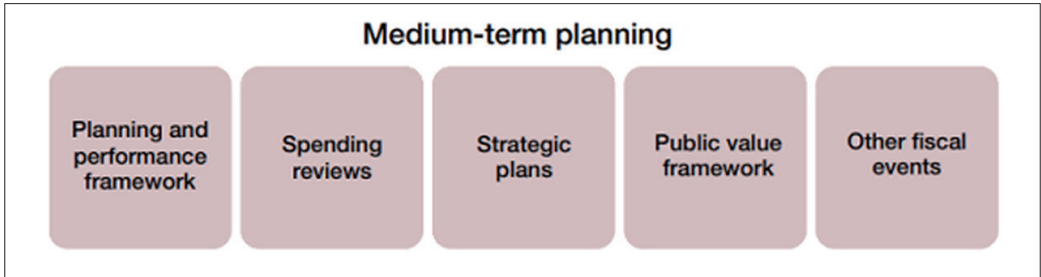
영국의 재정관리 프레임워크 속에서 재정성과관리는 중기재정계획의 일부로 이해되고 있다. 즉 정부기능표준에 의하면 성과관리, 성과 프레임워크, 지출검토 등은 모두 중기 계획의 틀 내에서 움직인다. 이는 중기계획(전략계획)이 성과관리에 포함되는 미국과는 반대이다.⁴⁾

영국의 재정관리 역시 국정과제(policy objectives)와 부처의 목표를 재정목표와 일치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재정관리와 재정성과관리는 중기계획을 매개로 연결된다. 중기계획의 주요 컴포넌트는 성과관리, 전략계획, 스펀딩리뷰 등이다. 중기계획은 우선순위(priority), 재정사업(activity), 집행관리(monitring)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를 의미한다. 지출검토(Spending Review)는 각 부처의 지출 결정을 위한 중기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영국의 각 부처는 스펀딩리뷰를 통해 각 부처의 전략목표, 중기 지출한도, 전략 계획, 전략 목표별 지표가 설정된다. 지출 한도는 재정에 대한 태도(확장 vs 감축), 재정준칙(fiscal rule)에 의해 결정된다. 성과지표(indicator)는 전략 계획(Strategic Plan)의 구성 요소이다. 지표는 회계연도 내에서 각 전략목표의 성과를 점검(monitor)하기 위한 용도로 구성된다. 중기계획과 전략계획, 목표와 지표가 모두 설정되어야 단년도 계획의 예산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4) 미국 관리예산처 예산편성및집행지침(Circular A-11)에서는 전략계획이 성과관리의 구성 요소로 서술되어 있다.

〈그림 II-11〉 영국의 중기계획과 성과관리



자료: uk.gov. Government Functional Standard 006: Fin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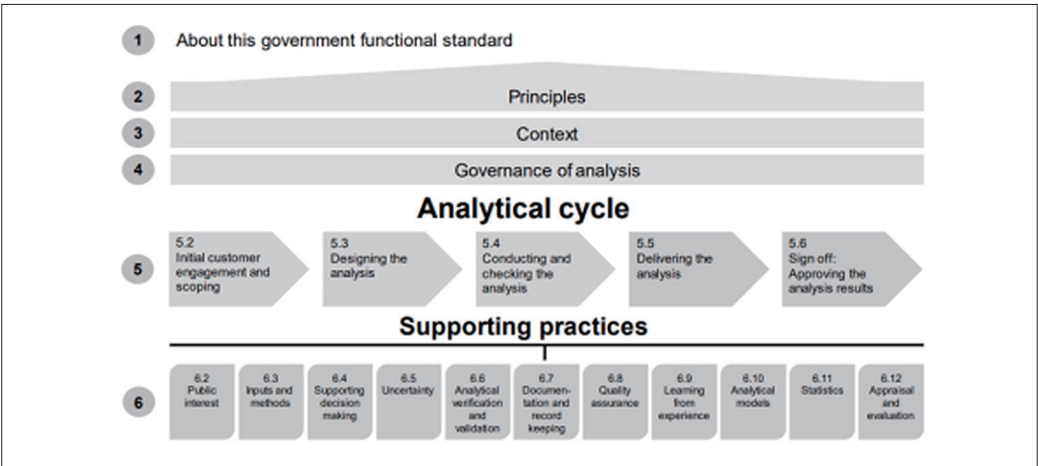
중기계획과 전략계획은 지출 한도, 소요액을 미리 산정하는 중요한 작업이기에 주요 정부 기능 표준인 분석(analysis)과도 긴밀하게 연결된다. 분석 기능은 의사결정지원 기능 외에 환류, 통계관리, 비용편익 평가(appraisal)와 심층평가(evaluation) 등을 포괄적으로 포괄하는 개념이다. 평가와 심층평가는 각각 이를 위한 지침서인 홍서와 녹서⁵⁾를 각각 2011년과 2013년 기출간한 상태에서 이를 차후 정부 표준 기능으로 분류한 것이다. 홍서는 사업 또는 정책에 대한 사후 평가, 즉 성과를 측정하고 분석하는 평가 매뉴얼에 해당한다. 홍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프로그램 논리모형(program logic model)은 미국의 성과관리가 설명하고 있는 그것과 같다. 홍서에서는 개별 사업의 지표관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는 않으나, 녹서의 경우 개별 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한 편익등록서식(benefits register)을 작성, 유지하고 평가에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편익등록서식은 사업의 약식 설명서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의 간단한 서술, 속성 등을 담고 있다.

정부 기능 표준 중 분석 기능은 포괄적으로는 정책, 사업의 전달과 운영, 개선을 지원하는 협력적 활동으로 정의된다. 분석은 단순한 정책 보고서상 정책 제안에서부터 대규모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의 의사결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적용되

5) HM Treasury(2013), The Green Book: Appraisal and Evaluation in Central Government; HM Treasury(2011) The Magenta Book: Central Government Guidance on Evaluation.

는 개념이다. 분석을 위한 사이클은 ROAMEF로, 문제 인식(Rationale), 목표 설정(Objectives), 사전평가(Appraisal), 점검(Monitoring), 사후 평가(Evaluation), 환류(Feedback) 등이다.

〈그림 II-12〉 영국 정부 기능 표준 중 분석 기능



자료: uk.gov. Government Functional Standard 004: Analysis

〈그림 II-13〉 사업등록 서식(Benefits resister template)

Benefit number	Unique within the register
Benefit category & class	Categories e.g. public sector benefits (direct/indirect), wider social benefits. Classes such as: cash/non cash releasing, quantitative/qualitative etc. (see Box 7)
Description	Including enabling programme, project or activity
Service feature	What aspect of the proposal will give rise to the benefit – to facilitate monitoring
Potential costs	Incurred during delivery
Activities required	To secure benefit
Responsible officer	Senior responsible officer for project or programme
Performance measure	Key performance indicators (KPIs) and relationship to SMART objectives
Target improvement	Expected level of change
Full-year value	Value of benefits (£m)
Timescale	Number of years

자료: HM Treasury. (2022). Green Book.

영국 재정성과관리의 근간이 되는 지출검토(Spending review)는 1997년 블레어 노동당 내각에서 재정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기실 지출검토제도 이전 영국 정부는 모든 부처에서 중기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었다. 지출검토제도가 도입, 운영되고 20여 년이 지나서야 영국 재정운용의 중기계획 중심 제도가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출검토의 대상이 되는 재정 범위는 총재정의 60%에 해당하는 재량지출이다. 즉 지출검토는 중기계획 수립 당시 향후 3여 년 시계의 각 부처의 재량지출 한도를 정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2024년 현재의 지출 한도는 2020년 수행된 스펀딩리뷰에서 규정된 수치(Settlement)를 기본으로 따르고 있다. 2020년 스펀딩리뷰 계획은 2024~2025년까지 설정되어 있다.

각 연도별 스펀딩리뷰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2010, 2015년도 리뷰는 각 부처의 프로그램/행정 비용별로 재량지출 한도를 설정했으며, 종합적인 재정사업(program)에 대한 평가로서 기능했다. 2015년도에는 재량지출을 제외한 연간관리지출(AME: Annually Managed Expenditure)의 복지지출 한도(Welfare Cap)를 최초로 설정했다. 복지지출 한도는 2014년도 예산에서 최초로 고려되었으며, 복지 분야 26개 지출 사업(2023년 현재 18개 프로그램으로 통합)을 대상으로 5년간 지출 규모를 추계하여 정부 규모 추계에 활용했다. 2020년도에는 재정사업(프로그램)별 지출 한도 폐지를 폐지하고 다부처기금(Shared Outcomes Fund)을 도입했다.

영국의 지출검토 중심의 중기재정계획 제도는, 지출 증가율을 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집행 후의 성과관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경시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Wheatley et al, 2018; 김영록, 2020). 즉 지출 총량의 관리가 공공 서비스의 품질 개선 등 실질적인 성과 제고로 연결되었는지는 모호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은 녹서, 홍서 등 정부의 재정사업 평가관리 노력은 보지 못하고 지출검토라는 총량 차원의 규제만을 바라보았을 때 생기는 착시로 보인다. 즉 지출검토제도 자체는 성과관리를 소홀히 할 수 있으니, 이를 보완해줄 수 있는 각종 성과관리와 평가 노력을 별도로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범부처에서 포괄적으로 수행하는 지출검토 과정과 부처에서 수행하는 각종 평

가(appraisal and evaluation)는 재무부의 평가지원기구, ETF(Evaluation Task Force)에서 만난다. ETF는 지출에 대한 검토와 평가를 종합적으로 수행, 지원하기 위해 내각사무처(Cabinet Office)와 재무부가 공동으로 설립한 기관이다. ETF는 본래 2020년 지출검토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지만 이후에도 각종 평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2024년 현재도 존속하고 있다. ETF 조직이 상설화되면서 바뀐 점이 하나 더 있다면, 그 이전에는 부처에서 재무부와 협의하거나 단독으로 각종 평가를 수행할 수 있었던 데 비해 2020년 이후에는 개별 부처에서 예산 성립 시점에서 사후 평가를 어떻게 수행할지에 대한 지침을 수립, 제출하도록 변경했다는 점이다. 즉 지출검토 자체가 가지는 성과관리 측면의 결함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 것이다. 그리고 기존에 각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하던 각종 외부 위탁 및 평가 컨설팅 사업을 일원화, 평가진흥을 위한 기금인 EAF(Evaluation Accelerator Fund)를 조성해 각 부처의 평가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정부의 전략적 사업관리 및 사업 성과 개선을 목표로 2020년 최초 조성되었으며, 최초 출범 후 16개 사업 영역에 대해 무작위 실험, 준실험 등을 통한 평가가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1,220만 파운드의 평가자금이 지원되어 2022년 평가가 완료되었다. 2024년에는 1,500만 파운드 규모로 확대되어 평가가 진행 중이다.

정부 기능 표준 중 분석(analysis)을 총괄하는 부서는 공무원청 분석국(Analysis Function, Civil Service)이다. 이 조직은 정부 부처의 평가 전문가 외에도 경제학자, 사회조사분석가 등 정부 평가 업무 종사자들의 네트워크로 기능한다. 정부 기능 표준이 정립되는 시점인 2018년 정부 각 부처의 분석을 지원하여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 조직은 명시적으로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곳은 아니지만, 정부가 수행하는 각종 평가 업무에 참가했던 경험을 공유하고, 데이터를 공유하는 일종의 커뮤니티 조직 기능을 수행한다. 이 조직은 정부 분석 기능 표준을 작성, 공시하고, 다부처 협업, 사례 개발 등 평가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평가 우수사례 포상, 커리어 패스 개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나. 성과정보 관리 및 공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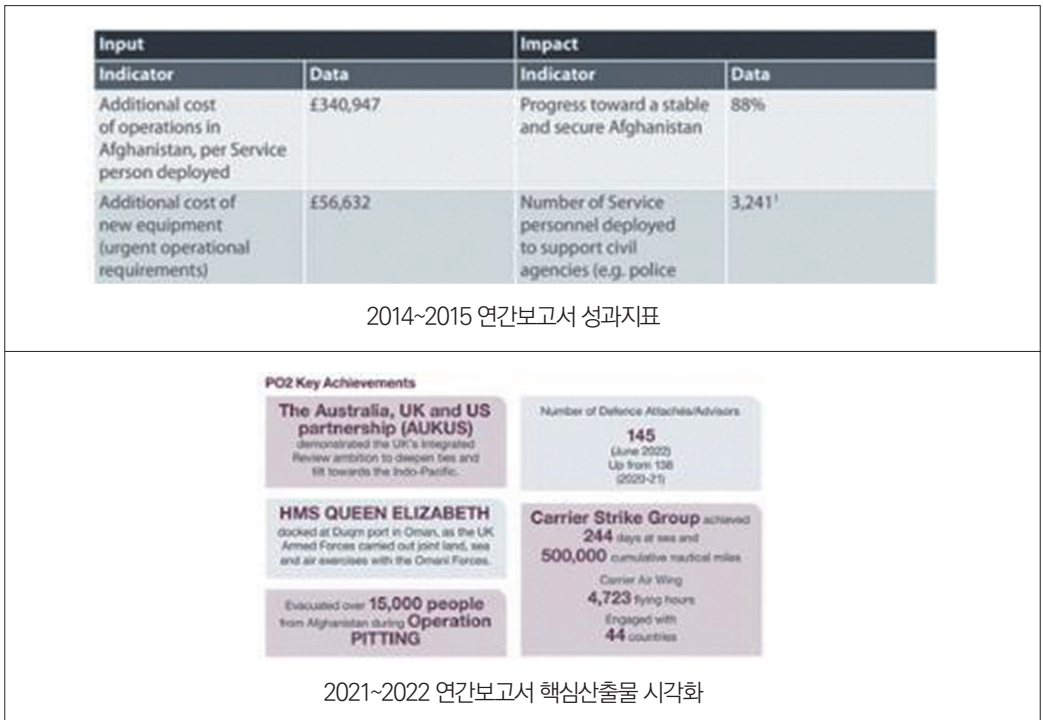
영국의 성과정보 공개는 보고서 형태의 공개와 웹사이트 기반의 성과지표 공개가 있다. 영국의 성과정보 공개는 재정정보 차원에서 한 곳에서 공개하는 형태는 아니고, 개별 부처별로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홈페이지를 만들어 공개하는 방식이다.

먼저 살펴볼 것은 보고서 형태의 공개 방식이다. 영국의 재정관리 체계에서 성과는 계획과 보고로 나뉘어 있지만, 현시점에서 개별 부처의 성과보고는 연간 보고서(Annual Report)로 통합되어 있다. PSA 개시 후 2002~2003회계연도까지는 연간 성과보고서가 별도 발행되었으나, 행정 업무 경감 개혁의 일환으로 2003~2004회계연도부터 통합되어 작성, 공개되고 있다.

개별 부처의 연간 보고서의 성과정보 공개 양식도 부처마다, 시기별로도 다른 편이다. 통계지표 또는 사업별 지표(statistical indicator/business indicator)로 지칭되던 성과지표는 대부분의 부처에서 2015~16회계연도부터 핵심 지표인 KPI로 대체되었다. 즉 이전에는 개별 사업별로 지표를 설정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행하는 재정성과관리의 방식으로 수행되었지만 2015~16회계연도부터 전략목표제를 전면 시행해 전 부처의 연간 보고서 양식이 크게 바뀌고, 나열식으로 제시되던 지표가 전략목표별로 핵심 지표 중심으로 제시되기 시작했다.

2021~2022회계연도부터는 한 차례 개선을 통해 보고서상 KPI를 서술하는 부처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국방부의 경우는 더 이상 지표를 서술하는 데 연간 보고서의 지면을 할애하지 않고 산출물 위주로 성과보고서를 간소하게 작성, 공개하고 있었다. 하지만 보고서상으로는 나타나지 않더라도 여전히 성과지표를 관리하고 있다. 성과지표를 관리하고, 보고서상으로도 서술, 공개하는 사례는 환경식품농림부(Defra)이다. Defra는 보고서 첨부 주석 형태로 17개의 환경 관련 지표의 현재 수준과 중기(2025년) 목표 등을 함께 공개하고 있었다. 연간 보고서 1편 성과보고서의 목차(개요, 성과분석, 재무분석)는 대부분의 부처에서 공통이었고, 보고서 본문에 성과지표 관련 내용은 없지만 첨부문서를 통해 여전히 지표가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II-14〉 보고서 성과지표 시각화의 변화: 국방부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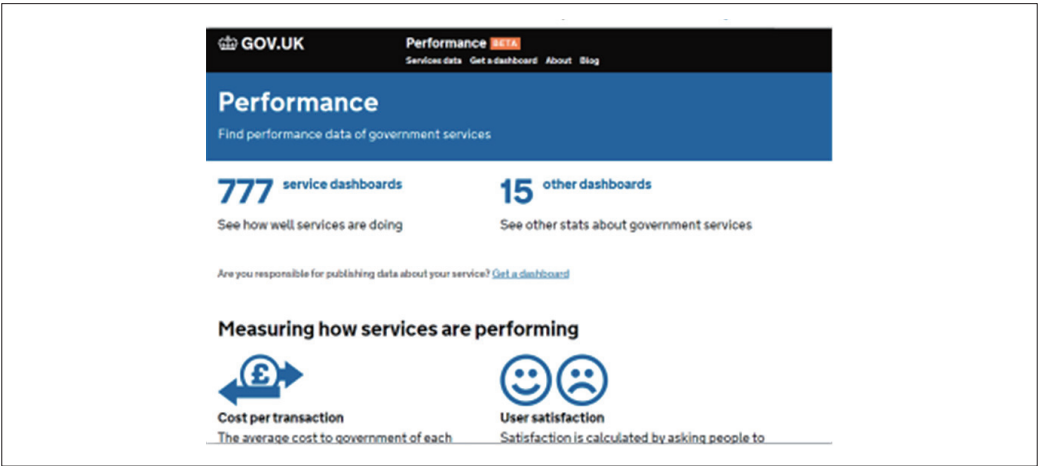


자료: UK Department of Defence Annual Report. 각연도

다음은 부처별 대시보드 공개이다. 전략목표제를 도입한 2016년보다 먼저 각 부처에서 성과정보를 대시보드로 공개하려는 노력이 있었고, 이 노력은 2014년 정부통합 성과정보 대시보드 uk.gov/performance 개통으로 이어졌다. 평가/성과 담당자의 업무 부담 경감, 공공데이터 개방 등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정부가 수행하는 거의 모든 재정사업의 성과지표를 모은 대시보드였다. 하지만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 잦은 오류, 성과지표의 사용 여부 확인 어려움 등으로 인해⁶⁾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2021년 기록보관소(Archives)로 이관되었다. 성과포털로 업로드되던 성과정보는 새로운 데이터포털 data.gov.uk로 이관되었다.

6) 가령 어떤 지표는 2016년 데이터 입력이 멈춰 있는가 하면 어느 지표는 홈페이지가 사용 중지된 2021년까지 지표가 업로드되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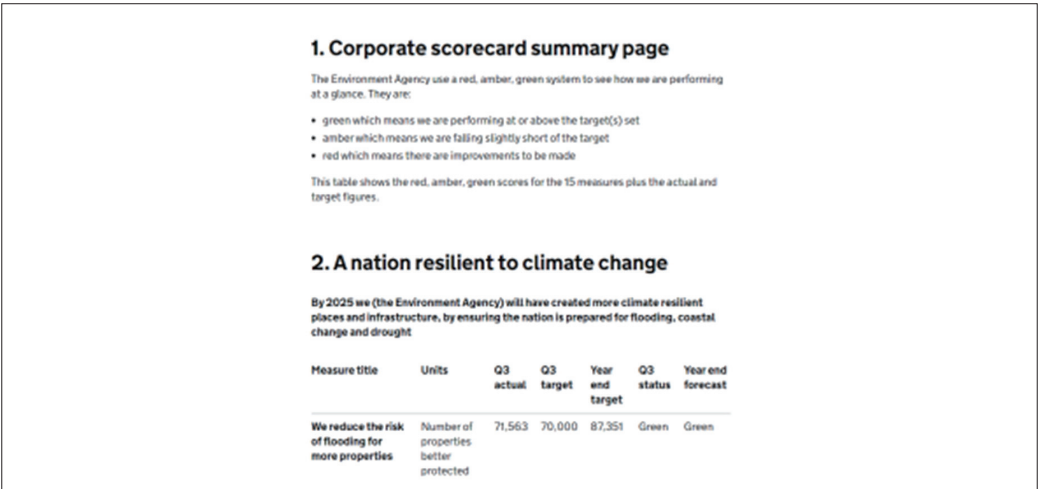
〈그림 II-15〉 2021년까지 운영된 성과정보 대시보드



자료: gov.uk/archives(최종검색일: '24.4.24.)

구 성과플랫폼 대시보드 gov.uk/performance가 2021년부로 종료됨에 따라 지표 달성을 등을 부처별로 보여주는 서비스는 현재 없는 상태이다. 현재 이관된 데이터는 통합 데이터 공개포털 data.gov에서 개별로 검색이 가능하다.

〈그림 II-16〉 영국 환경청(Environment Agency) 성과지표 Scorecard



자료: gov.uk(최종검색일: '24.4.24.)

gov.uk 내에서 각 부처별, 서비스별로 성과정보를 웹페이지 형태로 게시하고 있다. 형태는 부처별로 다른 편이다. 환경청은 모든 지표에 대해 분기별 점검제를 유지하는 스코어카드형 정보공개를 하고 있다. 반면 사회주택규제국은 단순히 전년도 성과지표 달성도를 올려놓는 수준이었다. 즉 성과정보의 홈페이지 정보공개 방식은 부처별로 다르다는 특징이 있다.

〈그림 II-17〉 사회주택규제국(Regulator of Social Housing) 성과정보 예시

Performance data				
Performance data against the regulator's standards of service for the 2022/23 financial year is set out below. The table includes data for 2021/22 for comparison purposes. We have assigned ratings to our service standards on the following basis:				
• 85% and over – Green • 70% to 84% – Amber • Below 70% – Red				
General enquiries	Cases	Achieved	Status	2021-22
Within 5 working days we will EITHER - send a final response; OR - send a holding response, stating that we will provide a response within 15 working days of receipt of the initial enquiry.	2,321	99%	Green	100%
NROSH+ enquiries	Cases	Achieved	Status	2021-22
Resolve all queries within 5 working days; if we are unable to resolve the query within this timeframe, we will contact the enquirer to inform them.	1,460	100%	Green	100%

자료: gov.uk(최종검색일: '24.4.24.)

3. 일본

가. 제도 현황

일본의 재정성과관리는 1990년대 말 경기침체로 인한 재정적자,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일본의 재정성과관리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장기간에 걸쳐 제도가 형성되었다는 특징을 보이는데, 여러 재정성과관리의 속성 중 가장 먼저 도입된 것은 바로 정책평가였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1). 여러 차례 시범사업을 거쳐 2001년 ‘행정기관이 실시하는 정책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현대 일본 재정성과관리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1990년대 6대 부문(경제, 재정, 행정, 금융, 사회보장, 교육)에 대한 개혁이 2000년대 초반 4대 구조개혁(금융, 세제, 규제, 세출)으로 정리되면서, 그간 누적된 부실채권을 처리하고 과잉 정부부채를 해소하기 위한 지출 구조조정이 당면 과제로 부상했다. 즉 인구 고령화에 따른 경비 증대,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세수 둔화, 국공채 확대에 따른 이자비용 증대 등 세입·세출구조가 경직화됨에 따라 비로소 세출의 영역을 구분하고 중장기적으로 이를 절감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기 시작한 것이 일본 재정성과관리의 배경이다. 이를 위해 2001년 중기재정제도가 도입되고, 2005년도 예산편성부터는 일반세출을 공공투자관계비, 의무적 경비와 재량적 경비로 구분해 공공투자관계비는 전년 대비 3%, 재량적 경비에 대해서는 2% 감소, 의무적 경비에 대해 자연 증가를 방지하지 않고 제도, 정책을 재검토, 수정해 세출 증가를 억제하고자 하는 지출구조조정이 본격화되었다.

바로 이 시기, 2005년 예산편성 기본 방침에서 최초로 정량적으로 달성 가능한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집행 과정과 사후 평가를 함께 실시하며,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사업 성격을 고려해 복수 연도에 걸친 탄력적인 사업 예산 활용을 허가하는 모델사업 제도가 시행되었다. 이때 모델사업 제도가 바로 사업별로 성과 목표 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가를 통해 세출을 조정하는 재정사업 성과

관리 제도의 시초라고 할 수 있다. 모델사업 제도는 산출지표 설정, 달성 기간과 수단, 방법을 명시하며, 3년 이내 연도별 달성 목표를 설정하고 국고채무부담행위, 명시이월 등 사업 집행 탄력화, 목 상호간 유용 등을 허용했으며, 집행 및 사후 검증을 실시하고자 했다.

모델사업 제도는 2007년까지 시행되었지만,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또 다시 정부부채 문제와 지출구조조정이 정책목표로 대두되면서 행정사업평가 및 정책평가조서 제도로 영구히 제도화되었다. 낭비, 불요불급 사업 근절을 위해 도입된 정책평가조서 제도는 ① 각 부처에서 홈페이지에서 예산 요구안과 정책평가 조서를 공개할 것, ② 재정사업을 구분할 것, ③ 정권 공약 추진 일정 중심으로 목표를 엄선해 정책달성 목표를 설정하는 정책달성 목표제도로 요약할 수 있다. 즉 그 이전에는 장관항 등 입법과목을 중심으로 재정을 구분하던 것을 더 세분화한 재정사업이라는 카테고리가 이 시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2010년부터 시행된 정책평가조서 및 행정사업 평가 제도는 재정사업을 중장기적으로 구분하고 목표를 설정, 평가를 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현대 일본 재정성과 관리의 틀을 정착시킨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행정사업평가 이전의 정책평가는 일종의 심층평가 성격이 강했다면, 이 시기부터는 각 부처에서 표준 보고서 서식에 따라 집행 상황을 공표하고 사업 결과를 예산 요구와 집행 개선에 반영하는 자율평가 형태로 정착되었다. 이후 2012년 평가조서 간략화, 2013년 행정사업평가에의 PDCA(Plan-Do-Check-Analysis) 사이클 도입, 사업평가 결과 표준화 등을 거쳐 이후 각 부처별 평가기본계획을 도입, 발표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일본의 재정성과관리는 다만 재정 분야가 별도로 분리, 독립해 있지 않고 총무성에서 규제, 인력 관리 등 재정 이외의 정책과 통합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정책평가 자체가 2001년 행정개혁으로 도입되면서 당시 일본의 정부 조직 역시 큰 폭으로 변화했고, 행정개혁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총무성에서 관장했기 때문이다. 예산을 관장하는 재무성 주계국은 전 부처에서 수행한 행정사업평가 결과, 심층평가의 예산 반영 현황을 정리, 예산에 반영하고, 의회에 제출하기 위한 각종 요약 자료, 발표자료를 작성해 차년도 예산안과 함께 발표한다.

나. 성과정보 관리 및 공개 현황

일본의 재정성과관리 정보의 관리와 공개는 크게 재무성과 총무성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재무성은 정책평가, 성과관리 등 각종 제도 시행의 직접적인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재정성과관리와 관련된 자료를 관리하지는 않고, 예산안 발표자료에 PPT 형식의 자료를 첨부, 제공하고 있다.

1) 재무성 홈페이지 재정성과정보 공개

예산안에 함께 제출되는 재정성과관리 자료는 주로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의 근거자료 성격을 가지고 있다. 첨부되는 자료는 편성에의 PDCA 사이클과 증거 활용, 행정사업 평가 결과, 정책평가의 반영 상황, 예산집행 조사 반영 등 4가지이다. 이들 자료는 예산안의 참고자료로 의회에 제출된다.

재무성에서 발표, 의회에 제출하는 각종 평가 결과의 첨부서류는 어떻게 예산에 반영하고 있는지 명시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가장 많은 사업이 대상이 되는 평가는 예산집행조사이다. 집행조사는 연간 30여 개의 중점 사업을 선정, 추진하며, 재무성 주계국(우리나라의 예산실) 사업 담당자가 직접 조사하거나 공동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재무성에서 조사하고 증액 및 감액 소요를 탐색, 그 결과를 조사표와 보고서로 공개한다. 행정사업리뷰는 약 5,000여 개 전수 예산투입사업에 대해 각 부처에서 공통서식(리뷰시트)을 가지고 작성하는 것이며, 정책평가는 각 부처에서 주요 사업에 대해 실시하는 평가로 연간 10~15건 정도가 평가되고, 그 결과를 재무성에서 취합해 예산에 반영한다. 행정사업리뷰 대상 사업 중 재무성에서 선정하는 3~4개의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가을 연차 공개검증을 실시해 예산 반영 내용을 공개, 의회에 첨부서류로 제출한다. 감사원 지적 등 외부 지적을 이들 평가 결과와 합쳐 PDCA 사이클 보고서, 즉 반영 현황에 대한 전반적 내용을 모두 보고하는 내용의 요약자료(PPT)도 함께 작성, 공개한다.

〈그림 II-18〉 일본 각종 정책평가의 예산 반영 사례 예산서 첨부서류

行政事業レビュー等の活用 □ E B P M (データに基づく政策立案) の平年の実施に際し、今年度から約5,000の予算事業について、E B P M の手法を取り入れた行政事業レビューシートを作成し、予算編成過程においてレビューシートを積極的に活用することにより、迅速に的確なE B P Mを導入。 ○ 各事業について、効果の増進と削減とを同時に検討・中間・長期的のアウトカム指標を設定し、検証に必要なデータ収集の仕組みをあらかじめ構築することにより、結果の上でよい事業については、原資削減を行った上で、事業の質向上を図ること。 ○ 行政の事務推進活動の下で進められる各事業の中間検証(効果レビュー)等における評価について、予算編成において活用し、予算案の質を向上。 ● 経済財政政策の基盤強化2022(19) 特に、本年の予算編成過程からE B P Mを導入した行政事業レビューシートを積極的に活用することで、全ての予算事業に共通し効果的なE B P Mを導入する。 令和5年度 効果レビュー(11/11, 12実施)の対象となった事業 1. 教育におけるデジタル技術の活用促進化 2. 国立研究開発法人科学技術振興機構(JST)運営費交付金に必要な経費(経路の編成・支援プログラム事業等) 3. 地域防災率移行・再エネ推進交付金 4. 介護におけるデジタル技術の活用促進化 ※ このほか今年度の効果レビューでは、コロナ対策などについて、毎時の政策を検証し、次の有事の際に活かすため、「持続化交付金」、「雇用調整助成金」についても議論を実施。	予算編成におけるPDCAサイクルの取組(ポイント) ◆ 国会の議決・決算検査報告等の反映 ▶ 決算に関する国会の議決については、審議の内容等を踏まえ、的確に反映。 (例) クラウド型議員の受入体制について、補充的保護対象者選定制度の定位置置プログラムにおいて、補充保護人の有無を問わない生活費支援などの支援を拡充して実施することとした。 【法律案】【反映額: 12億円】 ▶ 会計検査院の指摘については、個別の事業・事業ごとに必要性と効率性を洗い直し。 (例) 水田活用の直接支払交付金に係る対象水田について、実質的に水稲の作付けが困難な農地を交付対象から除外することで、削減見込み額を予算に適切に反映した。 【農林水産省】【反映額: ▲1億円】 ▶ 多額の不用が生じている事業等については、決算結果を踏まえ、個々の予算の内容等を厳正に見直し。 (例) 地域文化財総合活用推進事業(地域文化遺産・地域計画等)の執行状況を踏まえ、事業件数の見込みを精査すること等により、所要額の見直しを行った。 【文部科学省】【反映額: ▲1億円】
事業평가(レビュー) 활용의 요약	정책관리 PDCA사이클 요약
예산집행조사 반영 요약	정책평가의 반영 사례 요약

자료: 일본 재무성 홈페이지(mof.go.jp, 최종검색일: '24.5.15.)

다양하게 일본 정부에서 운영하는 정책평가 중 재무성에서 담당하는 것은 부처 정책평가와 행정사업 리뷰 요약 및 예산 반영, 리뷰 대상 사업의 공개검증, 예산집행조사라고 할 수 있다. 각 부처에서 시행하는 정책평가와 행정사업리뷰 등 재정사업 전체의 성과관리는 총무성 행정평가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정책평가 계획, 결과 등은 정책평가 포털 사이트(https://www.soumu.go.jp/main_sosiki/hyouka/seisaku_n)에서 공개하고 있다.

〈그림 II-19〉 일본 총무성 정책평가 포털 사이트

政策評価ポータルサイト

トップページ

政策評価制度

計画・反映状況等

評価書

政策評価委員会

[総論ページ](#)、[政策](#)、[過去の政策評価](#)、[お問い合わせ](#)、[お問い合わせフォーム](#)、各府省の「政策への反映状況」へのリンク

各府省の「政策への反映状況」へのリンク

※ リンクが切れている場合は、各府省のページから直接ご確認ください。

府省名	政策への反映状況	対応する評価結果
内閣府	経済財政改革の第一の取組に反映(※政策推進)(※政策評価)	全府省政策評価の2019年度の報告書(※2020年7月公表) 全府省政策評価の2019年度の政策評価(※2020年7月公表) 全府省政策評価の2019年度の政策評価(※2020年7月公表) 全府省政策評価の2019年度の政策評価(※2020年7月公表) 全府省政策評価の2019年度の政策評価(※2020年7月公表)
国土交通省	経済財政改革の第一の取組に反映(※政策推進)(※政策評価)	政策評価委員会報告書
公正取引委員会	全府省政策評価の2019年度の報告書の第一の取組に反映	全府省政策評価報告書 全府省政策評価報告書

자료: 일본 총무성 홈페이지(soumu.go.jp. 최종검색일: '24.5.15.)

메인 페이지에서는 평가제도 소개, 계획, 반영 내용, 평가서 등을 조회할 수 있는 버튼이 있으며, 각 부서청별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정책평가는 정책목표를 따라 사업을 분류해 보여준다. 이는 우리나라의 성과관리 목표체계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 예산체계와 재정성과관리체계가 일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예산 분류는 사업별로 별도로 분류하고, 이를 목표체계에 따라 묶는 사업분류체계는 연동되어 있지 않다.

〈그림 II-20〉 일본 재정사업 평가 목표체계(문부과학성)

[総論から見て、教育・協力の発展・連携・連携強化](#)、[教育協力のニーズをみたす](#)、[国際的学習](#)、[国際化から学ぶ国際連携](#)

[文部科学省 国際化推進（平成25年度版）](#)

文部科学省「国際化推進」をふまえて、30年度予算編成計画、教育基本法、学校教育法、コンピュータ教育に関する法律・関係法令の公布が完了済み。
 ①近代化事業として、平成25年度は17年度より、
 平成26年度以降は27年度より、コンピュータ教育推進事業
 ②国際化推進事業として、平成25年度はコンピュータ教育推進事業として、
 ③国際化推進事業として、平成25年度はコンピュータ教育推進事業として、
 ④国際化推進事業として、平成25年度はコンピュータ教育推進事業として、
 ⑤国際化推進事業として、平成25年度はコンピュータ教育推進事業として、

今後年度予算編成へのニーズ（国際化推進事業、国際化推進事業、国際化推進事業）
 平成26年度以降は国際化推進事業に関する予算が確保される。

※ シンクが提供している資料、[国際化推進事業（平成25年度）](#)、[国際化推進事業（平成26年度）](#)

자료: 일본 총무성 홈페이지(soumu.go.jp. 최종검색일: '24.5.15.)

각 부성청의 전략목표 최하위에서 개별 사업의 리뷰시트가 나타난다. 사업 리뷰는 공통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개별 사업에 대해 최근 5년의 실적치를 포함하는 재정사업의 성과목표치가 나타나게 된다. 일본은 이들 리뷰시트의 점수까지는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업 내용과 개략적인 평가 결과는 HTML로 공개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평가의 예산 제외 사업 환류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II-21〉 일본 정책평가리뷰 성과지표 사전조사서

令和元年度実施施策に係る事前分析表

(文部1-1-1)

施策名	教育分野に関する客観的根拠に基づく政策立案の推進				部局名	総合教育政策局調査企画課	作成責任者	岸本智哉 課長		
施策の概要	政策立案の際の基礎的なデータを提供するための教育統計調査を毎年実施するとともに、社会の要請に対応した教育改革の実現に向けたエビデンスの収集・開発に資する調査研究等を実施し、教育分野における客観的な根拠を重視した政策立案を推進するための基盤形成を行う。									
施策の予算額・執行額 (百万円)	平成30年度		令和元年度		施策に関する内部の 重要施策(主なもの)		『経済財政運営と改革の基本方針2019』『第3期教育振興基本計画』『全体的統計の整備に関する基本的な計画』			
	4,987,849		5,073,693				政策評価 実施予定時期			
達成目標1	政策立案に活用される基礎的なデータを提供する教育統計調査等を毎年確実に実施する。				目標設定の 考え方・根拠	教育分野における客観的な根拠に基づく政策立案を毎年実施することに加え、その結果を活用した政策立案が行われることが重要である。				
測定指標	基準値	実績値					目標値	測定指標の測定理由及び目標値(基準・目標年度)の設定の根拠		
	H21年度	H26年度	H27年度	H28年度	H29年度	H30年度	H31年度	【測定指標及び目標値の設定根拠】 統計調査という施策の性格を踏まえ、得られた調査結果の教育行政施策の企画・立案等への活用が進んでいることを確認するため、 【指標の根拠】文部科学省調べ 【改革工程表2018 KPI】		
①調査票情報の二次的利用及び提供の件数(件) 【改革工程表2018 KPI】	227	334	338	325	299	256	340	【測定指標及び目標値の設定根拠】 統計調査という施策の性格を踏まえ、得られた調査結果の教育行政施策の企画・立案等への活用が進んでいることを確認するため、 【指標の根拠】文部科学省調べ 【改革工程表2018 KPI】		
測定指標	基準値	実績値					目標値	測定指標の測定理由及び目標値(基準・目標年度)の設定の根拠		
	H29年度	H26年度	H27年度	H28年度	H29年度	H30年度	H31年度	【測定指標及び目標値の設定根拠】 教育施策の改善・充実に活かすという全国学力・学習状況調査の目的に鑑み、得られた調査結果の教育行政施策の企画・立案等への活用が進んでいることを確認するため、 【指標の根拠】文部科学省調べ 【改革工程表2018 KPI】		
②全国・学力学習状況調査に関するデータの研究者等への貸与件数(件) 【改革工程表2018 KPI】	7	—	—	—	7	16	21 (H29年度比3倍増)	【測定指標及び目標値の設定根拠】 教育施策の改善・充実に活かすという全国学力・学習状況調査の目的に鑑み、得られた調査結果の教育行政施策の企画・立案等への活用が進んでいることを確認するため、 【指標の根拠】文部科学省調べ 【改革工程表2018 KPI】		
測定指標	基準値	実績値					目標値	測定指標の測定理由及び目標値(基準・目標年度)の設定の根拠		
	H19年度	H26年度	H27年度	H28年度	H29年度	H30年度	毎年度	【測定指標及び目標値の設定根拠】 不断の教育改善が必要であるため、なお、全国学力・学習状況調査を指標としたのは、その根拠や内容から見て、我が国の児童生徒の学力の状況を把握するに資した調査と考えられるため、 【指標の根拠】 分母：全国学力・学習状況調査を実施した学校数 分子：全国学力・学習状況調査の結果を分析し、具体的な教育指導の改善に活用した学校について、「よく行った」「行った」と回答した学校数		
③全国学力・学習状況調査の結果を分析し、具体的な教育指導の改善に活用した学校(国・公・私立)の割合(よく行った、行ったと回答した率)	小：77.2% 中：76.1%	96.6%	96.7%	96.4%	97.4%	97.1%	100%	【測定指標及び目標値の設定根拠】 不断の教育改善が必要であるため、なお、全国学力・学習状況調査を指標としたのは、その根拠や内容から見て、我が国の児童生徒の学力の状況を把握するに資した調査と考えられるため、 【指標の根拠】 分母：全国学力・学習状況調査を実施した学校数 分子：全国学力・学習状況調査の結果を分析し、具体的な教育指導の改善に活用した学校について、「よく行った」「行った」と回答した学校数		
測定指標	基準値	実績値					目標値	測定指標の測定理由及び目標値(基準・目標年度)の設定の根拠		
	H29年度	H26年度	H27年度	H28年度	H29年度	H30年度	H31年度	【測定指標及び目標値の設定根拠】 統計調査という施策の性格を踏まえ、得られた調査結果の教育行政施策の企画・立案等への活用が進んでいることを確認するため、 【指標の根拠】文部科学省調べ 【改革工程表2018 KPI】		
④調査票情報の二次的利用及び提供の件数(件) 【改革工程表2018 KPI】	227	334	338	325	299	256	340	【測定指標及び目標値の設定根拠】 統計調査という施策の性格を踏まえ、得られた調査結果の教育行政施策の企画・立案等への活用が進んでいることを確認するため、 【指標の根拠】文部科学省調べ 【改革工程表2018 KPI】		
測定指標	基準値	実績値					目標値	測定指標の測定理由及び目標値(基準・目標年度)の設定の根拠		
	H29年度	H26年度	H27年度	H28年度	H29年度	H30年度	H31年度	【測定指標及び目標値の設定根拠】 教育施策の改善・充実に活かすという全国学力・学習状況調査の目的に鑑み、得られた調査結果の教育行政施策の企画・立案等への活用が進んでいることを確認するため、 【指標の根拠】文部科学省調べ 【改革工程表2018 KPI】		
⑤調査票情報の二次的利用及び提供の件数(件) 【改革工程表2018 KPI】	227	334	338	325	299	256	340	【測定指標及び目標値の設定根拠】 統計調査という施策の性格を踏まえ、得られた調査結果の教育行政施策の企画・立案等への活用が進んでいることを確認するため、 【指標の根拠】文部科学省調べ 【改革工程表2018 KPI】		
測定指標	基準値	実績値					目標値	測定指標の測定理由及び目標値(基準・目標年度)の設定の根拠		
	H29年度	H26年度	H27年度	H28年度	H29年度	H30年度	H31年度	【測定指標及び目標値の設定根拠】 教育施策の改善・充実に活かすという全国学力・学習状況調査の目的に鑑み、得られた調査結果の教育行政施策の企画・立案等への活用が進んでいることを確認するため、 【指標の根拠】文部科学省調べ 【改革工程表2018 KPI】		
⑥調査票情報の二次的利用及び提供の件数(件) 【改革工程表2018 KPI】	227	334	338	325	299	256	340	【測定指標及び目標値の設定根拠】 統計調査という施策の性格を踏まえ、得られた調査結果の教育行政施策の企画・立案等への活用が進んでいることを確認するため、 【指標の根拠】文部科学省調べ 【改革工程表2018 KPI】		
測定指標	基準値	実績値					目標値	測定指標の測定理由及び目標値(基準・目標年度)の設定の根拠		
	H29年度	H26年度	H27年度	H28年度	H29年度	H30年度	H31年度	【測定指標及び目標値の設定根拠】 教育施策の改善・充実に活かすという全国学力・学習状況調査の目的に鑑み、得られた調査結果の教育行政施策の企画・立案等への活用が進んでいることを確認するため、 【指標の根拠】文部科学省調べ 【改革工程表2018 KPI】		
⑦調査票情報の二次的利用及び提供の件数(件) 【改革工程表2018 KPI】	227	334	338	325	299	256	340	【測定指標及び目標値の設定根拠】 統計調査という施策の性格を踏まえ、得られた調査結果の教育行政施策の企画・立案等への活用が進んでいることを確認するため、 【指標の根拠】文部科学省調べ 【改革工程表2018 KPI】		
測定指標	基準値	実績値					目標値	測定指標の測定理由及び目標値(基準・目標年度)の設定の根拠		
	H29年度	H26年度	H27年度	H28年度	H29年度	H30年度	H31年度	【測定指標及び目標値の設定根拠】 教育施策の改善・充実に活かすという全国学力・学習状況調査の目的に鑑み、得られた調査結果の教育行政施策の企画・立案等への活用が進んでいることを確認するため、 【指標の根拠】文部科学省調べ 【改革工程表2018 KPI】		
⑧調査票情報の二次的利用及び提供の件数(件) 【改革工程表2018 KPI】	227	334	338	325	299	256	340	【測定指標及び目標値の設定根拠】 統計調査という施策の性格を踏まえ、得られた調査結果の教育行政施策の企画・立案等への活用が進んでいることを確認するため、 【指標の根拠】文部科学省調べ 【改革工程表2018 KPI】		
測定指標	基準値	実績値					目標値	測定指標の測定理由及び目標値(基準・目標年度)の設定の根拠		
	H29年度	H26年度	H27年度	H28年度	H29年度	H30年度	H31年度	【測定指標及び目標値の設定根拠】 教育施策の改善・充実に活かすという全国学力・学習状況調査の目的に鑑み、得られた調査結果の教育行政施策の企画・立案等への活用が進んでいることを確認するため、 【指標の根拠】文部科学省調べ 【改革工程表2018 KPI】		
⑨調査票情報の二次的利用及び提供の件数(件) 【改革工程表2018 KPI】	227	334	338	325	299	256	340	【測定指標及び目標値の設定根拠】 統計調査という施策の性格を踏まえ、得られた調査結果の教育行政施策の企画・立案等への活用が進んでいることを確認するため、 【指標の根拠】文部科学省調べ 【改革工程表2018 KPI】		
測定指標	基準値	実績値					目標値	測定指標の測定理由及び目標値(基準・目標年度)の設定の根拠		
	H29年度	H26年度	H27年度	H28年度	H29年度	H30年度	H31年度	【測定指標及び目標値の設定根拠】 教育施策の改善・充実に活かすという全国学力・学習状況調査の目的に鑑み、得られた調査結果の教育行政施策の企画・立案等への活用が進んでいることを確認するため、 【指標の根拠】文部科学省調べ 【改革工程表2018 KPI】		
⑩調査票情報の二次的利用及び提供の件数(件) 【改革工程表2018 KPI】	227	334	338	325	299	256	340	【測定指標及び目標値の設定根拠】 統計調査という施策の性格を踏まえ、得られた調査結果の教育行政施策の企画・立案等への活用が進んでいることを確認するため、 【指標の根拠】文部科学省調べ 【改革工程表2018 KPI】		
測定指標	基準値	実績値					目標値	測定指標の測定理由及び目標値(基準・目標年度)の設定の根拠		
	H29年度	H26年度	H27年度	H28年度	H29年度	H30年度	H31年度	【測定指標及び目標値の設定根拠】 教育施策の改善・充実に活かすという全国学力・学習状況調査の目的に鑑み、得られた調査結果の教育行政施策の企画・立案等への活用が進んでいることを確認するため、 【指標の根拠】文部科学省調べ 【改革工程表2018 KPI】		
⑪調査票情報の二次的利用及び提供の件数(件) 【改革工程表2018 KPI】	227	334	338	325	299	256	340	【測定指標及び目標値の設定根拠】 統計調査という施策の性格を踏まえ、得られた調査結果の教育行政施策の企画・立案等への活用が進んでいることを確認するため、 【指標の根拠】文部科学省調べ 【改革工程表2018 KPI】		
測定指標	基準値	実績値					目標値	測定指標の測定理由及び目標値(基準・目標年度)の設定の根拠		
	H29年度	H26年度	H27年度	H28年度	H29年度	H30年度	H31年度	【測定指標及び目標値の設定根拠】 教育施策の改善・充実に活かすという全国学力・学習状況調査の目的に鑑み、得られた調査結果の教育行政施策の企画・立案等への活用が進んでいることを確認するため、 【指標の根拠】文部科学省調べ 【改革工程表2018 KPI】		
⑫調査票情報の二次的利用及び提供の件数(件) 【改革工程表2018 KPI】	227	334	338	325	299	256	340	【測定指標及び目標値の設定根拠】 統計調査という施策の性格を踏まえ、得られた調査結果の教育行政施策の企画・立案等への活用が進んでいることを確認するため、 【指標の根拠】文部科学省調べ 【改革工程表2018 KPI】		
測定指標	基準値	実績値					目標値	測定指標の測定理由及び目標値(基準・目標年度)の設定の根拠		
	H29年度	H26年度	H27年度	H28年度	H29年度	H30年度	H31年度	【測定指標及び目標値の設定根拠】 教育施策の改善・充実に活かすという全国学力・学習状況調査の目的に鑑み、得られた調査結果の教育行政施策の企画・立案等への活用が進んでいることを確認するため、 【指標の根拠】文部科学省調べ 【改革工程表2018 KPI】		
⑬調査票情報の二次的利用及び提供の件数(件) 【改革工程表2018 KPI】	227	334	338	325	299	256	340	【測定指標及び目標値の設定根拠】 統計調査という施策の性格を踏まえ、得られた調査結果の教育行政施策の企画・立案等への活用が進んでいることを確認するため、 【指標の根拠】文部科学省調べ 【改革工程表2018 KPI】		
測定指標	基準値	実績値					目標値	測定指標の測定理由及び目標値(基準・目標年度)の設定の根拠		
	H29年度	H26年度	H27年度	H28年度	H29年度	H30年度	H31年度	【測定指標及び目標値の設定根拠】 教育施策の改善・充実に活かすという全国学力・学習状況調査の目的に鑑み、得られた調査結果の教育行政施策の企画・立案等への活用が進んでいることを確認するため、 【指標の根拠】文部科学省調べ 【改革工程表2018 KPI】		
⑭調査票情報の二次的利用及び提供の件数(件) 【改革工程表2018 KPI】	227	334	338	325	299	256	340	【測定指標及び目標値の設定根拠】 統計調査という施策の性格を踏まえ、得られた調査結果の教育行政施策の企画・立案等への活用が進んでいることを確認するため、 【指標の根拠】文部科学省調べ 【改革工程表2018 KPI】		
測定指標	基準値	実績値					目標値	測定指標の測定理由及び目標値(基準・目標年度)の設定の根拠		
	H29年度	H26年度	H27年度	H28年度	H29年度	H30年度	H31年度	【測定指標及び目標値の設定根拠】 教育施策の改善・充実に活かすという全国学力・学習状況調査の目的に鑑み、得られた調査結果の教育行政施策の企画・立案等への活用が進んでいることを確認するため、 【指標の根拠】文部科学省調べ 【改革工程表2018 KPI】		
⑮調査票情報の二次的利用及び提供の件数(件) 【改革工程表2018 KPI】	227	334	338	325	299	256	340	【測定指標及び目標値の設定根拠】 統計調査という施策の性格を踏まえ、得られた調査結果の教育行政施策の企画・立案等への活用が進んでいることを確認するため、 【指標の根拠】文部科学省調べ 【改革工程表2018 KPI】		
測定指標	基準値	実績値					目標値	測定指標の測定理由及び目標値(基準・目標年度)の設定の根拠		
	H29年度	H26年度	H27年度	H28年度	H29年度	H30年度	H31年度	【測定指標及び目標値の設定根拠】 教育施策の改善・充実に活かすという全国学力・学習状況調査の目的に鑑み、得られた調査結果の教育行政施策の企画・立案等への活用が進んでいることを確認するため、 【指標の根拠】文部科学省調べ 【改革工程表2018 KPI】		
⑯調査票情報の二次的利用及び提供の件数(件) 【改革工程表2018 KPI】	227	334	338	325	299	256	340	【測定指標及び目標値の設定根拠】 統計調査という施策の性格を踏まえ、得られた調査結果の教育行政施策の企画・立案等への活用が進んでいることを確認するため、 【指標の根拠】文部科学省調べ 【改革工程表2018 KPI】		
測定指標	基準値	実績値					目標値	測定指標の測定理由及び目標値(基準・目標年度)の設定の根拠		
	H29年度	H26年度	H27年度	H28年度	H29年度	H30年度	H31年度	【測定指標及び目標値の設定根拠】 教育施策の改善・充実に活かすという全国学力・学習状況調査の目的に鑑み、得られた調査結果の教育行政施策の企画・立案等への活用が進んでいることを確認するため、 【指標の根拠】文部科学省調べ 【改革工程表2018 KPI】		
⑰調査票情報の二次的利用及び提供の件数(件) 【改革工程表2018 KPI】	227	334	338	325	299	256	340	【測定指標及び目標値の設定根拠】 統計調査という施策の性格を踏まえ、得られた調査結果の教育行政施策の企画・立案等への活用が進んでいることを確認するため、 【指標の根拠】文部科学省調べ 【改革工程表2018 KPI】		
測定指標	基準値	実績値					目標値	測定指標の測定理由及び目標値(基準・目標年度)の設定の根拠		
	H29年度	H26年度	H27年度	H28年度	H29年度	H30年度	H31年度	【測定指標及び目標値の設定根拠】 教育施策の改善・充実に活かすという全国学力・学習状況調査の目的に鑑み、得られた調査結果の教育行政施策の企画・立案等への活用が進んでいることを確認するため、 【指標の根拠】文部科学省調べ 【改革工程表2018 KPI】		
⑱調査票情報の二次的利用及び提供の件数(件) 【改革工程表2018 KPI】	227	334	338	325	299	256	340	【測定指標及び目標値の設定根拠】 統計調査という施策の性格を踏まえ、得られた調査結果の教育行政施策の企画・立案等への活用が進んでいることを確認するため、 【指標の根拠】文部科学省調べ 【改革工程表2018 KPI】		
測定指標	基準値	実績値					目標値	測定指標の測定理由及び目標値(基準・目標年度)の設定の根拠		
	H29年度	H26年度	H27年度	H28年度	H29年度	H30年度	H31年度	【測定指標及び目標値の設定根拠】 教育施策の改善・充実に活かすという全国学力・学習状況調査の目的に鑑み、得られた調査結果の教育行政施策の企画・立案等への活用が進んでいることを確認するため、 【指標の根拠】文部科学省調べ 【改革工程表2018 KPI】		
⑲調査票情報の二次的利用及び提供の件数(件) 【改革工程表2018 KPI】	227	334	338	325	299	256	340	【測定指標及び目標値の設定根拠】 統計調査という施策の性格を踏まえ、得られた調査結果の教育行政施策の企画・立案等への活用が進んでいることを確認するため、 【指標の根拠】文部科学省調べ 【改革工程表2018 KPI】		
測定指標	基準値	実績値					目標値	測定指標の測定理由及び目標値(基準・目標年度)の設定の根拠		
	H29年度	H26年度	H27年度	H28年度	H29年度	H30年度	H31年度	【測定指標及び目標値の設定根拠】 教育施策の改善・充実に活かすという全国学力・学習状況調査の目的に鑑み、得られた調査結果の教育行政施策の企画・立案等への活用が進んでいることを確認するため、 【指標の根拠】文部科学省調べ 【改革工程表2018 KPI】		
⑳調査票情報の二次的利用及び提供の件数(件) 【改革工程表2018 KPI】	227	334	338	325	299	256	340	【測定指標及び目標値の設定根拠】 統計調査という施策の性格を踏まえ、得られた調査結果の教育行政施策の企画・立案等への活用が進んでいることを確認するため、 【指標の根拠】文部科学省調べ 【改革工程表2018 KPI】		
測定指標	基準値	実績値					目標値	測定指標の測定理由及び目標値(基準・目標年度)の設定の根拠		
	H29年度	H26年度	H27年度	H28年度	H29年度	H30年度	H31年度	【測定指標及び目標値の設定根拠】 教育施策の改善・充実に活かすという全国学力・学習状況調査の目的に鑑み、得られた調査結果の教育行政施策の企画・立案等への活用が進んでいることを確認するため、 【指標の根拠】文部科学省調べ 【改革工程表2018 KPI】		
㉑調査票情報の二次的利用及び提供の件数(件) 【改革工程表2018 KPI】	227	334	338	325	299	256	340	【測定指標及び目標値の設定根拠】 統計調査という施策の性格を踏まえ、得られた調査結果の教育行政施策の企画・立案等への活用が進んでいることを確認するため、 【指標の根拠】文部科学省調べ 【改革工程表2018 KPI】		
測定指標	基準値	実績値					目標値	測定指標の測定理由及び目標値(基準・目標年度)の設定の根拠		
	H29年度	H26年度	H27年度	H28年度	H29年度	H30年度	H31年度	【測定指標及び目標値の設定根拠】 教育施策の改善・充実に活かすという全国学力・学習状況調査の目的に鑑み、得られた調査結果の教育行政施策の企画・立案等への活用が進んでいることを確認するため、 【指標の根拠】文部科学省調べ 【改革工程表2018 KPI】		
㉒調査票情報の二次的利用及び提供の件数(件) 【改革工程表2018 KPI】	227	334	338	325	299	256	340	【測定指標及び目標値の設定根拠】 統計調査という施策の性格を踏まえ、得られた調査結果の教育行政施策の企画・立案等への活用が進んでいることを確認するため、 【指標の根拠】文部科学省調べ 【改革工程表2018 KPI】		
測定指標	基準値	実績値					目標値	測定指標の測定理由及び目標値(基準・目標年度)の設定の根拠		
	H29年度	H26年度	H27年度	H28年度	H29年度	H30年度	H31年度	【測定指標及び目標値の設定根拠】 教育施策の改善・充実に活かすという全国学力・学習状況調査の目的に鑑み、得られた調査結果の教育行政施策の企画・立案等への活用が進んでいることを確認するため、 【指標の根拠】文部科学省調べ 【改革工程表2018 KPI】		
㉓調査票情報の二次的利用及び提供の件数(件) 【改革工程表2018 KPI】	227	334	338	325	299	256	340	【測定指標及び目標値の設定根拠】 統計調査という施策の性格を踏まえ、得られた調査結果の教育行政施策の企画・立案等への活用が進んでいることを確認するため、 【指標の根拠】文部科学省調べ 【改革工程表2018 KPI】		
測定指標	基準値	実績値					目標値	測定指標の測定理由及び目標値(基準・目標年度)の設定の根拠		
	H29年度	H26年度	H27年度	H28年度	H29年度	H30年度	H31年度	【測定指標及び目標値の設定根拠】 教育施策の改善・充実に活かすという全国学力・学習状況調査の目的に鑑み、得られた調査結果の教育行政施策の企画・立案等への活用が進んでいることを確認するため、 【指標の根拠】文部科学省調べ 【改革工程表2018 KPI】		
㉔調査票情報の二次的利用及び提供の件数(件) 【改革工程表2018 KPI】	227	334	338	325	299	256	340	【測定指標及び目標値の設定根拠】 統計調査という施策の性格を踏まえ、得られた調査結果の教育行政施策の企画・立案等への活用が進んでいることを確認するため、 【指標の根拠】文部科学省調べ 【改革工程表2018 KPI】		
測定指標	基準値	実績値					目標値	測定指標の測定理由及び目標値(基準・目標年度)の設定の根拠		
	H29年度	H26年度	H27年度	H28年度	H29年度	H30年度	H31年度	【測定指標及び目標値の設定根拠】 教育施策の改善・充実に活かすという全国学力・学習状況調査の目的に鑑み、得られた調査結果の教育行政施策の企画・立案等への活用が進んでいることを確認するため、 【指標の根拠】文部科学省調べ 【改革工程表2018 KPI】		
㉕調査票情報の二次的利用及び提供の件数(件) 【改革工程表2018 KPI】	227	334	338	325	299	256	340	【測定指標及び目標値の設定根拠】 統計調査という施策の性格を踏まえ、得られた調査結果の教育行政施策の企画・立案等への活用が進んでいることを確認するため、 【指標の根拠】文部科学省調べ 【改革工程表2018 KPI】		
測定指標	基準値	実績値					目標値	測定指標の測定理由及び目標値(基準・目標年度)の設定の根拠		
	H29年度	H26年度	H27年度	H28年度	H29年度	H30年度	H31年度	【測定指標及び目標値の設定根拠】 教育施策の改善・充実に活かすという全国学力・学習状況調査の目的に鑑み、得られた調査結果の教育行政施策の企画・立案等への活用が進んでいることを確認するため、 【指標の根拠】文部科学省調べ 【改革工程表2018 KPI】		
㉖調査票情報の二次的利用及び提供の件数(件) 【改革工程表2018 KPI】	227	334	338	325	299	256	340	【測定指標及び目標値の設定根拠】 統計調査という施策の性格を踏まえ、得られた調査結果の教育行政施策の企画・立案等への活用が進んでいることを確認するため、 【指標の根拠】文部科学省調べ 【改革工程表2018 KPI】		
測定指標	基準値	実績値								

자료: 일본 총무성 홈페이지(soumu.go.jp, 최종검색일: '24.5.15.)

4. 시사점

이상에서 재정성과관리, 재정사업 성과관리와 관련한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3개국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재정성과관리는 국가 전체의 중기재정계획, 부처의 전략목표 체계와 그 하부의 사업(프로그램 또는 단위사업)의 목표 체계, 성과 달성을 위한 계획과 사후 보고활동 등을 의미한다. 그리고 재정사업 성과관리란 바로 이 재정성과관리의 최하단부, 재정을 분할하는 최소 단위인 재정사업의 목표 지표 설정에서 평가, 예산에의 환류에 이르는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재정성과관리와 재정사업 성과관리는 국가마다 제도 현황, 정보공개 등이 모두 달랐다. 미국과 같은 경우는 부처별 전략목표제와 성과관리제도는 1993년 법제화하고 오랜 시간 공식제도로 운영한 반면, 전 부처 중기재정계획을 부처 계획과 연계하는 제도는 영기준 예산, PPBS 등 상당히 오래전 시기를 제외하면 더 이상 운영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사업별 평가제도 역시 부시 행정부의 PART 제도 시기 이후에는 범정부 행정개혁 전략으로 채택한 적이 없고 다만 각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사업 평가, 프로그램 평가를 실시하되 그 공개도 부처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현대의 미국 재정성과관리 제도와 정보공개는 주로 대통령 국정과제와 부처의 성과목표체계를 일치시키는 데 방점을 두고 있으며, 범정부 정책평가를 위한 체계는 없는 대신 증거법(Evidence Act)을 채택해 각 부처의 정책 평가 및 결정에 있어서 연간 계획 및 역량 강화 등을 중점에 두고 재정사업 평가제도를 발전시키고 있다.

영국은 재정성과관리 제도를 공식적으로 입법 절차를 통해 구체화한 적은 없지만, 범정부 지출 전략인 지출검토(spending review)를 채택해 각 부처의 자율적인 전략체계, 성과지표 체계를 정부 전체의 지출 계획과 연동시키고 있는 특징이 있다. 각종 평가는 정부 기능 표준, 보조금 등 사업지침에 따라 각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공개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는 미국과 유사하다. 다만 개별 부처의 사업 평가에 대한 정보공개를 유도하는 미국과 다르게 사업별 평가 및 예산환류는 거의 전적으로 부처의 자율에 맡겨져 있으며, 성과관리와 관련된 각종 보고서도 단순화하는 추세이다.

일본의 경우는 비교대상 3개국은 물론 우리나라보다도 재정사업이라는 개념이 가장 늦게 정착된 사례에 해당한다. 평가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한다는 개념은 비교적 이른 시기인 2000년부터 존재했지만, 사업별로 지표를 구비하고, 사업별 평가를 전 부처 표준화해, 이 결과를 재정당국에서 최종 취합해 예산에 반영한다는 개념은 2005년부터 시범적으로 도입되어 2010년에야 완성되었다. 부처별 전략목표와 체계도는 존재하지만 이를 중앙재정의 중기재정계획과 연동한다는 개념이 없다는 점은 미국과 유사하지만,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예산에 반영한다는 점은 영국과 유사한 것이다. 평가체계는 부처 자율평가와 재정당국의 집행조사가 체계가 없이 혼재되어 있으며, 모든 정보는 공개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성과관리, 평가 결과 정보의 공개는 비교적 투명한 편이다.

이들 국가와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상당히 개성이 있고 뚜렷한 목적을 가진 재정성과관리 및 재정사업 성과관리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부처 전체의 중기재정계획을 취합해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는 점은 영국의 중기재정-성과관리 체계와 유사하며, 프로그램 단위의 성과계획서와 보고서 체계를 가지는 점은 미국과 유사하다. 거의 모든 재정사업에 대해 재정사업 성과목표제를 시행하고 개별 부처 단위의 사업평가제도가 정착한 점은 일본과 유사한 점이다. 즉 정부 업무 자체에 대해서는 비교대상 3개국의 제도를 비교적 고르게 흡수, 장점을 극대화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보공개 측면에서는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다고 할 수 있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재정사업 성과관리 계획이 있고 이를 한 곳에서 공개하는 포털을 운영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미흡한 수준이다. 미국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각 부처의 목표 체계를 도식적으로 한눈에 보여주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고,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 제도는 다기하게 갖추고 있지만 그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 공개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보니 우리나라의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은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정성과관리와 재정사업 성과관리 제도에서 생산되는 정보의 극히 일부만이 공개되고 있는 상황에 머물러 있다.

물론 재정성과관리와 재정사업 성과관리에 대한 부처의 자율성이 높은 영국의

사례도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정보공개가 미흡한 것이 큰 단점은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영국은 지출 검토제도가 상당히 강력하게 정착되어 있어, 개별 부처의 재정 성과 관리와 자율적인 재정사업 성과관리가 큰 효과를 보기 어려운 환경이다. 즉 사업별 지출구조조정은 개별 사업의 성과보다는 각 정권에서 수립한 목표와 아젠다가 우선이며, 성과목표제는 이 국정과제와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인상을 준다. 다시 말하면 지출구조조정의 목표가 내각과 재무부의 전략에 따라 결정되므로 그 성과에 대한 입증은 부처에서 오롯이 진다고 보기 어려운 구조이며, 개별 부처 역시 이를 성과관리의 측면에서 국민에게 알리려는 유인을 가지기 어렵다. 개별 부처에서 재정성과관리의 결과를 공개하는 수준도 천차만별이다.

물론 우리나라도 최고 국정과제 운영자와 재정당국의 힘이 강하다는 점은 영국과 유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재정성과관리와 재정사업 성과관리가 처한 환경 전체가 영국과 유사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사업별 평가제도가 활성화되어 있고, 이의 예산 반영 역시 상당히 정착해 있는 우리나라의 환경은 오히려 일본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프로그램별로 성과계획서와 보고서를 작성하는 환경도 미국에 가깝다. 우리나라는 비록 국정과제 운영자와 재정당국의 힘이 크다고는 하지만 이는 국정과제 관리와 재정 중점 운영의 영역에서 국한될 뿐, 「국가재정법」 제정 이후 국정과제 이외의 영역에서 부처의 자율성은 오히려 신장되고 있는 추세이다. 재정관리의 영역이 복잡해지고 각종 정보의 생산 역시 다양한 형태를 띠면서 발전하고 있다.

국정과제 이외의 영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재정성과관리 정보,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정보가 그렇다고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이들 재정사업은 대부분 다음 행정부의 국정과제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사업들이다. 즉 재정사업 성과정보가 현시점에서 비교가 가능한 형태로 관리되어야 그 정보를 2~3년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의 재정성과관리는 이와 같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성과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통 서식과 지표를 가지고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리고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각종 재정사업 평가 정보를 장기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중장기 평가운영계획과 역량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점이 크다.

우리나라도 비록 미국이나 일본의 제도를 본받을 필요는 없지만, 재정관리의 영역에서의 시사점은 크다고 할 수 있다. 정보를 표준화하고, 중장기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정보의 표준화는 영국에서도 정보공개 여부와 상관없이 각종 지침 정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생산되는 정보를 표준화하고 일부는 전산화, 관리하면서 점진적으로 공개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표 II-3〉 비교대상국가 재정성과관리 제도 및 정보공개 요약

			미국	영국	일본	한국
제도	근거법령		정부성과결과법	-	정책평가법	국가재정법
	중기계획 연관성		부처 계획 연동	범정부 계획 연동		
	성과지표관리		우선순위목표 다부처목표 부처 성과지표	부처별 전략지표	재정사업별 지표	전략 지표 재정사업 지표
	평가 체계	전략	성과계획/보고	지출검토	정책평가	성과계획/보고
		프로그램/ 사업	프로그램 평가 자율평가	자율평가	예산집행조사 행정사업리뷰	재정사업평가 심층평가
거버 넌스	총괄	관서	관리예산처	내각부/재무부	재무성/총무성	기획재정부
		조직	성과·인사관리실	평가지원기구	주계국/행정평가국	재정관리국
	주요 협의체		성과책임관위원회 평가책임관위원회	부처별 위원회 공무원청 분석협의체	행정개혁추진위 정책평가자문위	주관부처협의체 재정성과포럼
정보 공개	정보공개 포털		performance.gov evaluation.gov	gov.uk 부처별 공개	재무성 홈페이지 총무성 정책평가포털	열린재정
	공개 주요 항목		연간 평가계획 성과계획/보고 성과지표	성과계획/보고 성과지표 평가보고서	연간 평가계획 예산 반영 현황 평가보고서 성과지표	성과계획/보고 평가보고서

Ⅲ. 우리나라 재정성과정보 관리 현황 및 개선 방향

1. 재정성과정보 관리 현황

우리나라의 재정성과관리는 2001년 시범도입을 거쳐 2007년 시행된 「국가재정법」을 통해 공식적으로 제도화되었다. 재정성과관리는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중심의 재정정보 제공, 부처별 전략목표 체계와 지표체계를 공식 예산체계인 프로그램 예산체계와 일치시켜 도입한 것으로, 이후 2012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의 하위 모듈인 재정성과관리시스템을 통해 업무 전산화가 이뤄져 인프라 지원이 한층 강화되었다. 시스템 지원 기반은 재정성과관리 제도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후 프로그램 하단의 재정사업 단위의 성과관리가 강화되는 국제적 추세에 맞춰 2021년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신설하고, 이를 전산적으로 지원하고자 차세대 전면 재구축인 dBrain+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재정사업성

가. 시스템 구성 현황

〈그림 Ⅲ-1〉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구성도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사용자매뉴얼

dBrain+는 「국가재정법」 제정 이전 예산편성(FIMSys)과 집행·회계(NAFIS)로 분리된 시스템을 하나로 합쳐 2007년 개통한 통합재정정보시스템(DBAS)의 후신으로 재정 전산화 관점에서 보면 4세대 시스템에 해당한다. dBrain+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 자금 이체, 국유재산 관리, 결산, 성과관리 등 국가재정 업무 수행 전반을 지원하는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이다.

dBrain+ 시스템에서 성과관리와 직접 관련된 하부 시스템은 성과관리시스템, 재정사업성과정보시스템 2가지이지만, 이외에도 여러 시스템이 관련되어 있다. 성과관리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성과계획서와 보고서 작성, 지표 관리를 위한 시스템이고, 재정사업성과정보시스템은 재정사업자율평가를 비롯한 다양한 재정사업 대상 평가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기본적으로 입력 속성값과 HWP 기반의 보고서를 토대로 하고 있다. 성과관리 대상인 프로그램,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서도 해당 사업에 대한 정보가 입력된다. 최초 재정사업 등록, 단년도 편성 과정에서 입력된 정보들은 재정성과관리에도 활용이 겹치는 중요한 정보들이다. 본 장에서는 현재 성과관리시스템, 재정사업성과정보관리시스템의 관리 정보와, 이 시스템들과 겹칠 수 있는 dBrain+ 내의 다른 시스템을 살펴보고, 정보관리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1) 성과관리시스템

〈표 III-1〉 dBrain 재정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주요 내용

구축 범위	주요 내용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관리	- 성과계획서/보고서 작성지침에 맞춰 부처 성과계획서/보고서를 시스템에서 작성 - 성과계획서/보고서를 문서로 출력해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구현 - 성과목표, 성과지표, 달성도, 평가 결과 등 성과 관련 정보를 시스템에서 관리
재정사업 자율평가 및 심층평가	- 재정사업자율평가 작성지침에 맞춰 부처 자체 평가 결과 작성 및 기획재정부 확인·점검 결과를 시스템으로 관리 - 재정사업 자율평가보고서를 문서로 출력할 수 있도록 구현 -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에 따른 권고사항, 점검 결과 등을 시스템을 통해 작성·관리 - 심층평가는 심층평가 대상사업, 조치계획/결과 등록, 심층평가 결과보고서를 첨부문서로 관리

구축 범위	주요 내용
성과관리 현황 및 이력관리	- 계획 및 보고에 사용되는 별첨 현황, 관리 과제 미설정 현황 등 여러 성과정보 관련 통계 현황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구현 - 성과계획서/보고서/자율평가의 변경된 이력정보 관리(수정 성과계획서 등 변경사유 발생 시 성과정보의 변경 이력관리)
예·결산 정보 연계 및 활용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내 예·결산 등 재정정보를 성과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현 - 사업관리 및 예산편성시스템에서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재정활동에 성과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능 개선 - 결산시스템에서 성과보고서가 바로 출력될 수 있도록 기능 개선

자료: 기획재정부(2011)

성과관리시스템은 dBrain+의 성과관리 업무 지원시스템이다. 기획재정부의 성과관리 총괄, 부처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작성, 심층평가와 자율평가 보고서 관리, 총괄 조회 업무 등이 가능하다.

성과관리시스템은 2012년 최초 오픈한 이후 지속적으로 기능 개선이 이뤄졌으며, 2021년 개통한 dBrain+에서도 기본 골격은 그대로 유지했다. 기능 개선의 방향은 성과관리 편의 개선(2013/2016), 성과정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정보 연계 등 기능 개선(2013/2014/2016), 성과정보의 확대(2018/2019) 등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이뤄졌다.

성과관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DB)는 2021년 재정성과관리 개편으로 성과계획서와 보고서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사업별 지표는 세부사업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다. 2021년 개편 이전에는 단위사업 중심으로 보고서를 작성, 데이터를 관리했으나 데이터 입력과 관리의 중심이 세부사업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이 차이이다. 이에 따라 그 이전에 단위사업의 속성으로 관련되던 정보 중 조세지출과 관련된 정보는 프로그램으로, 사업의 속성과 관련된 정보들은 세부사업으로 입력되도록 변경되었다.

성과관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는 지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성과정보DB는, 성과계획서와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수치로 입력되는 자료 중심으로 구성된다. 사업속성, 지표속성 등은 해당 프로그램, 세부사업에 대해 전년 대비 실적을

자동으로 계산해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수치로 입력되는 정보 외에 워드문서 작성기를 통해 입력되는 비정형 자료는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지는 않다. 예산 정보는 예산관리, 결산 정보는 회계결산관리 업무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연동 추출해 관리하고 있다.

2) 재정사업성과정보관리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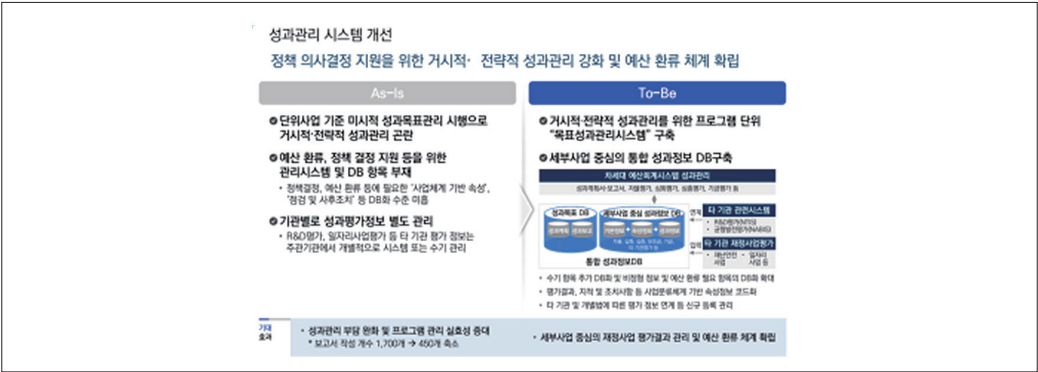
현행 재정사업성과정보관리시스템은 2021년 「국가재정법」 개정, 2022년 dBrian+ 개통으로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시스템 구축의 근본적인 목적은 성과관리 기능의 강화이다. 이전 성과관리시스템은 재정성과관리 업무를 지원하고, 성과정보를 재정업무에 환류, 활용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dBrian+ 개통 시점에서는 이미 구축한 지 8년이나 지난 노후 시스템이었으며, 그간 재정성과관리 업무 자체가 형식화되고 제도 변화 대응이 어려워지는 등 한계가 있었다(박정수, 2022). 2021년 법개정으로 인한 제도 변화에 대응하고,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구축한 시스템이 바로 재정사업성과정보관리시스템인 것이다.

프로그램 단위 핵심 목표 중심 성과관리, 거시적·전략적 성과관리 강화가 이 시스템의 핵심 목적이다. 기존 성과관리시스템의 성과계획서 및 보고서 관리 기능에 더해, 재정당국이 주관하는 각종 평가(자율평가, 심층평가, 기금평가,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등)를 위한 데이터를 세부사업, 단위사업, 프로그램, 기금 단위로 강화하고, 타 기관 관련 시스템(R&D평가, 균형발전평가) 등의 자료를 연계 또는 입력으로 확보하고 관리해 예산편성 등 각종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각종 평가에서 수기로 관리하고 있는 항목을 추가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비정형 정보 및 예산환류 필요 항목 DB화가 확대하며 평가 결과, 지적 및 조치사항 등 사업분류체계 기반 속성정보를 코드화한다. 타 기관 및 개별법에 따른 평가 정보 연계 등 신규 정보도 등록해 관리한다.

재정사업성과정보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가 완성되면, 사용자 친화적 개선을 통해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인 열린재정에서 공개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도 특징이다.

이는 이전의 재정성과관리시스템이 보고서 작성 기능에만 치중해 2015년 개통한 열린재정과의 접점이 크게 없었음을 감안하면 크게 진보한 것이다.

〈그림 III-2〉 재정성과관리 강화를 위한 시스템 개요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사용자매뉴얼

효율적인 사업 관리를 위해 성과 업무를 위한 표준 속성 DB를 구축한 것도 특징이다. 현행 속성정보는 다음과 〈표 III-2〉와 같이 구성된다. 지출 종류, 국정과제는 예산과 연계, 나머지에 대해서는 드롭박스에서 선택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표 III-2〉 재정성과 속성정보의 구분과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주요 내용	사업 기간	사업 시작연도	
		종료 예상연도	
	지출 종류		무지출, 재량지출
	국정과제		국정과제 여부
	예산집행방식		직접수행, 보조, 출자 등
	사업수행주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 등
	사업수혜대상		사람, 산업, 조직 등 4단계
	사업수행활동		직접제공, 역량강화, 운영지원 등 2단계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사용자매뉴얼

3) dBrain+ 세부사업 정보시스템

재정성과관리, 재정사업성과관리와 가장 연관이 높은 dBrain+내의 시스템은 사업관리시스템이라고 불리는 모듈이다. 이 시스템은 당초 dBrain 운영 시에도 존재했으며, 세부사업별로 공통 속성을 부여하고, 사업 목적 등 각종 텍스트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다만 dBrain 시기의 세부사업 정보시스템은 시스템 운영을 위한 지침 부재, 정보신뢰성 부족 등으로 사용빈도가 높지 않았고, 따라서 의무지출 속성, 연구개발/개발원조/정보화 사업 구분 등 일부 표준속성을 제외하면 사용빈도가 높지 않았던 한계가 있다.

상세한 사업정보 관리를 위해 2022년 dBrain+ 개통 후 지속적으로 기능 개선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다만 꾸준한 개선을 거친 탓에 법적 실체와 명칭을 가진 재정사업성과정보시스템과는 다르게 사업관리 기능, 예산 업무 관련 시스템 등으로 호칭은 바뀌고 있다. 사업관리 시스템의 주요 기능은 사업 등록, 사업 수정, 사업정보 조회, 연계 대상 사업관리 등이다.

dBrain+ 세부사업 정보시스템의 핵심은 사업의 생성부터 종료까지의 사업정보 관리이며, 예비타당성, 총사업비 관리 등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또한 국회에 제출하고, 열린재정을 통해 대국민에게 공개하는 사업 설명자료의 작성을 지원한다. 사업 설명자료는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작성하며, 관련 법령, 사업 기간과 연혁, 규모, 수혜대상, 사업유형, 최근 5년간 집행실적, 향후 5년간 중기재정계획, 성과지표와 달성도 등을 망라한 설명서이다.

국회에 제출하고 대국민에게 공개하는 자료를 작성, 지원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사업 설명자료는 성과계획과 결과, 관련 평가정보를 모두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상호 연결되어 있다.

나. 개선 방향

1) 재정사업성과정보시스템 데이터 속성

dBrain+ 사업정보, 성과정보 관리의 중심은 세부사업이다. 프로그램 예산체계는 비록 하나의 프로그램을 재정사업으로 정의하고 이를 단위, 세부로 정의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세부사업 하나가 복수의 목적을 가진 사업의 집합체로 되어 있고, 이 세부사업을 묶은 것이 단위사업, 프로그램이 되다 보니 단위사업은 정의가 모호하고 프로그램은 그 덩어리가 매우 커 목표를 식별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위사업 중심의 평가 체계를 세부사업 수준으로 내린 것은 옳은 판단일 수는 있지만, 여전히 세부사업의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예산집행방식, 사업수행주체, 사업수혜대상, 사업수행활동 등과 같은 속성을 하나의 값으로 매칭하기가 어렵다. 이에 따라 하나의 사업에 4~5개의 속성이 중복되며, 그 정보를 해석하기가 극히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먼저 수행주체 속성의 중복이다. 직접수행, 보조, 출자 등 11개 선택항목으로 구성되는 수행주체 속성 3개 이상 중복되는 사업이 2021년 기준 235개 24조원에 달하고 있다.

〈표 III-3〉 사업 속성 중 사업수행 주체의 중복 수

중복 수	사업 수		사업당 평균예산액('21)	예산('21)
	2021	2022		
0	816	683	83	67,810
1	4,071	4,167	51	207,879
2	934	948	123	114,698
3	213	227	109	23,191
4	22	21	46	1,022
합계	6,056	6,046	68	414,599

다음은 수혜대상 중복이다. 사람-성별-세부내용 등 4단계로 선택할 수 있는 수혜대상의 경우 한 사업에 3개 이상 수혜대상이 잡히는 경우가 2021년 기준 1,399개 82조 5,000억원이다.

〈표 Ⅲ-4〉 사업 속성 중 수혜대상의 중복 수

중복 수	사업 수		사업당 평균예산액('21)	예산('21)
	2021	2022		
0	826	684	82	68,037
1	2,582	2,557	73	189,413
2	1,249	1,268	60	74,665
3	869	992	44	38,130
4	401	515	86	34,446
5	129	30	77	9,908
합계	6,056	6,046	68	414,599

사업수행활동 중복도 상당한 수준이다. 직접제공-세부항목 등 2단계로 선택할 수 있는 사업수행활동 역시 상당한 수준으로 중복 속성으로 입력되어 있다. 수행활동으로 3개 이상의 속성이 선택된 사업도 2021년 기준 865개, 금액은 34조 4,000억원에 달한다.

사업에 여러 속성이 다중으로 중복 입력되어 있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다. 속성정보는 사업의 요약자료를 다시 한번 요약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 정보를 개략적으로 알거나, 검색할 수 있는 필터 조건이라도 된다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다중 속성 선택 사업의 경우 속성 간 매핑이 어려워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데 있다.

〈표 III-5〉 사업 속성 중 수행활동의 중복 수

중복 수	사업 수		사업당 평균예산액('21)	예산('21)
	2021	2022		
0	820	683	83	67,985
1	3,286	3,450	79	258,161
2	1,085	1,078	50	54,078
3	466	455	33	15,263
4	399	231	48	19,112
5		149		
합계	6,056	6,046	68	414,599

예를 들어 3개 수행주체, 5개 수혜대상, 4개 수행활동으로 구성된 산림청 산촌 활성화 지원 사업의 경우,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행자가 농어촌, 일반대중, 임업 사업과 매칭이 전혀 되지 않는다. 즉 하나의 사업이 아래 〈표 III-6〉처럼 요약될 경우, 중앙정부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수혜대상이 일반인지, 임업인지, 서비스 수행 형태는 직접제공인지, 서비스 제공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아래와 같이 하나의 사업에 대한 정보가 주어진다면, 그 정보만으로 사업을 전혀 판단할 수 없고 추가적인 정보를 함께 열람해야 하는데 속성정보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표 III-6〉 수행주체, 수혜대상, 수행활동 중복 사업의 예시

사업 수행주체	사업 수혜대상			
	1	2	3	4
[01]중앙정부	[01]사람	[01]사람	[02]산업	[03]조직
[02]지방자치단체	[06]거주지역	[08]일반지원대상	[02]임업	[01]기업
[03]준정부	[02]지방(농/어/산촌)	[04]일반대중		[03]중소기업
[04]민간				[04]사회적기업
사업 수행활동				
1	2	3	4	
[01]직접 제공	[01]직접 제공	[02]역량 강화	[02]역량 강화	
[02]서비스 제공	[03]인프라 제공	[01]인력 양성	[02]정책 지원	

사업의 속성이 1:1로만 매칭되는 사업도 존재한다. 사업 수행주체, 수혜대상, 수행활동이 분명한 사업은 그만큼 명료한 사업이다. 반면 속성이 다양하다는 것은 내역사업이 그만큼 많이 편제되어 있거나 특정 대상을 중심으로 사업이 편제되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수행주체와 수행활동이 복잡할수록, 사업의 평가를 기본으로 재정을 운용한다는 재정성과관리의 취지와는 멀어지게 된다. 속성이 다양하다면 최소한 1:1로 구분되는 지점까지 사업을 내역 단위로 분할해 정보를 저장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사업 수행활동 속성의 경우 일반적인 정책 분류 기준을 준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재정을 투입하는 활동인지 불분명한 속성이 다수 존재한다(예) 검사·검증, 인증·등록 등 규제실행 업무).

기준을 먼저 설정한 후 정부 정책을 분류하는 연구(예) Salamon, 2002; Lowi, 1966)는 많지만, 이러한 기준으로 정책을 실제로 분류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이론에 근거한 사업 분류가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 예산체계와 내역사업 분류와 다른 것은 이 때문이다. 재정사업의 분류는 정부 공식 분류체계인 프로그램 예산체계를 따르되, 정부 내에 존재하는 다른 관리체계를 어떻게 조화롭게 관리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하지만 재정사업성과정보시스템의 사업정보 속성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지에 대한 이론적 검토 없이 기계적으로 사업을 요약하는 데 집중한 한계가 있다.

2) dBrain+ 단위시스템

현행 재정사업성과정보시스템의 입력속성은 사업의 대표성, 지표의 대표성과 우선순위 등 성과관리 요소보다는 단순히 이 사업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위한 속성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이들이 단순히 사업 성과를 설명해 주기 위한 속성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대부분 dBrain 내 다른 화면에서 입력하는 중복 속성이라는 문제가 있다.

특히 사업 시행주체, 수혜자와 같은 일반적 속성은 재정사업을 특정 요소를 기

준으로 구분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적합하지만, 우리나라의 재정사업 편제 기준은 아니다. 즉 이들 속성은 일부 유사한 속성의 사업을 사업군으로 구획해 비교하기는 적합하지만 일자리, 연구개발 등 법정 기준에 따라 일부 유형의 사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 각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평가하는 현행 재정사업 평가 방식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예산 집행방식 등의 속성이 일관된 기준으로 편제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이다. 보조, 출자, 출연, 융자, 이차보전 등 세목으로 편성하는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이 혼합되어 있으며, 이 항목은 세부사업 관리 사업별 설명서 화면의 지원 형태와 중복되고 있다. 해당 화면조차 정부안 [세목]에 따라 자동 매핑되는 것이므로, 재정사업성과정보관리시스템에서 이 정보를 추가 입력하는 것은 시스템 사용자의 업무 중복에 해당하는 것이다. 사업 수행주체 속성도 마찬가지이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 기관명을 입력하는 세부사업 관리 사업별 설명서 화면의 시행주체와 중복된다. 즉 대국민, 국회 제공용 속성과 중복되는 것인데, 이러한 정보가 재정성과관리 측면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모호하다.

사업 수혜대상 속성의 경우 dBrain+ 내 타 단위 시스템의 명시적 연계는 없으나, dBrain과 세부사업 ID를 일치해 관리하는 국고보조사업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의 사업 속성 정보와 매우 유사하다. 실제로 사업 수혜대상의 경우 국고보조사업의 수혜자 구분으로는 적합할지 모르나 출연, 출자, 건설 사업 등 목으로 분류되는 다른 유형의 사업을 분류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수행주체 역시 마찬가지로 전달체계를 의미하는지, 단순히 사업 설명서의 시행주체를 의미하는지 불분명하며, 어떠한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는지 지침이 구체적이지 못해 사용자에게 혼란을 야기하기 쉽다.

〈그림 Ⅲ-3〉 e나라도움 속성정보 화면

대상별	생애주기별	☒ 10대초반 ☐ 10대후반~5대 ☐ 중년(30~49세) ☐ 40대(10~12세) ☐ 청년(20~44세) ☐ 청소년(13~18세) ☐ 노년(50세 이상) ☐ 60대(19~29세) ☐ 70대(20~49세)			
	계정/구분사업유형별	☐ 다문화 가족 ☐ 이주배경 청소년 ☐ 새터민가정 ☐ 분방국가정 ☐ 신혼부부 ☐ 임신부·출산여가정 ☐ 초년 4대가정 ☐ 초혼가정 ☒ 장기치료·요양환자 ☐ 장애인 ☐ 모란대상자 ☐ 1인(독거)가정 ☐ 가구유형 무관			
	경제활동별	☐ 사회초년생 ☐ 공무원 직종인 ☐ 농업인 ☐ 99업 ☒ 퇴직자 ☐ 학생 ☐ 육산형인 ☐ 취업자 ☐ 실직자·구직자 ☐ 창업자 ☐ 자영업자 ☐ 경제활동무관			
	소득기준별	☐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 차상위계층 ☐ 저소득취업자 ☐ 소득액 50%이하 ☒ 소득액 70%이하 ☐ 긴급지원대상자 ☐ 가비취업자 ☐ 소득무관			
	기업규모별	☐ 대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자영업) ☐ 중소기업 ☐ 대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조업) ☐ 비제조업(제조업) ☐ 기업규모 무관			
주제별	교육지원별	☐ 어린이집·유치원생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대학생 ☐ 대학원생 ☐ 장년인 등 기타 ☐ 교육지원 무관			
	주제별	☐ 창업/창업/지구 ☐ 안전 보장 ☐ 교육 보장 ☐ 문화활동 ☐ 관광/휴양활동 ☐ 종교활동 ☐ 환경활동 ☐ 사회복지활동 ☐ 보훈활동 ☐ 고용안정 ☐ 주거안정 ☐ 보건/의료 ☐ 3차 산업지원 ☐ 산업/제조/제조업 ☐ 국토개발지원 ☐ 교육/문화/문화 ☐ 정보/통신 ☐ 복지/복지 ☐ 과학기술지원			

자료: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최종검색일: '24.5.21.)

다음은 지표 명칭 혼동 문제이다. 성과 속성에 속하는 일부 속성은 타 화면의 속성과 같은 명칭이면서도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것처럼 혼동의 여지가 있다. 사업 수행 기간 속성은 매년 단년도 사업별 설명서에 기입하는 것과 동일한 것인지 가이드가 없다. 이렇게 구성하면 대부분 재정사업의 수행 기간이 일몰없음, 장기 계속으로 지정될 여지가 많다. 국정과제와 정책과제는 고위 정책 레벨에서는 같은 것이기는 하지만, 세부사업 가등록의 정책과제(R&D, 정보화, ODA, 수지차) 구분과 같은지 다른지 명확한 지침이 없다. 따라서 이렇게 등록된 재정사업 속성지표가 타 단위 업무 시스템에서 등록된 정보와 동일한 것인지 확인이 어렵고, 정보가 호환되지 않는 상태에서 정보의 활용을 담보하기 어렵다.

3) 데이터 정확성

재정사업성과정보관리시스템은 2021년 구축 과정에서 데이터 입력 시범사업을 수행했으며, 그 과정에서 데이터 입력 정확성 등을 평가했다. 그 당시 데이터 입력 과정에서 각 회계연도별로 일부 데이터가 누락되거나, 사업 명칭 입력 등에서 오

류가 발견되는 등 한계가 있었다.

이는 타평가 대상 사업과 사업명 입력의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있었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세부사업 단위의 재정사업은 프로그램이나 단위사업과 달리 변화가 심한 편이다. 전년도 재정운용 성과를 환류한다고 하지만 그 환류의 대상은 내년도 사업이 되고, 올해 집행되는 사업은 이미 전년에 명칭 변경, 통폐합 등으로 과목구조가 바뀌었을 수 있다. 시범입력을 수행했던 2020~2021년도 사업의 경우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처럼 명시적으로 올해 진행되는 사업 명칭을 그 대상으로 보도록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자리 사업이나 연구개발 사업 평가의 경우 과목구조 변경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사업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시스템 자료 수집 차원에서의 문제라기보다는 재정 사업의 시계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즉 예산 과정에서 과목구조 개편이 일어났다면, 이를 차년도 평가에 어떻게 반영해야 할지 명확하게 가이드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사업 평가 소관 부처의 행태를 바꾸기 어렵다면, 데이터 입력 단계에서 과목구조 변경이 일어난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입력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제시해야 공개되는 보고서와 입력 정보 기반 시스템 데이터의 일치를 보장할 수 있다.

〈표 Ⅲ-7〉 다른 평가 결과가 입력된 사업의 예시

사업명	외부 시스템 입력값		dBrain
	자체	상위	입력값
0000지원사업	우수	미흡	보통
000000프로젝트	보통	보통	매우우수
000000프로젝트(R&D)(0000부)	매우우수	우수	보통

사업 명칭 혼동으로 인한 정확성 부족 문제 외에 아예 사업 평가 결과가 다른 값으로 입력되는 사업도 있었다. 특히 유사한 사업 명칭을 가지고 있을수록 입력의 혼동 가능성이 높았다. 사업 명칭이 유사하다면 부처 명칭 등을 추가로 고려해 입력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

4) 사업 속성 부족

현행 재정사업성과정보관리시스템의 사업 속성으로 구성된 8종은 분석 목적에 따라서는 부족할 수도, 부족하지 않을 수도 있다. 재정정보를 입력하는 업무 담당자 입장에서는 사업 속성은 적당히 많지 않은 것이 좋다. 자료의 입력과 수정은 1년에 한 번 정도 이뤄지며, 변경이 없다면 계속 이어지게 된다. 자료의 재입력이 아니라면, 자료를 입력한 사람이 이 입력 정보를 활용하는 일 역시 그렇게 빈번하지 않다. 하지만 입력된 자료를 활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료는 많을수록 좋다. 경제·사회 구조적 변화에 대한 재정 대응 필요성이 증가할수록, 재정 정보와 재정통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이와 같이 사용자 관점에서의 이유 때문이다.

자료 입력자의 업무 부담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입력되어 저장되는 정보의 양을 무작정 늘리기는 어렵다. 하지만 지금 입력되어 있는 속성의 활용도를 고려하면 또 이야기가 달라진다. 입력된 정보가 활용자 입장에서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고, 정확하지도 않다면 활용도도 낮을 것이다. dBrain+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정책정보시스템, 재정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정보의 활용도가 낮은 이유는, 법적으로 강제되는 정보나 관리되어야 하는 정보는 정확하지만 1차적인 자료 입증 책임을 벗어나서 해당 데이터의 활용도는 낮을 수밖에 없다. 법적으로 입력이 강제되는 이유는, 해당 정보의 활용도가 책임성 향상이라는 명확한 목표가 있기 때문이다. 명확한 목표가 있는 데이터의 2차 활용도는 낮을 수밖에 없다. 현행 재정사업성과정보관리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는 성과지표, 사업평가 결과 등은 「국가재정법」에 의해 입력이 강제되는, 정부의 책임성 향상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가진 데이터이다. 따라서 이 정보의 활용도는 사후 성과 확인, 차년도 성과지표 설정을 위한 환류 정도에 국한될 뿐, 추가적인 정보 활용의 실익이 낮은 편이다. 반면 사업 속성으로 관리되는 정보들은 법적 강제가 없는 정보들인데, 사업의 요약정보로는 지나치게 간소하고, 유사 사업군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사용하기에는 속성정보가 정책의 대표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사업 수혜대상은 수혜 중복을 점검하기 위해 사업 수행 방식은 유사 사업 방식을 점검하기 위해 구성된 지표이지만, 이 속성들로는 유사

한 사업을 정확하게 걸러내기 어렵다. 정책 속성으로 국정과제 여부, 의무지출 여부 등은 너무 단순한 정책속성들이다. 그리고 정책속성을 충실히 갖추기에는 재정사업 성과정보관리시스템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 평가들이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전혀 고려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 따라서 현행 속성 정보는 본격적으로 활용하기에는 부족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5) 개선 방향

현행 재정사업성과정보관리시스템은 정보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토대 위에 구축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건대, 현행 재정사업성과정보관리시스템의 데이터는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내부 활용, 대국민 성과지향 재정정보 공개를 위해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재정사업과 관련된 속성정보의 경우, ‘재정사업의 성과’라는 본연의 정보를 전산화하고 관리한다기보다는 재정사업 자체에 대한 일반론적인 접근을 통해 구축된 특징이 있다. 현행 재정사업성과정보관리시스템의 속성은 재정사업을 구조화하기 위한 여러 방법 중 재정사업의 수혜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정책수단(policy tool)으로 접근이 되는지에 대한 이론적 고려 위에 구축되어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접근 방법은 현행 프로그램 예산체계의 재정사업 구조화 논리와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프로그램 예산체계는 기본적으로 조직 최하단부인 과·팀의 사업을 기본으로, 이를 묶은 하나의 프로그램이 하나의 조직 단위인 실·국을 벗어나지 못하며, 그 상단에 이르러서야 하나의 분야/부문에 복수의 부처가 편제되는 구조이다. 이렇게 구성할 경우 최하단부 과·팀에서 수행하는 정책·사업의 수혜자는 당연히 다른 부처, 실·국, 과·팀의 정책 수혜자와 겹치는 것을 장담할 수 없게 되며, 개별 부처의 부성화 원리가 정책 수단을 기본으로 구성되지 않기 때문에 이 또한 상당 부분 겹치게 된다. 반면 예산 집행방식과 같은 속성은 사업 분류와 목적별 구조화의 문제가 아니라 과목별 분류체계 일부를 가져왔기 때문에, 실무적이면서도 동시에 해당 사업의 과목 분류체계 정보는 별도의 입력 없이 다른 dBrain+ 내에서 쉽게 얻을 수 있

는 정보이다.

또한 이러한 일반적인 재정사업 속성은 사업 등록, 단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상당히 많이 등록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재정사업 성과정보 관리를 위해서 일반속성을 더 발굴해 입력, 관리하는 방법은 지양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히려 반대로, 재정사업성과정보의 속성이라면 재정사업성과정보 자체에서 속성을 추출해 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재정사업성과정보에 해당하는 각종 평가보고서를 분석해, 저장과 관리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속성을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특정한 평가 업무를 지원하는 별도의 외부 시스템이 존재한다면 이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속성 중 일부가 재정사업성과정보 관리 차원에서 필요한지도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개선 방안 도출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재정사업성과정보 관리의 수혜자, 즉 정보관리의 목적 또한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정보는 시스템 사용자의 능숙도에 따라 활용 효용이 천차만별이며, 누가 사용자인가에 따라서 저장해야 하는 정보도 달라지게 된다. 순환보직이 일반적인 공직사회에서 정책정보의 사용자를 정책 초심자로 한정한다면, 시스템에서 열람할 수 있는 정보는 대국민 공개용 사업 정보와 크게 다르지 않은 사업 요약자료, 초심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속성, 외부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속성을 갖춰야 할 것이다. 사업 분류의 기본 체계는 공식 사업분류체계인 프로그램 예산체계를 따라야 하고, 분야-부문-프로그램을 주요 분류 기준으로 해야 하며 각각에 대한 목적, 사업 대상자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상세 사업보고서와 함께 첨부되어야 할 것이다. 반대로, 프로그램 예산체계의 활용에 능숙하고 재정사업 정보를 비교적 장기간 다뤄본 연구자 등이 정책정보의 사용자라면, 프로그램 예산체계 외 다양한 정책 분야의 분류 속성을 가지고 사업을 다면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이 함께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전자가 초심자에게 사업정보를 전달하는 데 목적을 둔다면, 후자는 사용자에게 유사 사업이 무엇인지 식별하고 장기 시계열에 걸쳐 여러 사업에 걸친 집행 애로사항을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업정보의 간략한 제공에서 시작해, 다양한 다면 분석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정보 시스템으로서 재정사업성과정보관리시스템의 개선 방안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여러 정책평가 보고서를 검토한 후 추가로 속성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타평가 정보 현황

재정사업의 성과정보를 관리하는 것의 목적은 재정의 관리적 측면에 있다. 재정운용 과정에서 산출되는 정보를 예산편성 및 관리에 활용하고, 국고보조사업의 연장, 기금사업의 존치 등 사업의 운용기한을 관리하고 투자사업의 시점 등에 활용하기 위해 각종 재정성과관리 제도들이 도입되었고, 그 제도의 결과로서 생성되는 정보를 성과정보라고 한다. 이들 정보는 대부분 숫자형, 지표형 정보들로서 고위관리자 또는 결정자들이 알아보기 쉬운 형태를 가진다(OECD, 2018; 2019). 이들 재정성과정보는 적절하게 사용할 경우 재정의 관리, 기획, 통제 관점에서 재정운용을 합리화를 지원한다.

하지만 현행 재정사업 성과정보의 관리체계가 재정관리에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정보 항목은 타당하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 재정사업 성과정보를 포함해 각종 재정정보의 관리는 그 목적이 뚜렷해야 한다. 가장 강제성이 있는 방법은 의회에 제출하거나, 국무회의의 의결을 받거나, 대국민 정보공개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의회, 대통령의 의사결정에 활용될 수 있다면 재정사업 성과정보의 관리는 큰 성과를 거둔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재정사업성과정보관리시스템의 정보는 시계열 정보가 그 정도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고, 탑재되어 있는 정보 역시 개선이 필요한 상태이다.

본 장에서는 프로그램 예산체계를 바탕으로 현재 재정사업성과정보관리시스템이 탑재하고 있는 외부 평가 현황, 외부 평가 보고서에서 추출할 수 있는 속성을 바탕으로 시스템에서 추가 전산화 시 편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를 도출하도록 한다. 그리고 외부 연계가 가능한 시스템이 개통하거나 최근 개선이 있는지 살펴보

도록 한다. 살펴볼 시스템은 연구개발종합정보서비스 NTIS, 지역발전 종합정보시스템 NABIS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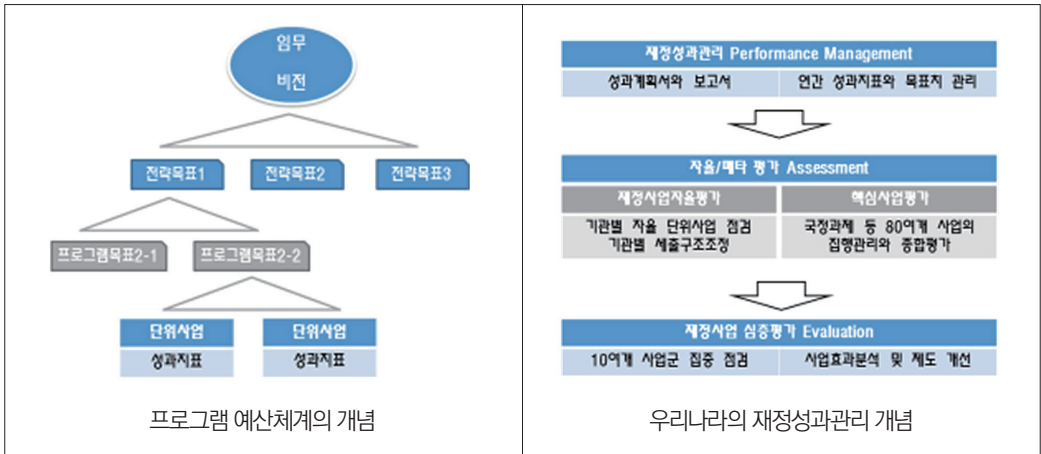
가. 타평가 정보 현황

1) 프로그램 예산체제와 타평가 현황

프로그램 예산체제의 개념은 매우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으며, 우리나라의 현행 체계는 2006년 정립되었다. 프로그램 예산체제의 목적은 품목과 부서 중심의 예산편성을 바꿔 예산, 기획, 집행을 일치시키는 것이다. 프로그램 예산체제는 예산을 목적 중심으로 재편하고 투입뿐 아니라 산출물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규범적인 개혁 수단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프로그램 예산체제에 따른 정보는 2007년 가동한 dBrain+ 시스템상에서 관리되어 오고 있다. 프로그램 예산체제의 외양과 이에 기반을 둔 재정관리는 현재 정착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프로그램 예산체제와 이에 바탕을 둔 프로그램 성과목표관리제, 재정사업 자율평가, 핵심 사업평가 등 재정당국과 부처의 자율성 중심 성과관리 체계는 성과관리의 기본 단위, 성과측정과 보고를 위한 체계를 확립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현재 전 재정사업에 대한 기관 전략목표, 프로그램 목표, 성과지표와 평가에 의한 성과관리, 재정당국의 감독과 심층평가라는 현행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체계가 구축된 것이다. 프로그램 예산체제에 따라 분류되고, 각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시행되는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한 평가 중 가장 기본이 되는 평가로, 평가 항목, 배점, 보고서 양식 등은 변화되어 왔지만 전체적인 틀은 2023년 평가부터 세부사업으로 평가 단위가 변경된 점을 제외하면 유지되고 있다.

〈그림 Ⅲ-4〉 프로그램 예산체계와 재정성과관리의 개념



자료: 박정수(2022)

협회의 재정성과관리는 위와 같은 재정당국과 부처 중심의 재정성과관리체계를 의미하며, 재정성과정보 역시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중기계획, 평가를 통한 산출 점검과 성과관리, 환류라는 체계 속에서 생산, 관리되는 정보를 의미한다. 현시점에서 운영되고 있는 재정성과관리는 프로그램 예산체계의 존재를 전제조건으로 설계되어 있다. 우리나라 재정에서 재정성과정보라 함은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한다. 첫째는 처음 도입되어 현재까지 그 틀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정부의 재정성과관리 체계상에서 프로그램 중심의 성과계획서와 보고서, 단위사업 중심의 재정사업 자율평가 보고서, 국책 또는 국정과제 사업으로서 재정사업 심층평가 또는 핵심평가로 생산되는 정보이다.

그러나 「국가재정법」에는 이외에도 기금에 대한 운용평가와 존치평가 등 성과관리 외의 평가를 통한 관리제도가 있으며, 「국가재정법」 이외의 근거법령에 의한 세부사업 등의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제도도 있다. 연구개발사업평가, 재난안전평가, 국가균형발전사업평가, 일자리사업평가,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중소기업지원사업 평가 등은 서로 다른 도입 배경하에 상이한 시점에 도입되었다. 연구개발사업평가와 국가균형발전사업평가는 「국가재정법」 제정 이전에 도입된 평가이며, 국고

보조사업평가는 「국고보조금법」 2016년 개정으로 현행 체계가 완성되었다. 재난안전평가, 일자리사업평가, 중소기업지원사업평가 등은 국정과제의 필요성에 의해 별도의 평가로 도입하게 된 경우이다.

프로그램 예산체계를 기반으로 분류된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평가들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 평가를 광의의 재정성과관리, 정확히는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의 틀로 묶어 관리하고자 2021년 「국가재정법」 개정을 개정했다. 각 법령에서 관리하는 각종 사업군들이 평가의 중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이들 평가의 중복을 해소하고 평가 정보를 관리, 활용, 공개할 수 있도록 재정관리의 중추 시스템인 dBrain+에 재정사업성과정보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표 III-8〉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 현황

		일반재정 사업	연구개발 사업	재난안전 사업	균형발전 사업	일자리 사업	국고 보조사업	중소기업 지원사업	핵심재정 사업
근거법령		국가재정법	연구성과 평가법	재난안전 기본법	균특법	고용정책 기본법	국고 보조금법	중소기업 기본법	국가재정법
평가제도		재정 사업 평가	연구개발 사업평가	재난안전 사업평가	균형발전 사업평가	일자리사업 평가	연장평가	중소기업 지원사업평가	핵심재정 사업평가
지원 시스템		dBrain+	NTIS	SIIMS	NABIS	일모아	e나라도움	SIMS	dBrain+
평가 방식		심층평가 자율평가 +상위평가	특정평가 자율평가 +상위평가	자율평가 +상위평가	자율평가 +상위평가	일괄평가	외부평가	외부평가	분기별 점검 (상위평가)
평가 대상		단위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내역사업	내역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시스템 지원	기능	보고서 취합	보고서 취합	평가 근거 자료 추출	보고서 취합	평가근거 자료 추출	보고서 저장	평가근거 자료 추출	정보 저장
	지표 관리	○	○	x	x	x	x	x	○
	저장 정보	부처별 보고서	사업별 보고서	x	부처별 보고서	x	사업별 보고서	x	사업 보고서

2) 평가 정보 분석

재정사업성과정보관리시스템의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해, 먼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추가 속성이 무엇인지 분석하도록 한다. 분석 대상은 세부사업 대상 재정사업 평가 8개의 세부사업별 평가보고서이며, 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 사업정보, 성과지표 등의 순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이 검토를 통해 재정사업성과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의 확장 방안을 도출한다. 분석 대상 평가는 중소기업평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재난안전 사업 평가, 균형발전사업 평가, 자율평가, 복권사업평가, 연구개발 사업평가,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등 8개이다.

8개의 평가 중 일부 평가는 평가 항목과 배점이 현재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평가를 나눠 보도록 한다. 2023년 시행된 성과제도 표준화에 따른 5개 성과평가와 3개 평가를 분리, 표준화된 평가의 구성 항목을 비교하고, 나머지 3개 평가는 개별로 분석해 속성을 도출한다. 재정사업자율평가의 경우, 2022년도 평가(2023회계연도 평가)부터는 부처의 사업별 보고서가 공개되지 않고 평가 결과 요약, 미흡사업 구조조정계획과 환류계획 등 일부만 공개하도록 바뀌었지만, 일부 부처는 세부사업별 보고서를 공개했다. 여기서는 사업별 평가정보를 공개한 부처를 대표적으로 분석하도록 한다.

〈그림 III-5〉 재정사업 평가항목 표준화 개념도

[재정사업 성과평가별 항목 체계]					
	재정사업 자율평가	재난안전 사업평가	일자리 사업평가	중소기업 지원사업평가	균형발전평가 R&D 평가, 복권기금평가
공동 항목	사업계획의 적정성, 집행 효율성, 성과달성도, 환류 및 개선노력 등				
개별 항목	-	재난안전 기여도 등	고용유지율, 취업률 등	매출증가율, 부가가치율 등	수도권- 비수도권 예산 비중 등
* (23년) 자평, 재난안전, 일자리, 중소기업, 균형발전 평가 적용 (24년) R&D, 복권기금 평가까지 확대					

출처: 기획재정부, 23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

첫째는 재정사업 성과평가별 항목체계에 공통항목을 적용해 표준화한 평가이다. 재정사업 자율평가, 재난안전사업평가, 일자리사업평가, 중소기업지원사업평가, 균형발전평가 등 5개 평가는 공통항목 4개를 두고 추가로 필요한 경우 개별 항목을 평가 항목으로 두도록 하고 있다. 자율평가 등 5개 평가의 공통항목 사업계획의 적정성, 환류 및 개선노력, 사업관리의 적정성, 집행효율성, 성과달성도, 성과우수성 등 6개 항목을 기준으로 보고서 항목, 평가 지표 배점 등을 분석하도록 한다.

먼저 살펴볼 것은 공통항목 평가 여부다. 평가 계획상으로는 공통항목을 적용한다고 했으나, 2023년 평가에서 공통항목을 모두 반영한 평가는 재난안전, 균형발전 등 2개에 불과했다. 부처 시행 재정사업자율평가는 사업관리 적정성 항목이 제외되었고, 일자리평가는 성과우수성이 평가 항목에 없었다. 중소기업평가는 성과우수성에 더해 집행효율성을 평가하고 있지 않았다. 특성 지표는 평가마다 모두 달랐다. 중소기업지원사업평가는 특성지표로 성과/성장지표, 특성지표 만족도를 사용했다. 일자리사업평가는 참여자 현황, 정량지표별 결과를 평가했다. 성과우수성을 보지 않은 것은 정량지표를 성과우수성으로 치환해 본 것으로 풀이된다. 재난안전사업평가는 도전적 성과목표치 설정, 평가 기준 및 절차 준수 여부를 평가했다. 균형발전사업 평가는 균형발전 기여효과를,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사회적가치를 평가지표에 포함시켰다.

〈표 III-9〉 평가별 항목 표준화 여부

	중소기업	일자리	재난안전	균형발전	자율평가	자율평가
사업계획의 적정성	○	○	○	○	○	○
환류 및 개선노력	○	○	○	○	○	○
사업관리의 적정성	○	○	○	○		○
집행효율성		○	○	○	○	
성과달성도	○	○	○	○	○	일괄평가
성과우수성			○	○	○	○
특성 지표	성과/성장지표 특성 지표 만족도	참여자 현황 정량지표별 결과	도전적 성과 목표치 설정 평가 기준 및 절차 준수 여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균형발전 기여효과	사회적가치 /외부 지적	평가근거 자료 추출 사회적가치

다음은 공통항목 정량화 여부 및 배점이다. 공통항목에 대해 중소기업 평가, 일자리 평가는 정성평가만 있고 배점이 없으며, 재난안전, 지역발전, 자율평가는 사업 구분에 따라 배점이 상이했다. 지역발전사업평가는 신규사업과 계속/종료사업의 평가항목과 배점이 달랐다. 환류와 개선노력이 없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에 대한 배점이 높았고,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환류 및 개선노력, 사업관리 적정성, 성과달성도와 우수성의 배점이 20점대로 비슷했다. 자율평가는 성과달성도와 성과우수성의 배점이 높았다.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경우 사업관리의 적정성 항목이 없으며, 다만 배점의 경우는 각 부처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표 III-10〉 평가별 공통항목 배점

	중소기업	일자리	재난안전	지역발전				자율평가
				지원		자율		
				신규	계속/종료	신규	계속/종료	
사업계획의 적정성	정성	정성	15	40		40	10	10
환류 및 개선노력	정성	정성	15		20			10
사업관리의 적정성	정성	정성	10	30	20	40	30	
집행효율성		정성	10	10	10			30
성과달성도	정성	정성	30	20	25	20	35	40
성과우수성			20		25		25	10
특정 지표/가감점	정성	정량/정성	3/3	5	5	5/3	5/3	5

주) 자율평가의 배점 항목은 부처마다 다르게 설정할 수 있으며, 본 표에서는 예시임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사업을 구분하기 위한 기준인 평가별 사업 구분 및 특성 지표이다. 비록 평가항목을 공통 적용하더라도 특정 사업에 대해 프로그램 예산체계의 분야-부문 체계와는 별도의 분류체계와 각 분류별 평가지표를 적용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먼저 중소기업사업 평가는 8개 사업군 대분류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기술, 인

력, 경영판로 순으로 많았으며, 가장 적은 사업군은 소상공인 사업이었다. 다만 사업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소상공인 전용 재정사업의 수가 적은 것이지, 다른 사업군들도 소상공인 지원성인 경우가 많았다. 요약하면, 대분류는 되어있지만 여전히 중복은 심한 편이다.

〈표 Ⅲ-11〉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사업 구분 및 사업 수

사업분류	사업 수	사업분류	사업 수
금융	17	수출	18
기술	46	경영판로	40
인력	44	소상공인	6
창업	13	인프라	18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의 공통지표는 성과 성장지표, 정책만족도이다. 성과 성장지표는 매출액증가율 등 4개, 정책만족도는 지원내용만족도 5개로 구성되어 있다.

〈표 Ⅲ-12〉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의 전사업 공통 지표

구분	구성
성과성장지표	매출증가율/고용증가율/종사자당 부가가치 증가율 /지속가능성장률
정책만족도	지원내용 만족도/운영체계 만족도/비교만족도/ 전반적 만족도/종합만족도

특성 지표는 8개 사업 대분류에 따라 다르다. 금융사업은 이자보상비율 증가율, 기술 사업은 연구개발비 증가율, 인력사업은 교육훈련비 증가율, 수출사업은 수출증가율, 소상공인 사업은 기업생존율 지표를 사용했다. 창업사업, 경영판로 사업, 인프라 사업은 특성 지표를 적용하지 않고, 공통지표로만 평가하고 있었다.

〈표 Ⅲ-13〉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사업분류별 특성 지표

사업분류	사업 수	사업분류	사업 수
금융	이자보상비율 증가율	수출	수출증가율
기술	연구개발비 증가율	경영판로	특성지표 제외
인력	교육훈련비 증가율	소상공인	기업생존율
창업	특성 지표 제외	인프라	특성 지표 제외

다음은 일자리 사업 평가이다. 일자리 사업 평가 대상 사업은 6대 대분류, 21대 중분류 체계로 분류되고 있었다. 전체 사업 중 직접일자리 노동시장이행형이 가장 많았으며, 직업훈련 기타, 고용장려금 고용유지형 등 해당 유형에 1개로만 분류되는 구분도 있었다.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지원고용 및 재활은 중분류가 없었다.

〈표 Ⅲ-14〉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사업 구분 및 사업 수

대분류	중분류	사업 수
직접일자리	사회봉사복지형	3
	노동시장이행형	39
직업훈련	구직자훈련	23
	재직자훈련	9
	구직/재직혼합	4
	일학습병행	2
	기타(특수)	1
고용서비스	취업지원	18
	역량강화	7
	인프라	14
	기타	2

대분류	중분류	사업 수
고용장려금	고용창출형	11
	고용안정형	11
	모성보호	2
	고용유지형	1
창업지원	사업화지원	8
	인프라	3
	창업초기지원	9
	창업금융	4
실업소득유지및지원		11
지원고용 및 재활		14

대분류의 경우 이에 따르는 지표체계를 가지고 있어 평가를 위한 분류의 실익, 즉 유사 사업끼리 묶어 성과를 비교가 가능하지만, 중분류는 평가지표 및 방법을 위한 별도의 체계를 가지지 않는다. 중분류는 사실상 사업에 대한 요약정보 정도를 제공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공통 및 특성 지표의 경우, 대분류에 따라 공통되거나 특성화된 지표 체계를 평가에 활용하고 있다. 지표는 평가에 사용되는 지표는 총 16개이며, 6개 유형으로 분류된다. 직접일자리 사업, 지원 고용 및 재활 사업의 특성 지표가 6개로 가장 많았고, 실업소득유지 및 지원 사업은 특성 지표가 없었다.

〈표 III-15〉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사업분류별 공통 및 특성 지표

구분	지표명	직접 일자리	직업 훈련	고용 서비스	고용 장려금	창업 지원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지원 고용 및 재활	행 합계
고용지표	고용유지율	0	0	0	0			0	5
	고용증감율				0	0			2
	종료후 고용증감률				0				1
취업지표	취업률	0	0	0				0	4
	취업소요기간	0	0	0				0	4
	인턴사업장 취업률	0							1
	알선취업률			0				0	2
임금지표	임금수준		0	0		0		0	4
참여지표	취약계층 참여율	0							1
	반복참여율	0							1
훈련지표	훈련 고용서비스 연계율	0							1
	중도탈락률		0						1
기업지표	기업생존율				0			0	2
	고용창출기업 비율					0			1
	창업률					0			1
	지속고용사업장 비율					0			1
정량평가 없음							0		1
열합계		6	5	5	4	5	0	6	-

개별 지표로 보면, 고용지표의 고용유지율이 7개 사업 유형 중 5개 유형에서 사용되어 가장 많았다. 반면 종료 후 고용증감률, 인턴사업장 취업률 등 하나의 사업 유형에만 적용되는 지표가 9개로 많았다. 2개 이상의 사업 유형에 적용되는 지표는 7개였지만, 3개 이상의 유형에 적용되는 지표는 4개에 불과했다. 이들 지표는 여러 사업 유형에 적용되는 공통지표로 볼 수 있고, 2개 정도의 사업 유형에만 적용되는 지표는 특성 지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재난안전 사업 평가는 3대 대분류 38대 중분류 체계를 활용하고 있었다. 사업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안전사고로 나누고 둘 다 포함되는 사업을 공통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자연재난의 경우 중분류가 6개 정도이지만 사회재난·안전사고는 무려 25개에 달해 중분류 간 편차가 제법 나타나고 있었다. 중분류에서도 조류, 황사, 승강기 사고 등 해당 사업 유형에 1개만 해당하는 유형이 7개에 달했다. 즉 중분류는 사업을 구분하는 분류라기보다는 사업을 설명해 주는 대표 속성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표 III-16〉 재난안전 사업의 사업 구분 및 사업 수

대분류	중분류	사업 수	대분류	중분류	사업 수
자연재난	풍수해	32	사회재난· 안전사고	선박 재난·사고	17
	산사태	2		방사능 재난·사고	6
	가뭄	6		유해화학물질 재난·사고	2
	지진	11		미세먼지	10
	조류	1		수질오염	4
	황사	1		해양오염	3
공통	안전문화 교육훈련	6		감염병	14
	구조구급응급의료	14		가축 및 수산생물 전염병	7
	재난구호 및 복구	3		승강기 사고	1
	재난안전관리체계	12		전기·가스 사고	3
	국가핵심기반 사고	5		등산·레저 사고	1
	안전취약계층지원	5		물놀이 사고	1
	해외재난	1		사업장 산재	8
사회재난· 안전사고	화재·폭발	6		농어업 사고	4
	산불	2		식품 사고	23
	시설물 재난·사고	6		의료제품 사고	5
	도로교통 재난·사고	8		범죄	10
	철도교통 재난·사고	6		자살	1
	항공교통 재난·사고	7		전시재난·테러	2

재난안전 사업의 사업별 성과지표는 특이하게 사업별 대분류와 중분류를 사용하지 않고 별개의 분류체계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사업 유형별 대표 지표 또는 표준 지표를 활용하지 않고, 8대 유형의 사업별 성과지표를 운영하고 있었다. 각각의 사업에 대해 여러 유형의 지표가 설정될 수 있음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업분류 유형별로 어떠한 성과지표 유형을 사용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공개되지는 않고 있었다.

〈표 Ⅲ-17〉 재난안전 사업의 성과지표 유형

유형	사업수
사고 및 피해저감	90
위험요인 제거	38
정보서비스 품질제고	31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성 확보	207
재난안전 역량 및 인식제고	65
재난안전관리 체계 강화	60
재난 대응 능력 향상	15
회복력 강화	13

재난안전 사업 평가는 상위 평가 체계도 가지고 있었다. 설정된 지표를 바탕으로 부처에서 자체평가 시행 후,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상위 평가로 적절성 등을 점검하고 있다. 2023년도에 적용된 상위 평가의 배점은 아래 표와 같다.

〈표 Ⅲ-18〉 재난안전 사업 평가 상위 평가의 배점

기준	점검항목	배점
과정	위원회 구성의 적절성	10
	위원회 운영의 적절성	10
결과	평가 의견의 명확성 구체성	20
	평가등급 부여의 적절성	60
감점	평가절차 준수 여부	1,310

다음은 균형발전 사업 평가이다. 국가균형발전사업은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예산체계상으로 광역단체 포괄보조사업인 자율계정과, 공모사업과 특정보조사업을 묶은 지원계정으로 분류된다. 이와 별도로 정책 구분체계를 4대 대분류, 9개 중분류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부분적으로 자율계정과 지원계정을 분류하는 방식을 한 차례 더 세분화한 것인데, 자율계정의 시도, 시군구 사업은 자율, 공정 두 대분류에만 포함되기 때문이다. 지원계정의 사업은 희망, 혁신, 자율, 공정 4개 대분류에 모두 포함된다. 이처럼 자율계정과 지원계정의 분류체계마저 구분되는 것은 자율계정과 지원계정의 평가 방식과 관련이 있다.

〈표 III-19〉 균형발전 사업의 사업 구분 및 사업 수

대분류	중분류	사업 수
희망	교육	8
혁신	과학기술	12
	지역산업	15
	지역기업	12
자율	교통	45
	문화여가	54
	농수산해양기반	21
공정	생활환경	280
	보건복지	3
합계		450

핵심 공통성과지표 관리 추진 중 성과지표는 지원계정과 자율계정으로 나눈다. 지원계정 사업은 시도, 시군구 구분이 없는 특정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별로 구분하지 않고 개별 사업의 자율지표를 바탕으로 상위 평가하는 방식이다. 반면 자율계정 사업의 경우 포괄보조라는 특성상 여러 사업을 공통으로 묶기 어렵기 때문에 시도, 시군구별로 사업을 구분하며, 평가 지표 역시 지방자치단체별로

구성된다. 지원계정은 표준화된 지표가 없는 것과 반대로, 자율계정 사업은 사업별 자율지표에 더해 만족도라는 공통성과지표를 두고, 12개 사업에 대한 인력양성, 일자리, 창업, 매출, 기업유치, 특허등록, 방문객 수, 기술이전 등 핵심성과지표를 별도로 설정하는 차이가 있다.

〈표 III-20〉 균형발전 사업의 계정별 평가 방식 및 지표

구분	평가 방식 및 지표
지원계정	자율지표 바탕 자체평가를 상위 평가
	시도, 시군구 구분 없음
	수도권 비중을 함께 평가
	부처별 자율 성과지표 사용
자율계정	시도, 시군구 자체평가 기준이 다름
	상위 평가 기준은 동일
	지표는 공통성과지표(만족도), 핵심성과지표(12개 사업), 자율성과지표로 구성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살펴보도록 한다. 자율평가는 각 부처에서 평가,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군 구분은 없다. 공개되는 점수는 없지만, dBrain+상으로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평가점수는 입력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재정사업평가 항목 표준화 계획에는 사업관리 적정성 항목이 있지만 시스템상으로는 없는 것으로 보아, 전 부처의 재정사업 자율평가 항목에는 사업관리 적정성 항목이 없이 사업성과의 적정성, 집행을 제고 노력, 성과목표 달성도, 사업성과의 우수성, 제도개선 노력 등 5개로 평가하고 지적사항 감점, 사회적가치 구현 가점으로 평가를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평가 항목의 배점의 경우 부처 재정성과운영관이 부처의 평가지표 배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차이가 있다.

〈그림 Ⅲ-6〉 dBrain 재정사업성과정보관리시스템 입력 화면

자율평가결과상세

기본정보 (단위: 천원)

평가연도	2023 (2022회계연도)	소관	
회계가금		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22년예산	
'23년예산 (단위: 천원)	1,035,000	'22년결산	

평가지표 검토자수: 1자(현재자수)

1	사업의 적성성	집행률 제고 노력	성과목표 달성도	사업성과의 우수성	제도개선 노력	지적사항(감점)	사회적가치 구현...	총합	등급
배점	10	30	40	10	10	-5	5		
평가점수(1자)	0	0	0	0	0	0	0		
2	평가점수	0	0	0	0	0	0	0	-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사용자매뉴얼

다음은 공통 양식이다. 각 사업별로 지출구조조정 개선계획을 작성,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재정사업평가 통합 양식을 활용하고 있다. 다만 보고서 양식만 표준화되어 있을 뿐, 이를 데이터베이스 형식으로 저장하고 있지는 않다.

〈표 Ⅲ-21〉 자율평가 지출구조조정 계획 주요 내용

항목		주요 속성
사업별 평가 결과		사업명, 예산, 평가점수, 평가등급, 비교
환류계획	지출구조조정 계획	감액, 차년도 예산 요구계획, 예산변동 내역
	지출구조조정 제외사업 현황	비고(제외 사유)
	미흡사업 지출구조조정 계획 현황	구조조정 금액, 감액 비율, 비교(사유)
	사업별 지출구조조정안	지출구조조정 사유, 지출구조조정계획 내용
	성과관리 개선계획	주요 미흡사유, 성과관리개선계획 주요 내용 주요 추진일정, 비교

그다음으로, 2023회계연도 평가에서 평가항목 표준화 대상에서 제외된 평가의 평가항목, 배점, 사업 구분 기준 등을 살펴보도록 한다. 분석 대상 평가는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복권사업 평가 등 3개이다.

먼저 평가항목의 경우, 주로 추진과정 및 집행, 성과, 환류계획 위주로 점검하고 있었다. 사업 타당성을 검증하는 평가는 보조사업평가 1개였다. 각 평가항목은 모두 명칭은 달랐지만, 추진과정/집행, 성과, 환류계획, 타당성, 가점과 가점 항목으로 크게 나눌 수 있었다. 보조사업 평가가 추진과정/집행의 평가항목이 가장 세분화되어 있었으며, 복권기금 평가는 성과와 환류계획을 세분화하고 있었다. 표준화 항목과는 세부적으로 차이는 있었지만, 특성화 항목 구성을 통해 표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시점에서는 세부항목 구성도 다르고 배점도 다르기 때문에 표준화하여 점수나 평가 결과를 저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따라 이들 평가의 평가 목차, 배점 등을 표준화해 나가야 향후 전산화 관리에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표 III-22〉 비표준화 평가 별 평가항목 현황

구분		연구개발	보조평가	복권평가
추진 과정/ 집행	자원 관리	투입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예산집행률
			실집행 실적	예산절감 노력
	집행 관리	과제관리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사업계획과 집행 실적 간 일치 정도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위험요소관리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자체 사업관리 노력	
성과	성과	성과	보조사업의 효과성	성과지표의 타당성
				목표치 설정의 적정성
				성과목표 달성도
환류 계획	성과분석과 환류계획의 구체성	평가 결과 이행 여부	평가 결과 이행 여부	사업추진·집행실태점검·사업평가체계 및 사회적 가치 절차 반영의 적절성
				사업평가 등의 환류
타당성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보조사업의 필요성	
가점	사업 추진으로 인한 우수 성과물	사회적가치 실현		사회적가치 반영에 대한 홍보 실적 및 효과
감점	부처 간 역할분담 및 추진체계 구축			법정기금 지출 구조조정 노력
				법령 위반 여부

다음은 사업분류체계이다. 각 평가마다 각각의 분류체계를 활용하고 있었다. 먼저 연구개발사업 평가의 경우,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이외에도 다양한 분류기준이 있고 이에 따라 통계가 세분화되어 있지만 실제 평가보고서 작성에 활용되는 분류는 2대 대분류, 8대 중분류를 기술성평가 사업 유형이었다. 다만 이러한 분류를 통해 각 유형에 대한 별도의 평가 기준이나 표준 지침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표 III-23〉 연구개발사업의 기술성평가 사업 유형 분류

대분류	중분류
연구개발	기초연구, 단기산업기술개발, 중장기산업기술개발, 공공기술개발, 지역연구개발
연구기반조성	인력양성, 성과확산, 해외협력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이다.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기본유형, 상세유형 외에 상세속성분류체계를 활용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국고보조사업의 사업 유형 분류 및 상세속성은 국고보조사업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에서 입력, 활용되는 정보로, 실제 성과관리에 활용하는 정보와는 차이가 있었다. 실제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중요한 것은 민간/지자체 보조 등 집행자별 분류, 자본/경상 등 경제성질별 분류가 우선이다. 실제 사업별 평가등급 배분을 위한 실제 기준 분류는 시기별로 다르며, 시기별 분류 기준은 별도로 속성화되거나, 제시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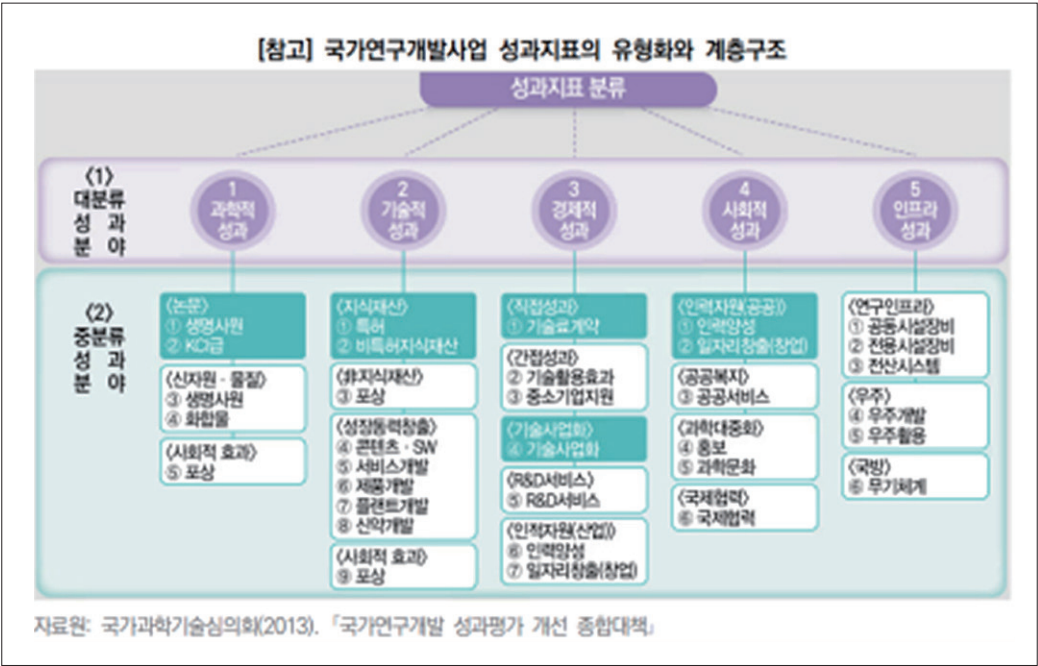
〈표 III-24〉 국고보조사업 유형 분류

기본유형	상세유형
사업형	위탁수행형, 복합수행형
급여형	간접지급형, 직접지급형

복권사업의 경우, 단순히 법정배분 사업과 비법정 배분사업으로 대분류하고 있었다. 다만 평가보고서 양식상으로는 법정 배분 사업과 비법정 배분사업 각각을 사업군으로 보고 평가하기 때문에, 사업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분류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음으로, 각각의 평가의 성과지표 체계를 살펴보도록 한다. 연구개발사업, 복권사업, 국고보조사업 모두 각각의 성과지표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먼저 연구개발사업은 자체 성과지표 분류 계층구조를 따라 사업별로 표준화된 지표를 가지며, NTIS에 저장하고 활용하고 있다.

〈그림 III-7〉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지표 유형 및 계층



자료: 국가과학기술심의회(2013)

복권평가는 주요 평가지표로 성과목표치 달성도를 평가하며, 배점 비중도 100점 만점 중 36점으로 높았다. 국고보조사업 평가 대상 사업의 경우 성과계획서와 보고서상 세부사업별 성과지표를 별첨으로 첨부해 공개하고 있다. 다만 국고보조사업 성과지표는 일반재정사업의 성과지표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다음은 재정사업 성과정보를 보조하여 사업을 요약해 보여줄 수 있는 사업 정보의 속성을 살펴보도록 한다. 국고보조사업, 지역발전사업, 연구개발사업, 자율평가 사업 등 개별 평가에 대한 사업 요약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해 성과 속성의 개선 방향을 도출한다. 사업별 요약 정보는 비록 재정사업 성과관리와 평가에 명시적으로 활용되는 정보는 아니지만, 사업별 특성을 요약해 보여줌으로써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주는 의의가 있다. 특히 표 형태로 열람 가능하거나, 표준화된 목차가 있는 경우를 바탕으로 어떠한 속성으로 작성 및 열람되는지 분석하도록 한다.

먼저 각 사업 설명자료의 목차를 살펴보도록 한다. 사업설명서는 모든 사업에 대해 열람이 가능하며 국회 제출 사업설명서를 요약한 것으로서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로 사업목적, 추진경위, 사업 내용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율평가 보고서 중 일부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별 요약정보는 사업 내용, 기간, 총사업비, 예산 및 규모, 지원대상, 형태, 조건, 시행주체, 사업추진체계 등 지원대상과 시행에 대한 정보의 비중이 높았다. 국가연구개발종합정보서비스(NTIS)에서 열람 가능한 연구개발사업 정보 역시 사업기간, 규모, 지원대상, 형태, 조건 등은 자율평가와 유사했지만 다부처 여부, 예비타당성 여부 등의 항목이 추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발전종합정보시스템(NABIS)에서 열람 가능한 지역발전사업 사업 역시 자율평가, 사업설명서와 유사한 목차로 구성되어 있으나 공모사업 여부를 일종의 특성 속성으로 가지고 있었다. 국고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서 열람 가능한 보조사업 정보는 수혜대상 및 조건을 보다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표 Ⅲ-25〉 사업 유형별 설명서 공통화 작성항목 현황

구분	사업설명서	자율평가	연구개발	지역발전	보조사업	성과속성
열람처	열린재정		NTIS	NABIS	e나라도움	-
목차 및 주요 내용	코드	사업목적	사업구분	사업기간	사업명	사업기간
	명칭	사업내용	사업추진방식	사업목적	사업기간	지출종류
	사업지원 형태 및 지원을	사업기간	사업 유형	지원형태	당해연도 사업비	국정과제
	예산안 총괄표	총사업비	다부처 여부	지원근거	기본유형	예산집행방식
	사업목적	예산현황	사업기간	시행주체	상세유형	사업시행주체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규모	사업규모	전담기간	사업목적	사업수혜대상
	주요 내용	지원대상	총사업비	공모사업 여부	주요 사업 내용	사업수행활동
	사업집행절차	지원형태	지원대상	사업정보시스템	수혜대상 및 조건	
		지원조건	지원형태	사업내용	근거법령	
		시행주체	지원조건	추진체계	담당자	
		사업추진체계	사업시행주체	추진경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공통항목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dBrain+ 재정사업성과정보관리시스템의 성과 속성 중 사업기간, 예산집행방식, 시행주체, 수혜대상, 수행활동 등은 표준화 및 공동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속성정보체계는 외부 및 사업 담당자 입력 비중이 높기 때문에 평가 정보를 공동 이용하고 시스템 연계를 추가로 확장한다면 업무 부담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공통항목 외의 특성 속성을 보면, dBrain에서 수집 가능한 일부 항목(예산현황, 총사업비) 등을 제외 시 사업구분/유형 정보, 공모사업 여부, 다부처 여부 등의 정보가 식별된다. 정보를 관리해야 하는 전산시스템은 여러 정보를 표준화하여 공통항목으로 관리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각 평가 대상별 유형에 대한 특성 속성을 늘리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지는 않다. 하지만 재정관리에 활용도가 높은 정보의 경우라고 판단되면 중장기적으로 다른 사업 유형에 대해서도 함께 정보를 관리하는 것

이 타당할 것이다.

위 목차를 지표 유형별로 표준화해 순서와 상관없이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사업기간과 예산집행 방식은 dBrain+ 성과속성과 다른 평가사업군의 속성정보에서도 관리가 이뤄지고 있었다. 여러 속성을 일치시켜 관리하면서 설명자료 작성 등에 공동활용을 모색할 경우 속성정보의 활용이 증대될 수 있다. 자율평가의 사업설명자료 공통항목 작성을 연계해 시작하는 것이 유리하다. 국정과제 여부처럼 모호하고 타 시스템에서도 관리하지 않는 항목의 경우는 제외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 Ⅲ-26〉 사업 정보의 표준화 목차 현황

	dBrain 성과속성	사업설명서	자율평가	연구개발	지역발전	보조사업
사업기간	○		○	○	○	○
지출종류	○					
국정과제	○					
예산집행방식	○	○	○	○	○	
사업시행주체	○		○	○	○	
사업수혜대상	○		○	○		○
사업수행활동	○	○	○	○	○	○
사업목적		○	○		○	○
사업내용			○		○	
총사업비			○	○		
예산현황		○	○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	○
사업구분/유형				○		○
다부처 여부				○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여부				○		
공모사업 여부					○	

마지막으로 성과지표를 살펴보도록 한다. 앞서 살펴본 평가지표는 각 평가의 배점을 구성하는 지표였지만, 성과지표는 배점 항목 중 성과의 우수성을 평가하는 항목에 해당한다. 즉 사업평가 시점에서, 예산 편성 시점에서 각 사업별로 설정한 목표 대비 달성률을 평가하는 데 그 기준이 되는 지표를 말한다. 현재 dBrain에서 전산상으로 관리하고 있는 지표는 재정사업 자율평가 대상 재정사업 지표이고, 이 지표 중 국고보조사업의 지표를 별도로 관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다만 모든 재정사업에 대해 지표가 공개되지는 않고, 현재 공개되는 지표는 국고보조사업의 지표뿐이다.

이외의 평가를 보면, 각 사업평가별 성과지표 관리제는 시행 중이지만, 시스템 관리 여부, 사업당 지표 수 및 점검체계 여부 등은 모두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평가, 일자리 사업 평가는 평가에 사용되는 지표가 모두 지정형, 즉 특정 유형에 대해 공통의 지표를 관리하고 있었다. 연구개발, 재난안전사업의 경우 성과지표가 사업 유형별로 표준화되어 있으나 동일하지 않고, 점검체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평가 대상, 복권사업은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한 지표를 관리하며, 각 평가에서 성과의 우수성 항목에서 배점화되어 최종 평가 결과가 된다.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의 경우, 사업별 지표관리는 하고 있지만 이 성과지표가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에 반영되지는 않는 구조였다.

지표의 경우 국회 제공 사업설명서 등에 활용되고, 여러 평가에 걸쳐 활용되는 만큼 dBrain+에서 재정사업성과정보관리시스템의 일부로 전부 관리하는 것을 중장기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Ⅲ-27〉 사업 평가별 성과지표 관리 현황

	자율평가	중소기업	일자리	재난안전	균형발전	연구개발	복권	국고보조
성과지표	O	O	O	O	O	O	O	O
시스템 관리 여부	O	X	X	X	X	O	X	O
	dBrain					NTIS		dBrain
사업 수 ¹⁾	1,771	202	196 (220)	288	92	267 (1530)	70	358 (1011)
지표 수 ²⁾		1909	956	453	1216			(1288)
사업당 지표 수	1~6	10	4~6	평균 1.6	1~4			1~6
지표 종류	자율	지정	지정	자율	자율	표준화	자율	자율
				메타평가	핵심			
평가보고서 지표 첨부여부 ³⁾	O	O	O	X	X	O	X	X/O

주 1) 괄호안은 해당 사업군의 전체 사업 수(내역 기준)를 의미

2) 평가대상 사업의 평가 지표 수를 의미. 괄호안은 전체 사업의 지표 수를 의미

3)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연장평가는 지표 미첨부. 성과계획서와 보고서상에 첨부

3) 시사점 및 향후 관리 방향

이상에서 재정사업성과정보관리시스템의 정보 부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스템 정보 저장 대상 9개 재정사업평가의 평가 정보 현황을 검토해 보았다. 추가로 검토한 정보는 각 평가의 항목과 배점, 평가지표, 사업 구분, 성과지표, 사업 설명자료 속성 등이다. 이 중 평가 항목 및 배점, 평가지표, 성과지표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사업을 요약성으로 보여주는 속성 정보로, 대국민 또는 의회에 제출하기 위한 사업 설명, 구분, 소명자료 작성 등에 유용한 것이다. 물론 이들 중 일부는 평가를 하기 위한 유사 사업군 구분에 사용되기도 하나, 이러한 구분이 사실상 정책 및 일

반사업 속성 구분에 가까운 국가균형개발사업 평가, 평가지표가 사업군 구분에 맞춰져 있는 일자리 사업 평가 정도만이 사업군 구분에 연동이 되어있는 수준이다. 이러한 사업설명 요약형 속성정보는 재정사업을 처음 접하는 연구자나 실무자에게 유용하다. 그리고 유사 사업 유형에 따른 사업별 평가정보 등은 사업별 세부 평가 결과, 상세 지표 정보 등과 결합해 향후 문제사업 발굴, 심층평가 대상 사업군 선정 등은 물론 행정부 교체 및 국정과제 사업 발굴, 핵심 관리대상 사업 선정 등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다만 평가 보고서상의 모든 정보가 유용하지는 않으며, 중요성에도 경중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평가 항목 자체가 아직 표준화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재정사업 설명자료 표준화, 보고서 표준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지속적으로 표준화가 가능한, 중요도가 높은 자료를 발굴, 산출해 전산화 및 저장·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향후 재정사업성과정보관리시스템의 개선 방향으로 크게 정보관리 확대, 표준화 및 단순화, 성과지표 관리 확대와 정보공개 강화 등 4가지를 제시한다. 먼저 정보관리 확대이다. 대부분의 사업평가들이 사업을 대분류에서 중분류에 이르는 별도의 사업분류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분류체계는 당연히 재정사업 공식분류인 프로그램 예산체계와는 일치하지 않으며, 세부사업을 평가대상으로 하더라도 세부사업의 내역 차원에서 차이가 있었다. 프로그램 예산체계와 타평가 사업분류 체계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프로그램 예산체계를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보조적인 재정사업 분류체계를 재정사업 성과정보관리시스템 차원에서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즉 프로그램 예산체계를 기본으로 하고, 보조사업분류를 도입해 사업평가 및 성과관리 업무에 활용하는 것이다. 다만 타평가의 중분류는 해당 분류 속에 1~3개 정도의 사업만이 편제되어 사실상 전산관리의 편익이 크지 않은 만큼, 먼저 대분류 수준의 각 타평가 사업분류를 저장, 관리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1~3개 정도만이 편제되는 사업은 사업 명칭 개선을 통해 반영하고 중분류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지만, 타평가의 사업분류체계는 재정사업 성과관리 체계로 통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점진적으로 타평가 주무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사업분류 외에도 각 사

업의 세부 배점도 중장기적으로는 관리 편익이 있다. 비록 평가마다 평가항목을 표준화한다고 하더라도 배점은 다를 수 있는데, 이는 평가정보 분석 시점에서 표준화를 통해 해결이 가능한 사안이다. 평가 항목별 표준점수 분석으로 우수사업, 관리대상사업, 구조조정 대상 사업을 선별할 수 있다면 이는 재정사업 성과관리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다만 현시점에서는 5개 평가 정도의 보고서 표준서식, 즉 양식 통일이 되었을 뿐 나머지 평가는 항목조차 통일이 안 된 만큼 중장기적으로 각 평가의 서식과 항목을 통일해 나가면서 시스템 정보 저장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표준화 및 단순화이다. 타평가의 평가 서식과 항목을 표준화해야 하는 것은 정보관리 확대 측면에서도 이미 언급한 바 있다. 정보관리 확대와 표준화 및 단순화는 사실 다른 것이 아니다. 전산화의 가장 큰 전제조건은 여러 제도에서 생산되는 정보들이 통일된 양식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평가 항목, 서식에만 그치지 않는다. 특히 사업에 대한 설명자료, 요약자료의 형식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재정사업성과관리시스템의 사업별 속성정보DB의 요약속성은 사실 사업별 평가 관리에 활용하기보다는, 사업 유형별 분류에 기반한 대국민 재정정보 공개에 더 알맞은 형식이다. 그러다 보니 평가 업무용으로 각 부처에서 사용하는 자율평가의 1페이지 사업 설명자료와도 항목이 맞지 않는 문제가 있다. 여러 평가를 수행해야 하는 부처에서는 각 평가의 사업설명 서식이 통일되지 않는다는 것도 업무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으며, 이 정보를 제공받는 국민 입장에서 혼란을 줄 수 있다. 만약 타평가 사업정보 관리에, 재정사업성과정보관리시스템의 사업 속성정보 요약테이블을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사업 정보를 표준화해 저장, 관리해 나간다면 이 정보의 활용처가 명확해지기 때문에 관리의 편익이 더 커진다. 각 평가 결과 항목 점수 관리보다도 먼저 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다. 표준화되고 통일된 전체 재정사업의 요약형 속성정보 체계가 먼저 구축되고 이에 따라 재정사업성과정보관리시스템의 사업별 속성정보 체계가 구축된다면 시스템의 활용 증진, 정보의 활용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된다.

다음은 재정사업 성과목표 관리정보의 표준화, 저장 및 활용 확대이다. 2021년 법개정 및 재정사업성과관리 기본계획 시행으로 모든 세부사업에 대해 성과목표가

설정, 관리되는 만큼 전체 재정사업의 성과목표를 예산편성 단계부터 DB화하고 이의 활용을 장려해야 할 것이다. 2021년 법개정 이전에는 단위사업 성과목표 관리제를 실시했기 때문에 재정사업 성과목표 정보의 활용처가 맞지 않았다. 이미 그 당시에도 국회 제출용 사업설명서 등에는 각 부처에서 세부사업별 성과지표 목표와 실적치를 수기로 작성해 제출하고 있었는데, 시스템 저장 정보와 호환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성과계획서, 보고서 및 자율평가 작성을 위한 프로그램 지표, 단위사업 지표를 관리하고, 세부사업 지표도 별도로 관리해야 하는 복잡한 체계가 각 사업 층위의 위계 없이 지속되었던 문제가 있었다. 제도 개선을 통해 단위사업 지표가 사라지면서 일부 문제는 해소되었으며 성과계획서 작성 단계에서 전체 성과관리 대상 세부사업 지표를 입력하게 해 지표 층위 문제는 일부 해소되었다. 그러나 외부에서 성과지표를 관리하는 시스템 또는 평가보고서와 지표가 중복 입력되는 실정이며, 성과계획서와 보고서를 통해 입력된 성과지표가 타평가에는 전혀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재정사업 자율평가 기능에도 평가보고서 관리 탭에서 성과지표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기능 중복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어느 시점, 어느 화면에서 자료를 입력하는지 가이드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입력된 정보가 충실히 사용되려면 입력, 관리 화면을 통일해야 하고, 정보를 사용하는 명확한 체계가 있어야 한다. 자율평가, 연구개발, 지역발전, 재난안전, 복권기금 사업 등의 경우는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설정한 지표를 명시적으로 평가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시스템 간 정보 공유가 안 되어 타평가 대상 사업의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보를 입력하거나 작성하고 있다. 이들 평가에서 과거 성과지표의 달성 추이 등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하고, 각 평가의 속성정보를 결합해 활용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마지막은 성과정보의 공개이다. 사업 요약정보, 성과목표와 달성도, 관련 재정사업의 평가 결과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성과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개선해 이를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의 평가 구분(일자리 등), 속성정보(일자리 대분류 등), 요약 정보(출연 여부, 수혜자 등), 성과지표(참여자 수 등), 평가 결과(우수/보통/미흡)으로 요약되는 세부사업 성과정보를 DB 형태로 요약하고 시각화해 보여줄 수 있는 형태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나. 정보 관리 거버넌스 현황

본 절에서는 재정사업 성과정보 관리의 절차, 거버넌스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살펴보도록 한다. 예산을 요구하는 관서의 경우 사업정보 관리, 각 부처 성과계획 및 보고서 관리에 있어 사업 담당자 외에도 각 부처 재정책임관, 총괄담당자 등이 개별 부처 내에서 중복적으로 체크를 하도록 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먼저 재정당국 주관 평가를 살펴보면, 자율평가의 경우 재정책임관이 아닌 재정성과운영관이 이를 확인하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다. 이는 재정사업을 중심으로 성과를 관리하려는 2021년 「국가재정법」 개정 취지와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현행 부처별 관리체계는 재정성과책임관은 부기관장, 재정성과운영관은 기획조정실장, 성과목표담당관은 국장급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적어도 각 부처 내에서의 성과계획서 및 보고서 작성, 자율평가 등의 업무에 있어서는 이러한 거버넌스가 작동할 수 있도록 dBrain+ 업무 절차 및 프로세스가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III-8〉 dBrain+ 재정사업자율평가 권한 담당자 현황

담당자	사용자권한	관련관서	비고
자율평가관리자	자율평가관리자	기획재정부	소관별로 제출된 재정사업 자율평가 보고서를 검토하여 확인하고 필요 시 해당부처에 보완요청을 통보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재정성과운영관(PIO) -자율평가	재정성과운영관(PIO) -자율평가	부처	부처전체의 재정사업 자율평가업무를 총괄하고, 부처재정사업 자율평가보고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세부사업관리자	세부사업관리자	부처	소관별로 담당자로 지정된 재정사업의 자율평가 보고서를 작성 후 제출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자료: dBrain+ 사용자 매뉴얼

하지만 재정당국 평가와 타평가의 경우, 시스템상의 권한은 개별 부처의 성과 관리 체계와는 모호하게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재정당국 평가의 경우는 각 사업평가수검은 각 부처 사업관리자가 하지만, 평가 결과는 재정당국에서 일괄 취합해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타평가의 경우는 각 부처의 세부사업 담당자가 각 평가 결과를 입력하고 평가 주관 부처의 확인을 받는 형태로 되어 있다.

즉 현행 체제하에서는, 「국가재정법」상 재정성과관리와 재정사업성과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성과책임관 신설 등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타평가 정보를 수집, 관리할 수 있도록 재정사업성과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실제 시스템 정보 입력과 관리, 활용에 있어서는 각 부처의 성과관리체계와 시스템 관리 정보가 별도로 구축되어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크게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각 부처 성과책임관은 오로지 부처 자율 부분의 정보만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둘째, 데이터의 입력과 정확성 확인에서 각 부처 성과책임관이 배제된다. 즉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정보 중 대부분이 성과관리 거버넌스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시스템 관리 정보의 범위를 확정하고 보다 정확성을 유지하면서 관리하려면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이다. 현재 시스템상 부여된 권한 체계가 분산되어 있다고 해서 이를 조정하기 위한 별도의 프로세스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행정력 낭비의 소지가 있다. 이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가재정법」상 구축된 성과관리 거버넌스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비록 정보는 각 부처 최하단 세부사업 관리자가 입력할 수 있도록 하더라도 이 정보는 개별 부처 차원에서 먼저 취합이 이뤄지고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입력된 정보가 활용되려면 단순히 자료의 입력에만 그치지 않고 각 부처 성과관리 거버넌스가 완비되어 입력된 재정성과정보와 재정사업성과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다. 타평가 정보관리 시스템 현황

재정사업성과정보관리시스템은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 등의 정보를 담당자가 입력하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졌지만, 재정사업 성과정보를 얻는 방법이 단순한 수기 입력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dBrain+ 외에도, 재정사업 정보를 관리하거나 평가 정보를 다루는 시스템이 존재한다. 이에 대한 1차적인 탐색적 연구는 박정수(2020)에서도 다룬 바 있다. 하지만 2024년 시점에서, dBrain+와 마찬가지로 여러 전산시스템이 한 차례 이상 업데이트되거나 기능이 추가되었다. 본 절에서는, 2021년도 연구에서 살펴보았던 시스템을 대상으로 재정사업 정보나 평가 정보 관리에 있어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고, 연계가 가능한지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시스템의 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기능과 관련해서는, 매 연단위로 관련 기능이 개선되고 있어 이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지 않으면 어떠한 시스템에서 앞으로 어떠한 정보가 관리, 생산되는지 알기 어렵다. 2020년도 연구 당시에는 균형발전종합정보시스템(NABIS)이 구축 중이어서, 완성될 경우 어떠한 모습이 될지 예측이 어려웠다. NABIS는 2024년 현재 성과관리 기능까지 완전 개통해 운영하고 있으므로, 현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일모아시스템 같은 경우는 2020년 당시에는 사업 관리 기능이 개통 당시인 2009년에 머무르고 있어 성과관리나 사업 관리를 위한 기능이 구현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 하지만 2024년 현재는 시스템 고도화 작업이 수행 중에 있어 유의미한 정보가 생산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아직은 구축이 완료되지 않아 앞으로도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다. 재난안전사업 관리를 위한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은 지방자치단체 안전예산을 관리하기 위한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2020년 사업으로 구축했지만, 성과정보 관리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절에서는, 연구개발사업 관리 시스템 NTIS, 균형발전사업 관리시스템 NABIS, 일자리사업 관리시스템 일모아, 재난안전사업 관리시스템 SIIMS를 분석해, 최근 동향과 재정사업 관리 및 성과정보 관리의 시사점과 연계 방향을 제시하도록 한다.

1) 국가연구개발지식정보서비스 NTIS

국가연구개발지식정보서비스(이하 NTIS)는 국가 연구개발(R&D)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종합 정책정보시스템이다. 본 시스템은 R&D 환경 복잡화, 규모 대형화에 따라 사업 기획 및 종합조정 지원을 과학적이고 심층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및 과학기술정보 활용 용이성을 높이고, 정보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축했다. NTIS는 특허 정보, 과제 관리 및 공고 정보, 연구자 및 사업평가자 정보, 연구개발 성과 통합DB, 전주기 연구개발 사업 및 과제 평가 결과 관리 등을 제공하고 있다.

NTIS는 최초 2008년 구축 후 수차례 데이터 확장 및 기능 개선이 이뤄져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은 데이터 이관만 3차례 수행하여 단절적으로 여러 기술을 도입해서 차세대 시스템을 현재 구축해 오픈한 데 이르렀지만, NTIS는 반대로 꾸준히 기능을 개선하고 필요 없는 기능은 제거하면서 발전해온 특징이 있다. 현재 NTIS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는 시스템은 2022년도 고도화 및 데이터베이스 확충 사업 수행에 따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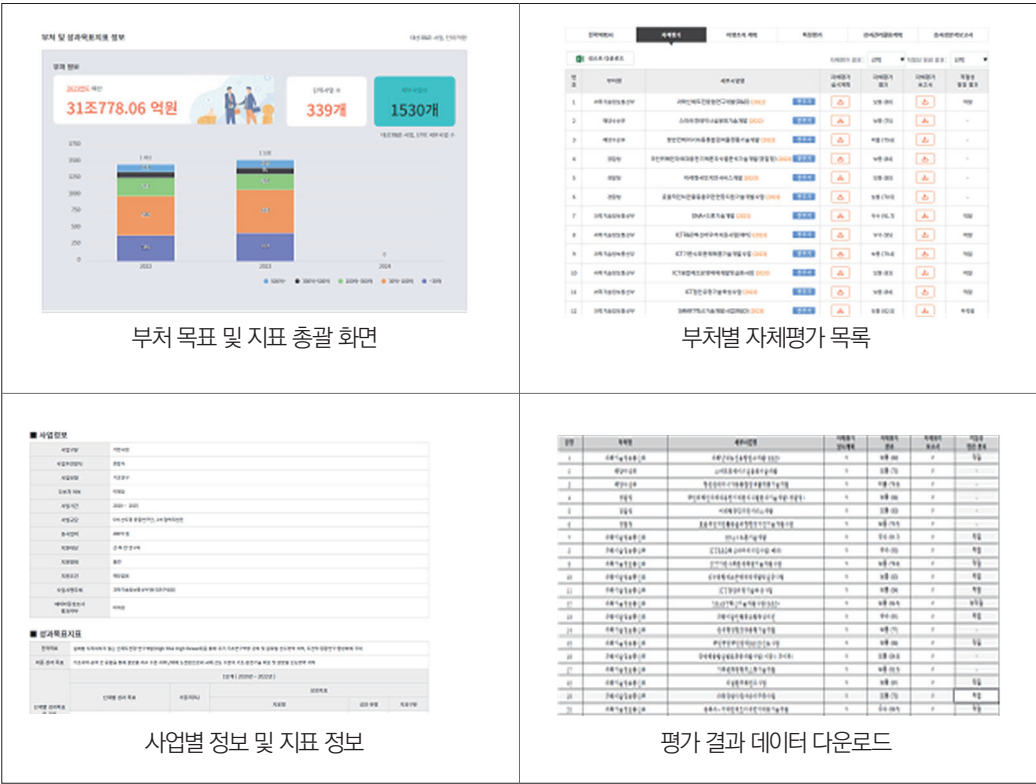
〈그림 III-9〉 NTIS 성과평가정보시스템



자료: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 홈페이지(ntis.go.kr, 최종검색일: '24.5.10.)

2022년도 기능 개선은 국가R&D데이터 전주기 관리프로세스 개선, 정보 연계 및 품질관리, 이용자 친화적 개선, 트렌드별 연구개발 성과 정보 파악 및 시각화 기반 동향 추이 분석 등 사용자 만족도 및 데이터 활용성 증진을 위한 것이다. 연구개발사업 평가 정보관리를 위해 성과지표 수집 및 공개 기능이 오픈했고, 과제평가 결과 정보 조회 기능이 개선되고 연구개발 사업정보 표준수집 등 데이터 측면에서 많은 개선이 있었다.

〈그림 III-10〉 NTIS 과제평가 관련 주요 화면



자료: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 홈페이지(ntis.go.kr, 최종검색일: '24.5.10.)

2022년 기능 개선 이전에는 사업 수와 목록, 사업 개요와 지표 관련 정보는 없이 사업별 평가 결과와 보고서, 우수/보통/미흡 등 결과에 대한 화면만 조회할 수 있었다. 차세대로 이행하면서 성과지표 정보, 사업 기초 정보 및 요약, 시계열 평가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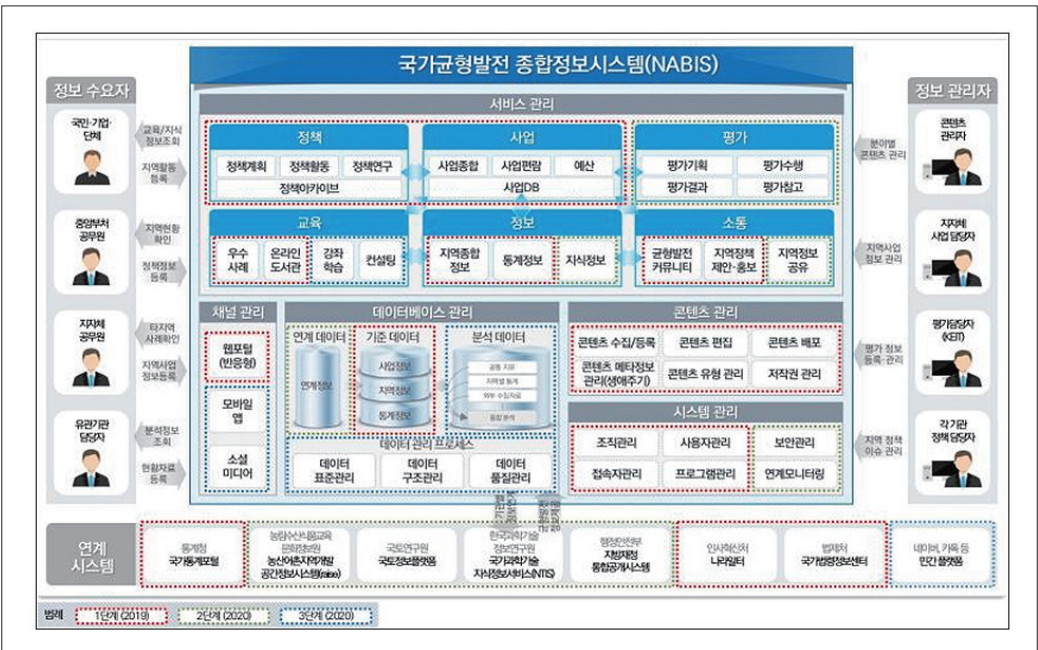
력 조회는 물론 평가 결과 데이터, 사업 전체 목록에 대한 정보까지 개방되어 있어, 성과 및 평가정보 관리시스템 중에서도 상당히 발전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2) 국가균형발전종합정보시스템 NABIS

국가균형발전종합정보시스템(이하 NABIS)은 지역별 발전 현황을 검색,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한 지식정보 플랫폼으로,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과 재정투입, 사업별 평가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본 시스템은 2018년부터 기존 시스템(REDIS)을 대체하기 위해 구축을 시작했으며, 2020년까지 2단계 구축이 완료되었다.

1단계 사업은 대국민 정책, 사업 홍보 중심으로 2018~2019년에 걸쳐 구축, 개통했고, 2단계는 사업관리 기능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균형발전사업 평가지원 기능, 연계, 시각화 등 기능이 구축되었다.

〈그림 III-11〉 국가균형발전종합정보시스템(NABIS) 목표개념도



자료: 한국산업기술평가원(2022)

2단계 개발로 평가지원 시스템, 각종 현황판 및 대시보드 기능 개발이 완료된 상태이다. 평가지원 기능으로는 보고서 접수, 평가위원회 관리, 결과 분석 및 평가 리포트 제공, 평가 이력관리 기능 등이 구축되었고, 분야별 현황, 테마별 현황 등 상황판이 개발되고 공개되었다.

2022년 추가 기능 개선 사업으로 평가 기능을 중점 개선, 업무 단위 정보를 사업 중심으로 종합 이력관리 체계로 전환되었다. 사업 이력 종합관리체계 구축 및 통계 기능 보강으로 평가관리 시스템 기능이 개선되었고,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 정보접근 통제, 문서보안 기능 강화 등 온라인 평가 기능이 개선되었다.

구체적으로 종합평가, 예산편성의견 등 업무 단위로 세부사업 정보가 분리 보관되어 있는 구조에서, 세부사업 기준으로 상호 정보를 연계해 사업이력 조회, 사업관리대장 출력 등의 기능을 구현했다. 종합평가, 예산편성의견, 성과계획 점검 등 주요 기능에 대한 통계 화면을 제공한다.

〈표 III-28〉 NABIS 성과관리 관련 주요 제공 통계 현황

• 종합평가결과 - 연도별/계정별/부처·지자체/사업별 평가결과(사업목록 중심) - 연도별/계정별/부처·지자체/평가등급별 평가결과(등급/비율 중심) - 연도별/계정별/부처·지자체/평가지표별 평가결과(지표분석 중심) • 예산편성의견 - 연도별/계정별/부처·지자체별 예산신청 현황 - 연도별/계정별/부처·지자체별 예산편성 검토결과(사업목록 중심) - 연도별/계정별/부처·지자체별/평가등급별 예산편성 검토현황(등급/비율 중심) - 연도별/계정별/부처·지자체별/평가지표별 결과(지표분석 중심) • 기타 통계 - 연도별/계정별/부처·지자체별 성과지표 및 목표달성 현황 - 연도별 균형회계 예산 현황, 평가자문단 구성 현황 등
--

자료: NABIS 사용자 매뉴얼

NABIS는 이와 같이 수집된 정보들을 중심으로 평가정보, 지표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균형발전 지표 등은 실제 균형발전 사업 수행 과정에서 사용되는 지표인지는 불분명하다. 다양한 데이터를 연계하여 보여주는 만큼, 균형발전사업

정보 사용자 친화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평가자료의 경우 시스템 구축 후인 2021년 이후 자료만 제공하고 있고, 대시보드의 지역별 정책 시책 정보 등도 마찬가지로였다. 시스템을 통해 장기적인 시계열 정보를 제공하려면 데이터 축적에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III-12〉 NABIS 주요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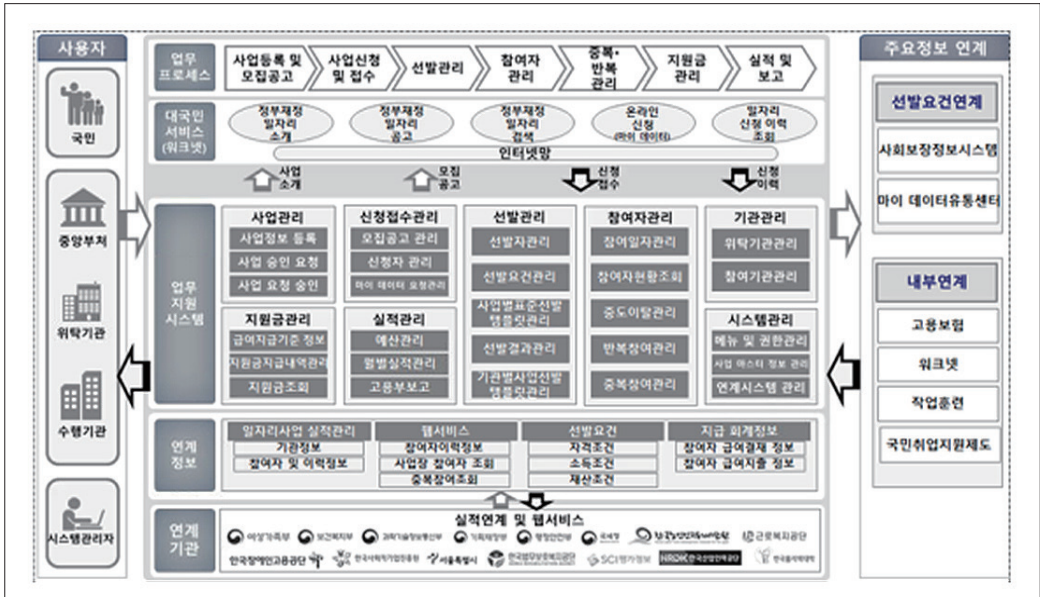
자료: 지역발전종합정보시스템(nabis.go.kr, 최종검색일: '24.5.10.)

3) 일자리사업종합정보시스템 일모아

일모아시스템은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업무 추진을 위해 2009년 개통한 시스템이다. 시스템 주요 기능은 일자리사업 지침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 처리,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관리, 자치단체의 일자리사업 추진 지원 등이다. 본 시스템은 2013년 한 차례 차세대 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13년도 구축 사업으로 일자리사업 참여자에 대한 정보관리와 사업정보 관리가 크게 강화되었다.

구체적으로는 각종 연계를 강화하여 참여자 선발, 출결관리, 중복·반복 식별, 미선발자 정보공유 등의 업무가 강화되었다. 사업정보 관리 기능은, 약 180여 개의 일자리사업 개요 정보를 정비하고, 사업 유형별 관리항목을 정의하고 이에 따라 업무프로세스를 재설계했다.

〈그림 III-13〉 일모아 시스템 구조도



자료: 한국고용정보원(2024)

일모아 시스템은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지만, 재정사업의 편성, 집행관리, 결산 기능은 없기 때문에 재정정보시스템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관련 재무정보, 성과정보 등을 취합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현시점에서 일자리 사업평가와 관련한 일모아 시스템과의 연계 항목은, 사업정보 일부에 대한 수준이다. 그러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특성, 즉 dBrain+의 세부 사업 관리보다 한 단계 낮은 내역사업 수준에서 사업 정보가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매핑할 수 있는 체계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연계는 불가능하다.

2024년에는 그간 운영한 일모아 시스템의 노후화, 기능 부족, 제도 변화 등에 유연한 대응이 어려워 일자리사업 총괄 기능 수행에 한계가 드러남에 따라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으로 도약하기 위한 고도화 사업이 발주, 수행 중에 있다. 특히 일자리 사업 관련 통계 기능 미흡, 일자리사업 정보 현행화 어려움 등이 문제점으로 제시되어,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집중 수행, 업무에 사용할 수 있는 통계 생산, 일자

리사업 기준정보 표준화 및 마스터정보 현행화로 유연한 사업 정보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편성-집행-결산 및 평가에 이르는 재정 주기 관점에서의 정보 생산이나 연계는 여전히 어려운 점, 사업별 평가정보 또는 지표 생산 및 저장 기능에 있어서는, 사업 과업지시서상으로는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 고도화 사업 수행 후, 사업 관리 기능의 적절한 강화가 이뤄진다면, dBrain+ 재정사업성과정보 관리시스템과의 연계도 중장기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일자리사업관리시스템으로서는 처음으로 시스템 간 연계를 위한 기준정보 관리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적절한 정보의 확충이 이뤄질 경우 dBrain+와 기준정보 표준화를 통해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표 Ⅲ-29〉 2024년도 일모아시스템 고도화 개선 방향

구분	문제점	개선 방향
사업 담당자	• 참여자 선발 시 오프라인 업무 존재 • 중복 참여의심건 과다 생성	• 선발 자동화 처리 구현 • 중복관리 기준 변경 및 처리주제 명확화
일반 국민	• 참여자 모집정보 품질 저하 • 사업 담당자 중심의 용어 제공	• 워크넷 필수항목을 참조한 참여자 모집 정보 제공 • 수요자 중심의 용어 전환 및 메뉴 구조 개선
정책 관리자	• 통계 기능 미흡에 따른 실적 관리 이원화 • 일자리사업 소개정보 현행화 어려움	• 업무에 활용될 수 있는 통계 서식 제공 • 일자리사업 마스터정보를 활용한 정보관리
시스템 관리자	• 일자리사업 유형에 따른 업무서비스 제공 불가 • 기준데이터 관리 어려움 • 합동지침 등 정책 지원 어려움	• 일자리사업 마스터정보 운영을 통한 유형별 업무서비스 제공 • 공통코드 및 기준정보 관리체계 구현 • 정책 변경에 유연한 시스템 구현

자료: 한국고용정보원(2024)

4)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 SIIMS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 SIIMS는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안전 관련 정보를 통합하고, 사업별 정보를 관리, 제공하고자 2013년 시범구축을 거쳐 2017년 4단계 구축, 2020년 기능 개선을 통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SIIMS는 안전정보통합관리 DB, 지역안전진단, 생활안전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각종 안전정보를 통합관리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및 평가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안전 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정보시스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 기능에 있어 재난·안전정보시스템과 구분되는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재난·안전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기존의 재난 관련 정보시스템 34종을 연차적으로 통합하는 사업으로, 재난관리24, 안전24 등 주로 실시간 재난 상황 정보 공유 등 범정부 재난관리, 재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대국민 포털 운영 등 재난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시스템이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재정 관련 정보 등은 아직 SIIMS에서 담고 있는데다 두 시스템은 통합되지 않았다. 안전예산 통계, 사업 정보 등 안전정보DB는 SIIMS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재정관리시스템 dBrain+와는 SIIMS가 조금 더 접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SIIMS의 수집 원시자료는 안전지도 구축을 위한 40개 기관 안전정보 150여 종, 지역안전지수와 안전예산 통계 산출을 위한 DB 400여 종 등이다. 안전예산 통계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예산 통계를 다양한 유형별로 분류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만 SIIMS의 재난안전예산 통계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정보를 취합한 것으로, 중앙정부의 재난안전예산과는 범주가 약간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여전히 2024년 기준 중앙정부 재난안전사업 391개 24조 6,000억원 요구액은 여전히 행정안전부에서 각 부처 재난안전예산 요구서를 시스템 지원 없이 검토해 편성하고 있다. 즉 여전히 재난안전사업 평가를 바탕으로 예산편성 사전협의제도를 거쳐, 예산에 반영하는 시스템적인 프로세스는 여전히 부재하다고 할 수 있다. 2024년 개선을 통해 재난안전예산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분석서비스를 개발, 연도별 예산 변화,

〈그림 III-14〉 SIIMS 시스템 구성도

자료: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 운영사업 과업지시서

지방재정의 성과정보를 중앙재정에도 환류할 수 있도록 하려면, SIIMS와 같은 시스템의 역할도 중요할 것이다. 중앙재정의 재난안전사업 예산 중 어느 정도가 국고보조사업인지 정확한 실태 파악이 선행되어야 전체 성과관리 정보관리의 틀을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가한 정보가 dBrain+로 들어오도록 구축되어야 한다.⁷⁾ 다만 이 부분은 시스템 운영자, 관리자, 실무자 수준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은 아닌 만큼, 앞으로도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7) 2021년도 분석 결과(박정수, 2022), 2020년도 재난안전사업 평가 대상 243개 사업 13조 4,000억원 중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와 중복으로 평가를 받은 사업은 30여 개.

5) 시사점

재정성과관리와 재정사업 성과관리 정착을 위해서는 전산 지원이 필수이다. 관련 정보는 적절하게 처리, 저장, 관리되어야 하며, 그 결과는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그리고 과거에 저장된 정보가 적절하게 표준화되어 저장, 열람할 수 있어야 재정성과정보의 사후 활용을 증진할 수 있다.

dBrain+, NTIS, NABIS 등의 시스템은, 구축 당시부터 어느 정도 재정성과관리, 사업별 평가정보 관리를 염두에 두고 개발, 운영된 시스템인 만큼 과거의 운영 경험에 앞으로의 정보관리와 활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dBrain+는 과거 운영했던 재정성과관리시스템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재정사업성과정보관리시스템을 도입했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NTIS는 dBrain+보다도 앞서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한 전주기 성과관리를 시도한 만큼, 현재 정보관리나 공개의 수준은 다른 시스템들보다도 높다고 할 수 있다. NABIS는 당초 평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이었고 데이터베이스 기능을 강화하고자 차세대 시스템 구축을 시도했으며, 2단계 구축 및 전면 가동을 시작한 만큼 앞으로 고품질의 데이터를 생산, 저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모아 시스템의 경우도 기존 노후 시스템의 빈약한 성과관리 지원 기능을 개선하고자 2024년 대대적인 기능 개선이 예정되어 있다. SIIMS는 아직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예산 정보관리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기능 개선을 위한 계획에 중앙 재정의 재난안전예산 정보관리, 성과정보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들 시스템이 독자적으로 개발, 발전하고 있는 부분은 성과정보의 공유와 활용에 있어서 우려되는 부분이다. dBrain+ 시스템을 제외한 나머지 시스템들은, 재정사업의 결산 및 집행 추적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dBrain+의 세부사업 정보와 연계가 되어 있는 NTIS는 그나마 관련 사업 및 예산편성액 정보를 함께 보여주고 있지만, NABIS나 일모아, SIIMS는 성과관리를 위한 기초적 정보인 재정정보를 연계하거나 확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예산정보의 확충, 재정사업 명칭 및 코드 등 기준정보/메타 정보 간 공유

가 우선되어야, 사업 정보와 성과정보의 원활한 공유와 활용이 이뤄질 것이다. 물론 그 이전에, 이들 시스템과 정보 공유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dBrain+ 시스템이 먼저 개방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정보의 공유는 전반적인 의사결정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 독점적 정보 수집과 폐쇄성은 지양해야 한다. 각 시스템이 저장하는 정보의 내용을 우선 공유하고, 서로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면, 사업 정보관리와 성과관리의 업무 부담도 경감되고, 나아가 이들 정보의 통합적 공개에 이름으로써 재정의 궁극적인 투명성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다.

〈표 Ⅲ-30〉 재정사업 성과관리 관련 주요 시스템 현황

	dBrain+	NTIS	NABIS	일모아	SIIMS
최초 구축	2007	2008	2009	2009	2013
현시스템	2021	2022	2022	2024예정	2022
주요 기능	국가재정 관리	연구개발 관리	균형발전사업 관리	일자리사업 관리	안전정보 관리
사업 정보	세부사업 편성정보 결산정보, 성과정보	연구개발사업 중간/사후평가정보	균형발전사업 정보 평가정보	일자리사업 정보	재난안전예산정보
성과정보	성과지표, 보고서 관리			없음	

3. 재정사업성과정보관리시스템 개선 방안

이상에서 재정사업성과정보 관리와 관련된 해외 사례, 국내 시스템 구축 현황, 타평가 정보 현황과 한계 및 개선 방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재정사업속성정보관리 시스템은 일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dBrain+의 하위 모듈로 개통한 것만으로도 그 이전과 비교해서는 진일보한 것이다. 하지만 속성, 관리, 연계 부분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 활용이 어려우며, 공개도 그 이전에 비해 획기적으로 진일보하지는 못했다.

현행 재정사업성과정보시스템은 크게 ① 데이터 속성, ② 데이터 관리, ③ 연계, ④ 활용, ⑤ 공개 차원에서 이전 대비 강화된 데이터 기반을 마련하여 성과관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데이터 속성 차원에서는 세부 점수, 사업 구분 속성 등을 평가 보고서 등을 분석해 추가하고, 시스템 업무 중복을 최소화해 순응 확대해 나가야 한다. 데이터 관리 측면에서는 업무 절차, 관리 주체 등을 명확화할 수 있는 지침안 또는 개정안 초안 마련이 필요하다. 연계 차원에서는 e나라도움 등 세부사업ID를 dBrain과 공유하는 시스템과의 연계를 강화 및 추가발굴하고, 타시스템과 ID 공유 방안 등이 있어야 할 것이다. 활용 측면에서는 재정사업 성과정보의 재정관리 업무 적용, 수기관리 정보의 추가 전산화를 통한 공동활용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공개를 위해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해, 시각화 등 다양한 형태로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표 Ⅲ-31〉 재정사업성과정보관리시스템의 개선 방안

	As-is	방안	To-be
데이터 속성	점수만 관리	데이터베이스 강화	점수 외 세부항목 관리 확대
	사업 구분 없음		평가별 사업군 구분 정보 확대
	속성 입력 업무 중복		표준화, 중복 최소화로 활용정보 개선
데이터 관리	업무 절차 불명확	관리 명확화 및 지침화	평가 지침 명문화 및 매뉴얼 확립
	관리 주체 불명확		각 부처, 평가별 관리자 명확화
연계	연계 미흡	연계 강화	연계 가능한 시스템 추가 및 표준화
	연계 키(key) 없음		연구개발, 지역발전 등 연계 강화
활용	업무 활용 없음	데이터기반 성과정보 활용	세부사업관리ID 공동활용 근거 마련
	협소한 데이터접근권		재정관리 업무에의 데이터기반 행정 확대
	여전한 정보 수기관리		타부처 공동 활용 및 평가업무 활용 강화
공개	텍스트 기반 공개	공개 강화	성과지표 등 수기 업무의 공동활용 확대
	흩어져 있는 정보		데이터베이스, 시각화 등 공개 형식 다양화 One-point 정보 제공(해외 사례 벤치마킹)

본 연구에서는 중장기 로드맵 수립, 단계별 성과정보 데이터베이스 강화, 재정 업무에의 활용 확대, 재정사업 성과정보 강화 등 4가지로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가. 중장기 로드맵 수립

데이터베이스 속성 확충, 세부 점수 및 지표 추가, 정보 공개 등 재정사업 성과 정보의 관리와 활용, 공개는 어느 한 시점의 노력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현행 재정성과정보시스템은 장장 10년 이상, 재정사업성과정보관리시스템도 2년의 구축과 2년의 안정화 기간을 거쳐 구축된 것이다. 시스템의 안정화와 정보 활용의 기반 마련을 중장기적으로 수행하려면 최소 3개년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개선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단순히 시스템에 정보를 저장하고, 활용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완벽하게 정확한 정보가 아니더라도 참고용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관점에서 사업 정보 추가, 분류 정보 확대관리 등은 1차적으로 필

요하다. 프로그램 예산체계에 더해 성과 측면에서의 사업 정보 추가, 타평가의 사업 분류체계 추가 등을 통해 재정과 관련해 보다 풍부한 정보를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국민 공개나 의회 제출이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조금이라도 틀린 정보가 나간다면 이는 책임성과 정확성 차원의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표 III-32〉 중장기 재정사업성과정보 관리 개선 방안

			1년차	2년차	3년차
사업 속성	추가사업정보	dBrain 탑재	협의	내부 연계	내부 연계
		추가 입력	탐색	입력	입력
	사업분류	대분류	시범입력	입력	입력
		중분류	-	시범입력	입력
평가 배점 및 지표	세부 점수		표준화/시범	입력	입력
	평가지표	국고보조	개선	입력	입력
		연구개발 지역발전	연계 준비	연계	연계
		기타	-	시범입력	입력
공개	평가보고서	자율평가	개선	공개	공개
		기타평가	시범탐재	공개	공개
	평가DB	1차	탐색 개발	입력	공개
		2차	-	탐색/입력	공개
		시각화	인포그래픽	자동화 차트	
	성과목표지표	국고보조	정리/개선	공개	공개
		평가별 지표	시범입력/연계	활용	공개

따라서 대국민 공개에 이르기 위해서는 정보 정확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 방안이 있어야 한다. 사업 속성, 세부 평가 배점 및 성과지표, 공개 등에 있어 3개년에 걸쳐 DB 확장 및 공개 확대가 필요하다.

나. 단계별 데이터베이스 강화

현행 재정사업성과정보시스템의 속성정보가 성과정보로 보기에 일반적인 재정사업의 설명 속성에 가까우며, dBrain+ 또는 외부 사업 설명자료 등과 중복 정도가 높고, 타평가 보고서에서 추출할 수 있는 성과 속성을 반영하지 못했음은 앞에서 분석한 바 있다.

재정사업 성과정보는 단순히 사업별 평가 등급, 점수만 가지고 있어서는 데이터베이스라고 하기 어렵다.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면, 일련의 체계적인 분류체계에 구축되어야 하고, 개별 사업별로 어떠한 정보는 선택기입형 속성으로 되어야 하는지가 명확히 정의되어야 하며, 관련 문서 역시 사업별로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 당초 재정사업 성과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목적도 한 곳에서, 최소한 각 개별평가 결과 자료는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여전히 사업별 평가보고서 자료는 개별 평가 주관부처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재정사업 속성은 해당 재정사업을 명료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일반적 속성으로 구성된 채 현재에 머물고 있다.

최소한, 사업 유형 분류의 대분류 정보는 입력, 관리하도록 보완해야 할 것이다. 현재 일자리 사업과 같이 사업 유형의 대분류는 입력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재난안전사업처럼 대분류 속성은 있으나 입력이 안 되어 있는 속성도 있었다. 전반적으로 사업 유형 분류의 대분류를 입력하도록 해 유지,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고보조사업 상세분류, 일자리 사업 상세분류 등 당장 연계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중분류 속성은 중장기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사업 유형 분류 속성을 추가해 관리하되, 중장기적으로 사업 기본정보 속성, 배점, 평가 제외 사업 및 사유 등을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표 Ⅲ-33〉 추가 속성 관리 방향

구분		지표 및 방향
사업 기본 정보	현행 성과속성	사업기간, 지출종류, 국정과제, 예산집행방식
		사업시행주체, 사업수행활동
	추가 속성	사업목적, 법령, 지원대상, 지원조건
		공모사업 여부,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 유형 분류	각 평가의 대분류 중심으로 분류체계 관리	
	중소기업	8대 대분류(금융, 기술, 인력, 창업, 수출, 경영판로, 소상공인, 인프라)
	일자리사업	7대(직접일자리,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실업소득유지및 지원, 지원고용 및 재할)
	재난안전사업	3대 대분류(자연재난, 공통, 사회재난안전사고)
	균형발전사업	4대 대분류(희망, 혁신, 자율, 공정)
	연구개발사업	8대 중분류(기초연구, 중장기산업기술개발, 단기산업기술개발, 공공기술개발, 지역연구개발, 인력양성, 해외협력, 성과확산)
	복권사업	2대 대분류(법정배분사업, 공익사업)
	자율평가	지출구조조정 대상사업, 제외사업, 성과관리개선계획 사업
	보조사업	대분류(사업형, 급여형)
상세 분류 속성	국고보조(e나라도움), 연구개발(NTIS) 등 개별 검토 후 연계 관리, 확대	
배점	총점 우선 관리 → 표준화 사업 관리 → 타사업 검토 후 확대	
기타	평가 제외 사업(사유)	

다. 재정업무에의 재정사업성과정보 활용 확대

앞선 1절에서는 데이터 입력자와 관리자 차원에서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데이터는 입력자와 관리자 사이에만 가두어져서는 안 된다. 데이터는 정부 내에서도 보다 많은 사용자에게 공유됨으로써 부가가치가 커지게 된다.

먼저 평가 업무에 재정성과관리시스템과 재정사업성과정보시스템 사용을 확대

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평가 업무는, 개별 부처에서 평가 자료를 취합, 관리하는 세부사업별 평가 담당자의 업무를 말하는 것이다. 평가 업무에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은 데이터 기반 행정에 일부 기여할 수 있는 사안이다. 물론 재정성과관리시스템과 재정사업성과정보시스템에 저장된 정보는 과거의 평가 정보, 편성 및 집행 등 재정관리에 관련된 정보 일부이다. 데이터 기반 행정은 성과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 기반 행정을 포괄하며, 여기서 재정성과관리시스템과 재정사업성과정보시스템은 과거의 집행 흔적 등 증거 일부만을 의미할 뿐이다. 다만 과거의 재정성과, 재정사업성과 정보는 올해 사업 성과를 위한 증거 수집의 출발점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dBrain+의 정보들은 각 부처의 다부처 사업 성과관리에 참고가 되는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일차적으로는 프로그램 예산체계 자체에 이들 정보를 가두지 말고, 다부처 사업 성과관리 등 타부처가 주관하는 평가에도 재정성과관리시스템, 재정사업성과정보시스템의 사업 정보를 활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일자리 사업 평가에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는 비록 관점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참고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재정당국이 주관하는 기금운용평가,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에도 타부처 평가 정보 등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현재 기금운용평가 사업운용 부문은 단지 재정사업 자율평가 보고서만을 취합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 가용량이 제한적이며, 준치평가 사업 부문에서도 이 자율평가 보고서만 참고하지 말고 타부처 평가 정보를 함께 이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도 타 사업군 과거 평가 이력을 평가위원회에 함께 제공할 수 있다면, 평가자는 더 넓은 시각에서 사업의 준치 여부 등을 평가할 수 있게 된다.

다음은 프로그램 예산체계 본연, 즉 예산편성 과정에도 재정성과정보와 재정사업성과정보를 활용하게끔 증진하는 방안이다. 현재 예산편성 과정은 세부사업 단위의 미시예산심사 제도를 유지하고 있어, 프로그램과 단위사업 중심으로 생산되는 재정성과정보와 연결고리가 약한 편이다. 그러나 세부사업, 내역사업 단위로 생산되는 다부처 사업 정보가 풍성하게 저장, 관리된다면 이는 예산편성 과정에도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다. 현재는 이를 평가 결과 정보만을 재정당국에서 제출받아 기

계적으로 예산편성 심의에 활용하는 수준이지만, 평가 정보의 과거 이력 정보, 추가 사업 정보 등을 속성화한다면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 정보의 유용성이 크게 증진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사업 성과정보의 확충과 함께, 성과정보에의 접근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재정사업 성과정보를 폭넓게 이용한다면, 성과 중심 재정운용 기조의 정착에 큰 도움이 된다.

라. 성과 중심 재정정보 공개 강화

재정사업성과정보관리시스템 확충 및 강화의 최종 목적은 재정정보를 성과 중심으로 공개해 재정의 투명성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여전히 국민의 성과정보 접근성이 떨어지고 이해도와 활용도가 낮은 만큼, 재정사업성과정보관리시스템의 확충 및 강화된 정보를 중심으로 재정사업 성과정보 공개가 필요하다.

여전히 재정성과정보 공개는 여러 평가와 보고서별로 분절된 상태이다. 접근성이 불편하고, 적절한 체계를 갖추고 공개되고 있다는 인상을 주지 못하고 있다. 사용자가 관련 재정사업 성과정보를 획득하려면 평가제도에 대해, 공개 홈페이지에 대해 알아야 하는 한계가 있다. 또한 정보 제공 방식이 보고서 형태로만 여전히 국한되어,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가 전달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일단 시범사업 데이터를 오류 수정, 정확도 개선을 거쳐 프로그램 예산체계 등 현행 dBrain+ 세출 정보를 결합해 우선 공개한 후, 확충 및 안정화를 거쳐 중장기적으로 재정사업 성과정보를 전부 공개해야 한다. 시범사업 후 2020~2022년도 평가 데이터는 존재하는 만큼, 단기적으로 데이터 정제를 거쳐 사업별 평가 정보를 다운로드 가능한 형태로 공개한다. 사업 속성은 확충 및 과거 데이터 확보를 거쳐 중장기적으로 순차 공개해 나가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통합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에서 재정사업 성과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공개하고 사업별 검색 기능을 제공하며, 제공 양식을 통일하고 사업 구분별, 분야/부문별 평가 정보 필터 공개 등을 제공하면 국민이 재정사업 성과정보를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데이터 다운로드 및 검색 기반 정보 제공 외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각종 평가 정보를 한 곳에서 공개하는 것이다. 현재의 열린재정의 재정사업 성과정보는 문서 검색 한 곳에서만 열람이 가능한 상태다. 데이터베이스 공개 페이지가 마련된다면 성과계획서와 보고서, 부처별 자율평가보고서를 해당 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는 방식의 정보공개가 필요하다. 그리고 타평가 보고서 중 공개가 가능한 것부터 열린재정 업로드를 시작하고, 공개해야 한다. 마지막 단계는, 여러 평가를 사업별로 분할해 보고서를 사업 속성정보, 사업정보, 성과지표와 보고서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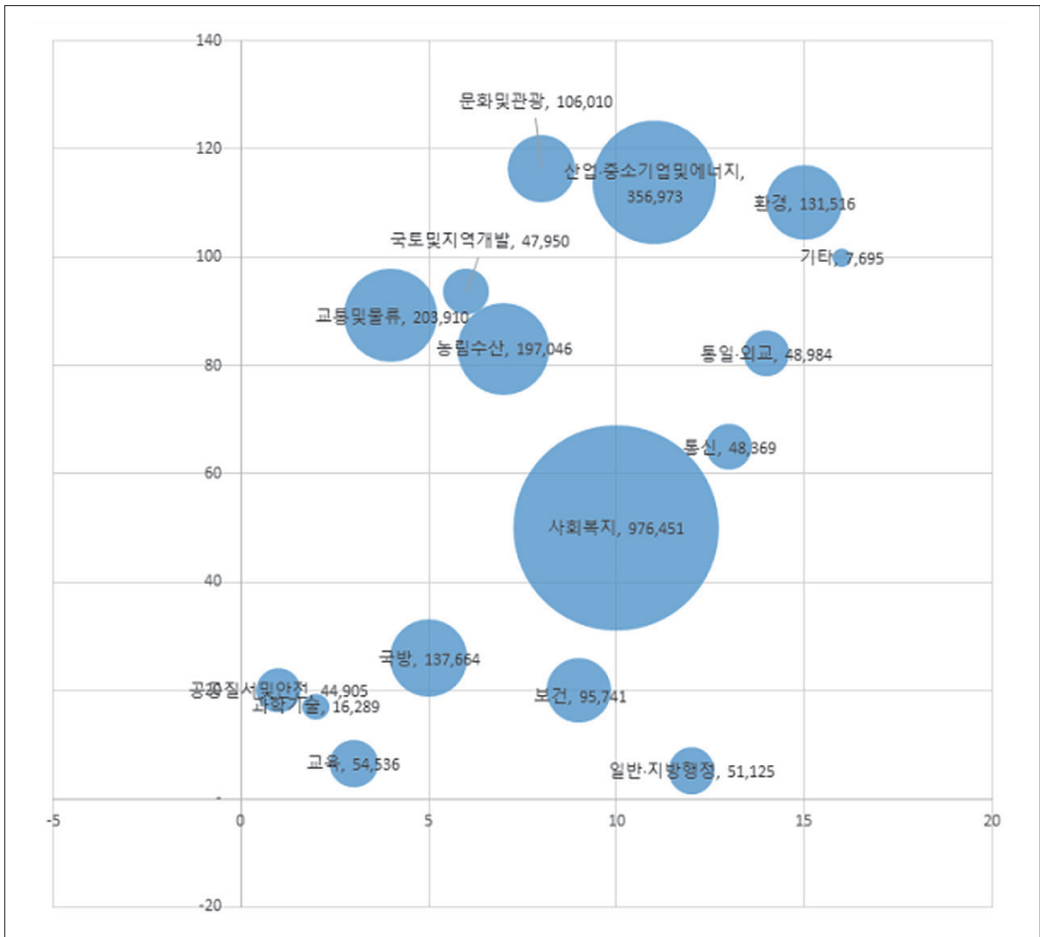
재정사업 성과정보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자, 시각화 등 다양한 정보 전달 수단을 활용할 필요도 있다. 한눈에 알기 쉽도록 시각화된 자료를 제공한다면 큰 도움이 된다. 정보 사용자가 별도의 조작 없이 조회할 수 있는 인포그래픽 외에도, 시각화 대상과 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 성과정보 대시보드 및 사업 검색 등 사용자 대화형 시각화 기능을 개발해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해도 제고를 위한 재정사업 성과관리 설명자료 역시 중장기적으로는 고려해야 한다. 각 평가의 의의가 무엇인지, 연간 평가 현황은 무엇인지, 환류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정보가 함께 제공되어야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대국민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단순히 국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구호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결과를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재정성과관리 용어집, 재정성과관리 해설서 등이 제공되어야, 성과 중심으로 재정사업을 알리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다.

〈표 Ⅲ-34〉 재정사업 성과관리 자료 공개 현황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지율평가	기금	국고보조	복권기금	연구개발	재난안전	균형발전	일자리	중소기업
주관부서	기획재정부						과기부	행정안전부	균발위	고용노동부	중기부
보도자료 여부	X	X	X	O	O	O	O	O	O	O	O
보고서 공개여부	O	O	O	O	O	O	O	O	X	O	X
보고서 공개 사이트	열린재정/ 의안정보 시스템	의안정보 시스템	열린재정	기재부 홈 의안정보 시스템	나라도움 의안정보 시스템	복권위 홈	KISTEP/ NTS	PRISM	X	고용부 홈	X
평가 단위	프로그램	프로그램	세부사업 /사업군	기금 /내역사업	세부사업 (민간/지자체)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내역사업	내역사업	세부사업
시각화 여부	O	X	X	X	X	X	O	X	X	X	X
보고서 형식	HWP	PDF	HWP	HWP	PDF	PDF	HWP	PDF	X	PDF	X
보고서 단위	부차별	부차별	부차별	전체	사업별	전체	사업별	전체	X	사업별	X
공개시점	예산(9.3.)	결산(5.31.)	3월 경	5.31.	예산(9.3.)	5월초	지체(6월) 상위(연말)	보도(5월초) 파일(연말)	5월말	보도(6월초) 파일(7월초)	8월초

〈그림 Ⅲ-15〉 성과정보 활용 인포그래픽 시안 예시



주) 중복 평가받은 사업 포함

IV. 결론

재정성과관리는 시스템 전산 지원을 통해 기능할 수 있으며, 정보공개를 통해 완성된다. 재정을 성과지향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재정이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는 말과 동치가 아니다. 재정운용의 성과는 매우 광범위하게 모호하다. 하지만 그것이 재정운용이 그 성과를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도 아니다. 재정이 운용되는 이상, 어딘가에 그 흔적은 남게 된다. 그 흔적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여 국민에게 보고하고 홍보하는 것이 바로 재정운용의 성과지향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재정운용의 성과지향성은 반드시 대국민 투명성을 담보로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정보는 문서 형태로만 전해지거나 구전되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재 활용이 가능한 수준으로 시스템상에 저장, 관리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계획이 있어야 하고, 확인 가능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 재정운용계획,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재정 운용, 성과 확인, 정보 저장과 관리, 공개가 바로 재정성과관리의 하나의 사이클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이 요구하는 재정운용의 성과라는 것도 항상 변하기 때문에 재정성과관리와 전산시스템, 정보공개는 시기에 따라 변하기 마련이다. 살펴본 외국 사례에서도, 우리나라의 사례에서도 재정성과관리 제도와 이를 통해 공개되는 정보는 계속 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하는 정보를 어떠한 모양의 시스템이라는 그릇에 담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재정운용의 중추시스템을 dBrain+라고 했을 때, 이 시스템은 기존 운영되던 시스템을 한 차례 업그레이드해 2022년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면 재개통합으로써 그 기반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dBrain+ 이전 시기에 운영하던 재정성과정보시스템은 2000년대 후반의 재정성과관리를 담기 위한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현재 그 한계가 명확하다면, 2022년 새 시스템에서 오픈한 재정사업성과정보관리시스템은 변화하는 제도와 국민의 요구를 담기 위해 오픈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시스템에 탑재되는 정보는 아직 부족하고, 안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보를 재정운용에 활용하고 국민에

게 공개하는 데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는 오히려 국내외의 재정사업정보 시스템이 정보공개에 매우 적극적인 점과 대비되는 부분이다. 미국의 performance.gov와 evaluation.gov, 영국의 각종 지침, 일본의 정책평가 포털 등은 모두 “성과관리와 관련된 공식 정보는 기본적으로 공개”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타평가 관련 사업정보시스템인 NTIS, 일모아, NABIS 등은 각종 평가 업무를 지원하고, 사업 정보를 공통서식에 입각해 저장, 관리하고 한다는 특징이 있다. dBrain+도 이들 국내 재정사업 관리 시스템과 유사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다만 아직 국내 시스템들 간에는 재정사업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앞으로 어떠한 거버넌스를 통해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재정사업 정보 공유 기반은 대국민 정보공개에도 필요하지만, 각종 시스템에 자료를 입력하는 담당자의 업무 부담 경감이라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재정사업성과정보관리시스템 개선에 있어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관리 정보의 확충이다. 현행 시스템은 대단히 시범적으로 구축되어 있으며, 각종 평가 보고서의 기초 정보만을 담고 있는 수준이다. 물론 모든 평가보고서의 정보를 표준화해 텍스트까지 데이터베이스로 저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8종에 이르는 각종 평가보고서 중 의미 있는 것, 공통화가 가능한 것을 선별해 순차적으로 관리 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에 착안해 텍스트로 생산되는 각종 보고서를 분석하고 먼저 도출 가능한 속성이 무엇인지 탐색해 보았다. 이미 평가보고서 자체가 사업 정보를 매우 요약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표준화하기는 어려웠지만, 적어도 사업 구분 속성, 사업 기본 정보, 평가 항목 점수, 성과지표, 텍스트 보고서 등을 검토하고 이를 중장기적으로 관리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정을 보다 성과지향적으로 보여준다는 「국가재정법」의 기초 이념에 보다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반부터 재정성과관리를 시범도입해 왔고, 이를 제도화해 상당 기간 운영해 오으로써 지금에 이르고 있다. 많은 정보가 바로 재정사업이라는 재정 최하단 분류를 기준으로 생산되는 만큼 이 정보들이 성과지향적으로 정렬되어 활용되고, 국민에게 제공됨으로써 재정의 투명성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Government of UK. (2023). Government Functional Standard 006: Finance.
_____. (2023). Government Functional Standard 010: Analysis.
- UK Dept of Defence. (2023). Annual Report.
- US Dept of Treasury. (2022). DAIMS Model Schema.
- US Office of mngt and Budget. (2019). Phase I Implementation of the
Foundations for Evidence-Based Policymaking Act of 2018: Learning
Agendas, Personnel, and Planning Guidance
_____. (2023). Preparation, Submission and
Execution of the Budget. OMB Circular A-11.
_____. (2023). President's Budget.
- 국가과학기술심의회. (2013).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개선 종합대책
기획재정부. (2023).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사용자매뉴얼.
- 박노옥. (2011). 재정성과관리제도의 국제적 동향과 시사점: 미국·캐나다·영국을
중심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박정수. (2020). dBrain 기반 재정성과관리 지원 강화 방안. 한국재정정보원 재정
정보분석 20-03.
_____. (2022). 재정성과관리. FIS Issue&Focus 22-02.
_____. (2022). 재정성과정보 분석 및 시스템 개선방안. 한국재정정보원 재정정보
분석 22-00.
- 오영민. (2016). 우리나라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재정성과정보 활용에 대한 실증연
구: 재정성과목표 관리제도 성과정보 활용의 효과성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
정책학회보.
- 원종학 외. (2011). 주요국의 성과관리제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원종학, 금재덕. (2012). 성과정보 신뢰성 제고를 위한 통제시스템 구축방안. 한국
조세재정연구원.

- 이광희. (2015). 평가의 타당성 제고를 위한 성과측정 매뉴얼 개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2015-16.
- 이홍재. (2011). 성과관리와 예·결산 심의의 연계성 제고 방안 연구: 국회의 예·결산 심의과정을 중심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용역보고서 2011.
- 조선일. (2016). 성과관리 관리체계 효율성 분석: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보.
- 한국고용정보원. (2024). 일모아시스템 고도화 사업 과업지시서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23). 2024년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시스템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과업지시서.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2020). 국가균형발전 종합정보시스템 2단계 구축사업 과업지시서.
- 행정안전부. (2024). 2024년도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과업지시서.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재정부 성과관리, IT시스템으로 한다. 2011. 10. 28.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부처별 핵심임부 성과지표·달성도 공개 및 12대 핵심재정사업 집중 관리 등 성과관리체계 개편. 2023. 1. 3.

재정사업 성과정보 관리·활용 개선 방안

발 간 월 2024년 11월

발 행 인 박용주 한국재정정보원장

참 여 진 박정수 부연구위원

편 집 재정정보분석센터

발 행 처 한국재정정보원

(04637) 서울시 중구 후암로 110 서울시티타워 8층

(Tel. 02-6908-8200)

인 쇄 처 디자인아이 Tel. 02-6358-2124

I S B N 979-11-91094-34-3

문 의 재정정보분석센터 02-6908-8200

mymajesty@fis.kr

